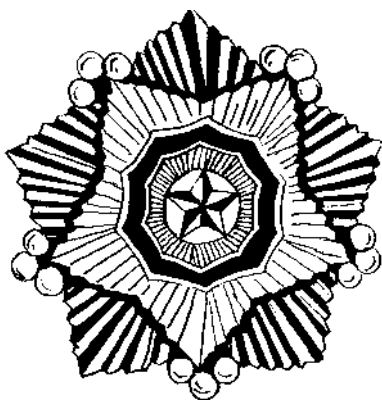




5

주체 102 (2013)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2(2013)년 제5호

(루계 제787호)

차례

밀림에 해빛 눈부시다(시)	서 봉 제(3)
대동강정서(시)	리 명 근(4)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여(시)	오 동 규(4)
조선의 불호령소리(시)	김 선 화(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6)
조선의 선언(시)	김 영 택(6)
선군태양은 영원하다(평론)	김 순 립(7)
주체문학의 대강	(9)
샘터에 피어난 웃음꽃(혁명일화)	(10)
봄날의 이야기(시)	홍 철 진(11)
위대한 어머니강에 드리는 다함없는 청송의 송가(평론)	김 정 평(13)
그날의 그 순간이 흐르고있다	김 성 욱(12)
◇ 9분 27초가 지난 뒤	한 광 춘(15)
시 모내기벌에서(단시 묶음)	함 영 근(25)
◇ 숲의 노래	주 경(26)
병사시절 나의 세포위원장(시초)	류 민 호(38)
수 우리의 행복을 두고	리 대 윤(41)
필 강제이웃	기 경 호(49)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자기의 부모처자를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마을과 자기 일터를 남부럽지 않게 잘 꾸리며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기 위하여 성실한 땀을 바치고 자기 한몸을 다 바치는 참된 애국자가 되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김정은

이 땅을 사랑하라 오 광 천(16)

단편
소설

달 밤 리 룡 운(27)

내 고향의 작은 다리 로 정 법(51)

사랑으로 불탈 때면 백 상 균(62)

단편소설과 작가의 독창적인 형상탐구(평론) 최 언 경(44)

— 시 —

토전의 휴식참이야기 심 복 실(43)

조국을 떠나면서 정 화 수(총련)(50)

우리는 세포등판에서 다시 만났다(외 1편) 리 경 체(58)

인간사랑의 제단에 서서(편시) 조 광 원(59)

광주의 태아 홍 순 련(총련)(78)

강과 수령, 조국과 결부된 인간의 운명물체를

깨기한 시인 김상오의 작품들(자료) 최 남 순(70)

천마산탐승기(기행) 리 성 덕(73)

반일의병장 류권석과

시 《세상을 걱정하노라》(소개) 리 규 찬(79)

상 식 (37), (40)

표지2면: 《운명도 미래도 말긴분》(노래)

3면: 《세포등판을 대규모축산기지로!》(선전화)

밀림에 햇빛 눈부시다

서 봉 제

숲푸른 청봉
아침이슬 구르는 밀림엔
하늘에도 땅에도
햇빛이 눈부시다

20대 빨찌산 김대장
위대한 수령님 동상 우러러
하얀 화강석계단을
승엄히 오르는 이 마음
눈부신 해살에 가슴젖어라

간밤도 어깨우에
밀림의 찬이슬 맞으시며
숙영지의 밤을 지새우신듯
무릎우에 펼쳐드신 작전지도에서
연필을 떼지 못하시는 거룩한 영상이여

만리광야 밀림의 지나긴 세월
마음속에 늘 부르시던 《사향가》와 함께
그리고그리시던 조국산천
대원들모두 고국의 향수에 잠긴 밤
그이의 마음 얼마나 그리움에 젖었으랴

별빛에 실려오는 대동강의 물소리
아름다운 만경대의 봄만이 아니었으리
조국땅에 다달으신 그이의 한복에
이 나라 인민의 모든 고향 자리잡고있었기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시던 그 손길로
온밤 달리시던 그날의 연필소리...

오늘도 들려오는 그 소리 새기노니
여기 동상 높은 대돌 내리시어

우리 수령님 낯익은 이깎숲 거니신것 아니신가
이 강산에 해방만세도 터쳐주시고
이 땅우에 인민의 락원도 세워주시고
그 몇십년만에 다시 오신 청봉

락엽에 묻힌 천막자리도 찾아주시고
대원들이 쓴 구호도 한자한자 읽어보시고
이끼덮인 진대나무에도 앉으시여
오늘은 여기서 천막을 치고
하루밤 자고가면 좋겠다 하시며
아, 조국진군의 첫밤을 감회깊이 추억하신
어버이수령님

화강석 이 마당에서 상봉하시지 않으셨던가
경건히 우러러 다가서시는 우리 장군님께
무산지구전투의 이야기
오늘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야만
강성국가의 평마루에 올라설수 있다시며
수령님과 장군님 나누신 심중의 대화여!

그날의 환희를 전하며
기쁨에 날으는 산새들도
청고운 목소리로 푸른 창공 휘젓는것이냐
숙영지에 흐르는 안개도
투사들 남긴 후더운 숨결인듯

아, 우리 수령님의 빨찌산력사로
우리 장군님의 백두산력사로
우리 **김정은**원수님의 선군령도로 빛나는 땅
햇빛 눈부시다
혁명의 성지 청봉은
위대한 태양의 빛을 받아 눈부시다



대 동 강 정 서

리 명 근

살랑이는 봄바람에
하느적이는 파아란 버들아지
대동강반의 아름다움을
한껏 속삭이는 이 봄날
내 마음속에 출렁이는 그날의 이야기...

그날 대동강물결우엔
크지 않은 유람선 한척
아버이 우리 수령님
외국의 손님과 함께
대동강을 유람하고계시었더라

배전에 능실대는 맑은 물
시원히 불어오는 강바람
유람선은 경쾌히 달리는데
문득 속도를 늦추라고
선장에게 이르는 수령님

순간 능실대던 물결은 사라지고
시원한 강바람도 사라졌으니
외국손님은 성급히 물었더라
왜 이 좋은 유람의 풍경을
멈춰세우는가고—

그러자 우리 수령님
웃으시며 기슭을 가리키신다
인민들이 낚시질을 하는데
물이 흔들리면 고기들이 달아난다고
저 아름다운 대동강정서를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하실 때

아, 언제나 인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그 위대한 품모앞에
다시한번 머리숙이는 외국손님
어이하여 인민들이 아버지라 부르는지
그 참뜻을 새겨보는 그 마음...

어느덧 대동강정서가 짙은
낚시터를 지나간 유람선
바람은 시원히 배전에 날리고
물결은 또다시 배전에 사품친다

세월은 자꾸 흘러가고
그날의 정서를 비껴실고
대동강은 오늘도 푸르르구나
나의 마음도 추억을 안고 푸르른
아름다운 대동강반의 봄이여!

보통강개수공사기념 랍 이어

오 동 규

보통강개수공사기념 랍
해방된 조국땅에
건설의 노래가 울려 퍼진 곳
국토건설의 새 력사가 펼친 곳

여기서 내 안아보노라
아버이수령님 몸소 쓰신
보통강개수공사의 첫삽을
그 첫삽에서 시작된
평양시민들의 애국의 열의를

낮과 밤 따로 없던

공사의 그 광경이 눈앞에 어려온다
목도채 휘도록 흙을 나르며
만년제방의 석축을 쌓으며
해방의 기쁨을 꽃피우던 그날의 모습

어찌 다 그려보라
아버이수령님과 김정숙어머님
이 강반에 흘리신 애국의 땀방울
어린시절 장군님 남기신 불멸의 자욱
강반에 설레이던 착공의 기쁨

정녕 눈물의 강이었다

한줄기 비에도 마을이 없어지고
 며칠의 가물에도 바닥이 드러나
 원한의 강 재난의 강으로
 눈물마저 말라버린 사람들
 삶이 저주로웠던 토성랑의 인생들

그 삶 그 인생들을
 락원의 언덕에 꽃으로 피워주시려
 항일의 나날에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무르익혀오신 조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애국의 첫삽으로 펼치신 아버지수령님

아, 그 사연 그 념원
 뜨겁게 어린 탑
 세월의 언덕에 높이 솟은 탑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천만로그를

다 말해주는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여
 탑이여
 나는 탑아래서 다 안아본다
 해빛아래 빛나는 기념비적창조물들...
 강반에 펼쳐진 공원과 유원지...
 강반에 솟은 청류관 빙상관 창광원...

아, 바라볼수록 가슴뜨거운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이여
 너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의 전설
 만대에 전해주는 불멸의 기념비
 원수님 가꾸시는 행복의 세월속에
 천년 솟아 빛나라 불멸의 그 업적
 만년 솟아 노래하라 사랑의 그 전설

조선의 불호령소리

김 선 화

통패하도다
 누가 누구를 끌고다녔는가
 만경대 할머니에게 코를 꿰어
 설설 기며 째째 매며 끌려다니던
 쪽발이왜놈들 가련한 번절자들

— 좋다 가겠거든 가자
 그러나 꿈도 꾸지 말아
 네깃놈들 도와줄 이 할미가 아니다
 나는 내 손자가 싸우고있는
 백두산과 만주의 산천을 실컷 돌아보겠다

추우면 추워서 안 가겠다
 피곤하면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김장군의 할미를 무얼루 알고
 네놈들이 나를 허술히 대하느냐
 숨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다블러대는 소리

오호라
 맞받아 위협하고 울렀다메고
 위엄있게 분부하고 호되게 꾸짖고
 쓴웃음 지으며 내리시는 호령에
 간담이 서늘, 기가 질린 놈들에게
 추상같이 떨어지는 불채찍소리

—버릇없는 놈

그놈더러 여기 와서
 김장군의 할미앞에
 세배를 하라고 해라
 으흠

조선아 보았느냐
 백두산호랑이 김장군의 할머니를
 감히 어느 놈이 굽힐수 있다더냐
 꺾을수는 더우기 없었도다
 그 존엄 그 배심 불굴의 그 기상!

오호, 흰 무명수건 펄펄
 김장군빨찌산의 백포자락이런가
 눈덮인 백두의 산발
 설한풍 세찬 만주광야에 날리시며
 짚신발로 《대일본제국》을 지르밟고서
 찌렁찌렁 웨치시는 불호령소리!
 조선의 불호령소리!

오호, 그날의 불호령소리!
 바다건너 칙략의 아성을 뒤흔들고
 만경대의 기둥을 굳건히 받들어올렸거니
 장장 스무해 이렇게 지켜오셨다 할머니은
 오로지 독립, 조선의 독립을 안고
 장손이 들어서실 만경대고향집을
 오, 조선의 심장을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은 미래를 띠는 사람들입니다. 혁명 그자체가 원래 미래에 대한 꿈이나 새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부터 시작되는것입니다. 미래의 세계에 대한 숭고한 리상을 가지고 그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꾸준히 투쟁해나가는 사람이 혁명가입니다. 미래에 대한 띠관이나 혁명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애당초 투쟁의 길에 나서지도 않을것이며 설사 혁명에 뛰어들었다 하더라도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도저히 이겨내지도 못할것입니다.》

《혁명적신념과 의지와 띠관은 혁명가가 지녀야 할 3대특질,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품격을 이루고있는 3대요소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조선의 선언

김 영 택

푸르른 저 하늘에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가 날아오를 때
너와 나 우리모두의 존엄도 함께 올랐다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하였을 때
조선의 국력은 세계를 굽어보았다

온갖 원썬들의 《제재》와 봉쇄
고립의 포위환을 산산이 짓부셔버리며
지구를 박차고 우리의 위성은 하늘에 오르고
온갖 원썬들이 《결의》를 부르짖을 때
우리의 핵퇴성은 백악관의 기둥을 뒤흔들어
놓았다

이것은
원썬들의 머리우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한 조선의 선언
정의를 사랑하는 진보적인류가
경탄의 목소리 합쳐 칭송한
이 행성의 대사변 조선의 패승

우주강국의 대문을 열어제끼며
위성제작발사국의 위력을 펼칠 때마다
원썬들은 아우성치며
우리의 진군길에 차단봉 내리려
발악을 하였다

원썬들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핵전쟁의 검은구름 몰아올 때
우리는 자주의 핵보검으로
전쟁의 검은구름 쳐갈기며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로선으로
반미대결전을 선포하였나니

우리의 정당한 위업 단호한 결심을
온 세상사람들은 보았다
온갖 원썬들 제아무리 날뛰어도
조선이 나아가는 길은 막을수 없다는것을
인민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도 꺾을수 없다는
것을

또다시 오르리
련이어 오르리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호들이
그 위력 세상에 떨치리
무진막강한 우리의 핵위력!

백두산위인들이 축복을 주시고
천출명장 **김정은**원수님 이끄시는
인공지구위성제작발사국
핵보유국의 긍지와 영광을
내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저 우주 한끝까지
새기고 또 새기리라

선군태양은 영원하다

—선군태양의 노래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에 대하여—

김 순 립

오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날이 가고 달이 바뀔수록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더더욱 사무치는 절절한 그리움으로 심장을 끓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산악같이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천만군민은 원수님께서 올해신년사에서 밝혀주신 승리의 리정표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시험성공을 비롯하여 아버지장군님의 유훈관철에서 대변혁을 일으키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 절세의 애국자에 대한 열화와 같은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선군태양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노래한 선군태양송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를 심장으로 부르며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한생을 뜨겁게 돌이켜보며 백두산대국의 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선군태양에 대한 불멸의 송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우리 수령님과 같이 인류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령도자로서, 혁명가로서, 인간으로서 지닐수 있는 사상정신적품도를 최상의 높이에서 지니시고 우리 조국청사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이룩하신 영원한 태양이시라는것을 시대의 걱정과 인류의 념원을 담아 함축되고 저력있는 형상으로 높이 구가하고있다.

우리 천만군민은 노래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를 높이 부르며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장군님의 태양상을 끊임없이 찾고찾으며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장군님의 필생의 뜻과 유훈을 관철하기 위하여 백옥같은 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을 다 바쳐가고있다.

위대한 선군태양찬가는 시대의 지향과 념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하고 열렬한 충정의 세계를 새로운 시적일반화와 함축된 시어와 표현들로 무게있고 깊은 뜻을 담아 노래하고있으며 아버지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세기의 창공높이 올려퍼지게 하고있다.

이 강산 밝히는 해빛처럼
누리에 그 미소 찬란하다
인민위해 바치신 아버지사랑
무궁토록 빛을 뿌린다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노래에서 무게있게 구가하고있는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은 선군의 령장이시며 영원히 지지않는 태양이시다.

노래는 영원무궁한 선군령장의 업적을 태양에 비겨 격조높이 노래함으로써 우리모두의 가슴가슴마다에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게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그 누구보다도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시였으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 한생을 깡그리 바치시여 조국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생애는 혁명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미답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오로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애국자의 한생이었다.

하기에 우리는 가요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보며 어버이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은 비록 고동을 멈추었으나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생전의 모습으로 영생하시며 누리에 해빛같은 미소를 찬란히 뿌리시며 언제나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밝고 창창한 앞날을 축복해주고계신다는것을 억척같은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의 태양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보낸 날과 달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김정일**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것인가를 더욱 뜨겁게 절감한 나날이었다.

선군태양송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가 뽐어주는 거대한 사상정서적감화력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사회주의와 정의와 진리의 위대한 수호자이시며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전,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어 나라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비상히 높이시고 인류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시었다는것을 폭넓고 격조높이 구가한데 있다.

정의와 진리의 앞길 밝힌
선군의 그 자욱 불멸하다
조국위해 쌓으신 위대한 업적
후손만대 길이 빛나리
장군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정의와 진리의 앞길을 밝히시며 선군의 불멸의 자욱을 력사에 깊이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업적은 세월의 끝까지 천추만대를 두고 영원히 빛날것이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보다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조국통일과 인류자주화위업을 위하여 그토록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한생은 우리모두의 삶과 투쟁의 최고귀감으로, 우

리 혁명의 가장 고귀한 재보로 길이 빛날것이다.

바로 여기에 선군태양찬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가 시대와 인류앞에 격조높이 구가한 사상정서적주장이 있다.

위대한 태양을 우러러 시대의 창공높이 이 땅의 끝에서 끝까지 울려퍼지는 시대와 인류가 터치는 영원한 태양송가는 준엄한 날에도, 행복한 나날에도 은혜로운 태양이 솟아오른 주체시대의 새날과 더불어 시대와 인류의 넓고 심장속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왔으며 오직 한마음 인류의 태양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간절한 념원, 불타는 충정에 뿌리를 두고 온 세계를 향해 높이 울리고있다.

우리의 수령영생송가는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송가예술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 빛나고있으며 자기의 높은 사상예술성과 철학적심오성, 혁신적인 경지를 힘있게 과시하고있다.

수령영생송가는 오늘 우리의 수령형상송가가 의거하고있는 독특한 일반화의 방식과 새로운 사상예술적면모를 뚜렷이 특징짓고있으며 바로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높은 감화력과 설득력을 가지고 널리 보편화되고있다.

돌이켜보면 수령영생송가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는 한평생을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확고한 신념을 시대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노래하였다.

이 절절한 감정은 그대로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려는 충정의 감정이며 단순한 념원의 세계를 넘어선 시대적이며 전인민적인 혁명적감정으로 되고있다.

행복만을 안겨주는 은혜로운 태양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깨끗한 의리가 굽이치고있다.

그것은 자신들의 행복이 오로지 위대한 수령들께서 계시기에 마련된것이며 행복한 미래도 수령을 모시고 받들어나가는데 있다는 숭고한 자각과 신념이며 혁명적의지이다.

그것은 또한 자애로운 인민의 어버이를 우러러 자식된 도리와 전사, 제자된 도리를 지켜가려는 아름다운 량심과 의리의 감정이다.

수령영생송가의 이러한 숭고한 전통과 시적일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촌리를 벗지 못한 작품, 누구나 쓸수 있는 수법으로 씌여진 작품, 작가의 독특한 재간이 엿보이지 않는 작품은 레외없이 사람들로부터 지성세계가 낮은 작품으로 평가된다.

문학작품의 지성세계는 작가의 지성도의 한계를 벗어날수 없다. 작품의 지성수준은 전적으로 작가의 지성도에 의해 결정된다.

작가는 독자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가르치자면 그들보다 아는것이 많아야 한다. 작가는 백을 알고 하나를 가르쳐야지 하나를 알고 하나를 가르치려 하여서는 안된다.》

반화의 특성을 혁신적으로 계승하여나온 선군태양영생송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영생의 념원이 신념과 의리와 하나로 이어지면서 선군시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의 목소리로 되어 터쳐오르고있다. 바로 여기에 영생가요의 정서적열도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이 있으며 우리 송가문학의 정서적일반화의 특성이 있다.

이처럼 수령영생송가는 수령을 받들어 노래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감정을 천명하는 기본바탕을 이루고 형성되고있다.

우리의 수령영생송가문학이 탐구한 시적일반화의 이러한 방식은 령도자에 대한 흠모와 그리움, 우리 군대와 인민이 간직한 영생의 념원을 더 높이 양양시키며 서정적형상의 철학적심오성을 힘있게 담보해준다.

이 강산 밝히는 해빛처럼 누리에 찬란한 위대한 장군님의 그 미소, 한평생 인민을 위해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장군님의 어버이사랑은 무궁토록 빛을 뿌리고 정의와 진리의 앞길 밝히며 끊임없이 걸으시며 조국위해 쌓으신 그 업적은 **김일성, 김정일**조선과 더불어 후손만대 길이 빛날 것이니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시며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며 영생하시는것이다.

수령영생가요의 이러한 시적일반화의 힘은 선물형상에 의하여 더욱 격양된 시대감정으로 강하게 분출하고있다.

가요는 송가적양상에 맞는 훌륭한 선물로 하여 위인의 영생을 확고한 신념과 녀으로 간직한 만민

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가요는 우리의 천만군민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의 가장 절절한 념원인 위대한 장군님의 영생을 바라는 그 뜨거운 심정을 노래의 결속구에서 폭넓고 숭엄한 감정으로 형상하고있다.

가요에서는 결속구에 가요의 중심사상을 집중적으로 담음으로써 가요의 주제사상적내용의 통일성을 보장하고있으며 이미 제시된 시적사상을 하나의 중심사상에 집중시키고있다.

선군태양영생송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충정을 친근하고 경진한 감정이 차고넘치는 생동하고 우아한 선물로 노래하고있다.

태양의 위업은 태양에 의해서만이 계승되고 완성될수 있다.

오늘 **김일성**민족의 진두에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로 이끌어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는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갈것이다.

샘터에 피어난 웃음꽃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천만군민이 뜨거운 그리움을 안고 돌이켜보는 위대한 장군님의 끊임없는 현지도의 길에는 그이께서 적절한 유모아로 일군들과 인민들의 긴장해진 마음도 순간에 풀어주시며 혈연적紐대를 더욱 두터이하시고 웃음속에 자기의 잘못도 깨닫게 하여주시는 감동적인 일화들이 수많은 수놓아져있다.

주체88(1999)년 8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다면 산촌의 한 양어장을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바둑판같이 펼쳐진 양어못들을 돌아보시며 물고기를 기르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치시던 그이께서는 양어장 맨 웃쪽에 있는 샘터에 이르시여 걸음을 멈추시었다.

드넓은 양어장에 가득찬 물은 바로 이 샘터에서 흘러내리는것이였다. 커다란 샘터의 깊은 바닥 여기저기에서 티없이 맑은 물이 모래알들을 일렁이며 솟구쳐오르는 모습은 볼수록 이채로왔다.

정겨운 눈길로 샘터를 부감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 한 일군이 이곳에 깃든 전설을 말씀드리었다.

옛날 이 샘터의 물이 하도 정가롭고 수림이 우거진 주변경치가 하도 좋아 하늘의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곤 하였는데 그때 선녀들이 내려던 산봉우리가 오늘도 선녀봉으로 불리우고있다는것이였다.

수행일군들은 모두 흥미있는 그 전설에 귀를 기울이고있었지만 양어장의 일군들만은 몸돌바를 몰라하였다.

그들의 모습을 띄여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환하게 미소를 지으시며 그런데 지금은 선녀들이 내려와도 몸을 숨기고 옷을 벗을수 있는 숲이 변변한것 없으니 야단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손시늉을 섞어가며 하시는 그이의 유모아에 일군들은 일시에 함박웃음을 터뜨리였다.

양어장주변을 수림화하지 못하여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있던 양어장일군들도 저도 모르게 소리내어 따라웃었다. 눈곱이 저절로 뜨거워울

랐다. 가슴이 몽클해진 양어장의 책임일군은 자신을 다잡으며 물기어린 목소리로 힘차게 말씀올리였다.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무를 많이 심겠습니다.》

또다시 명랑한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전설이 깃든 샘터에 활짝 피어난 웃음꽃!

유모아는 엄엄하고 딱딱하게 흐를수 있는 분위기도 순간에 유쾌하고 즐거운 방향으로 돌려세우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있다. 웃음과 유모아는 그 뜻을 감수할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이나 어떤 연설보다 더 강한 감화력을 나타낸다. 인생과 사회현상에 대한 깊은 통찰력, 누구도 따를수 없는 해박한 지식, 능란한 순간포착능력, 호방하고 자유분방한 성격, 감성적이고 열정적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불줄 알고 움직일줄 아는 예술가적기질을 지닌 위인만이 이러한 유모아를 정치에 능숙히 활용할수 있는것이다.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모아에 끝없이 매혹된 일군들은 열화와 같은 격정을 안고 그이를 우려했다.

지난날 울창하던 수림이 일제의 략탈과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커다란 피해를 받은데다 그후 뜻밖의 자연재해까지 겹쳐 벌거숭이가 되다싶이하였다. 그래서 여러해째 나무를 심고있었지만 아직 수림이 우거지지 못했었다.

양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그것이 마음에 걸려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있었다.

양어장일군들의 얼굴표정에서 그 모든것을 헤아려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한마디 유모아로 그들의 마디진 심정을 순간에 풀어주시고 신심과 락관, 용기를 가슴벅차도록 안겨주신것이다.

오늘 풍치수려해진 양어장은 우리 장군님의 유모아가 얼마나 눈부신 현실을 펼쳐놓았는가를 웅변으로 보여주면서 선군시대에 새로 생긴 이 전설적 이야기를 감동깊게 전하고있다.

봄날의 이야기

홍 철 진

3월의 밤은 바닥없이 깊어만 가고

집무실창가에는

어느덧 새벽이슬 돋았는데

한치밖 그 어둠도

천리만리에 있는듯

원수님은 지금

끝없는 사색의 령 오르고오르신다

어느새 쌓였는가

문건우에 또 문건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적정

우리의 자주적핵퇴성에 놀란 호전광무리들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우리를 겨냥하여

침략의 칼 빼들었거니

새싹이 움트는 이 봄날에

도발자들이 몰아오는 전쟁

우리엔 조국통일대전의 절호의 기회

침략자들에게 비참한 참패를 안길

정의의 총대 복수의 총대들이

멸적의 분과 초를 세이고있다

이제 원썬들이

조금이라도 움쩍만 하면

폭풍처럼 하달될 최고사령관명령

작전대의 붉은 화살표들이

오만한 침략무력을 겨냥하여

더 굵고 진하게 그어지리라

허나

그이께서 손에 드신것은

산골마을 한 세포비서에 대한 소행자료

대오에서 떨어질번 한 사람들을 다 안아

우리 당 두리에 더 가까이 세워주고

오늘은 그들이 진정한 땅의 주인이 되어

농장의 혁신자로 자랐다는 이야기

원수님께선 기쁨속에 그려보시여라

세상에서 제일 먼

마음속 길을 찾아

신발창이 닳도록

세포비서 그가 걸은

밤길을 새벽길을

또 확신하신다

그래서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의 사회주의가 굳건함을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지구도 결코 무겁지 않음을

남쪽땅 저 멀리서는

이발을 드러낸

승냥이무리들이 으르렁대는데

이름없는 산골마을 세포비서

이 한명의 위력으로도 족하신듯

그이께서는 호탕한 웃음으로

원썬들의 머리우에

불을 지르신다

철추를 내리신다

간밤의 피로를 밀어내시며

원수님께선 창문을 여시여라

아직도 밖은 어둠속에 졸고있는데

이 세상 가장 밝은 불빛은

저 멀리 검은구름 훑날려버리며

인간의 아름다운 봄이 움트는

산골마을 찾아서

새날보다 먼저 달리고있어라

그날의 그 순간이 흐르고있다

김 성 욱

날이 갈수록

가슴속에 더욱 뜨거워선가

대회장에 넘치던 그 걱정과 그 환희를 안고

오늘도 그대들은 그날의 그 순간에 산다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

그 뜻깊은 주석단에 계시는 원수님 우러러

발돋움하며 만세의 환호를 터치던

우리 당의 세포비서들

천만심장을 올리던

그이의 자애로운 음성

우리 당의 불멸의 대강을 구절구절 새겨안던

그날의 그 순간이

이 땅의 날과 달로 흐르고있다

대회장에 넘치던

그 믿음 그 사랑

쇠물끓는 용해장과

발파소리 높은 수천척지하막장에

최첨단돌파전의 전투장들과

협동농장 드넓은 포전들에

다함없는 충정의 열풍으로 흐르고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어느 세포비서는 기대앞에서 기름결레를 쥐고

어느 세포비서는 거름질통을 지고

사람들과 따뜻이 이야기를 나누며

원수님의 사상과 뜻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새겨가고있나니

미더워라 자랑스러워라

우리 당의 훌륭한 동지가 되고

우리 혁명의 척후병이 되어

당정책관철을 위한 길에

자기를 깡그리 바쳐가는

세포비서들의 그 정신 그 마음

그 마음

일심단결의 화원에 향기가 되고

그 정신

혼연일체의 대오에

수령결사옹위의 맥박으로 뿜인다

강성국가건설로 들끓는 일터마다에

김정일애국주의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간다

당중앙과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주며

생명의 젖줄기같이 정이 어린

어머니의 목소리를 온 나라에 울려가는 당세포

비서들

그래서여라 그대들

때로 밤잠도 잊고

험한 길도 앞장서 헤쳐가는것은

언제나 성실하고 소박한

참다운 그 모습에서

인민들은 바라본다

백화만발하는 사회주의대화에

깊이 내린 억센 뿌리를

주체의 당기를 높이 날리며

당과 혁명앞에 지닌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하신

원수님의 크나큰 그 사랑 그 믿음은

그대들의 가슴가슴에 뜨겁게 불타오르거니

오, 우리 혁명의 최고사령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한자리에 높이 모셨던

력사의 그 순간을

그대들은 안고산다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그 순간을 로동당의 세월로 이어가리라

위대한 어머니당에 드리는 다함없는 칭송의 송가

—가사 《그대는 어머니》에 대하여—

김 정 평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밝은 앞날에 대한 신심드높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장엄한 진군에 힘차게 떨쳐나선 선군조선의 하늘가에 우리 천만군민의 불타는 마음을 그대로 담은 가요 《그대는 어머니》가 울려 퍼진다.

가요는 오늘의 시대정신과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철학적깊이가 있게 훌륭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커다란 사상정서적감화력과 견인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틀어잡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은 시대의 기본흐름과 인민대중의 정서적지향을 반영한 감정이다.》

김일성민족의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변이다.

사랑과 믿음으로 넘치는 진정한 어머니당의 품속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모두는 선군조선의 양양한 전도와 민족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하는 대경사를 맞이하면서 정녕 조선로동당의 품은 우리모두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당의 품임을 다시금 뜨겁게 절감하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기쁨 때나 괴로울 때나 한목소리로 어머니의 그 품을 정답게 찾으며 소리높이 노래하는것이며 일편단심 변함없이 당을 믿고 따르는 마음이 융암처럼 끓고있는것이다.

가사는 이 시대의 흐름, 시대의 주도적감정을 옹계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천만군민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생명력을 지니고있다.

가사는 조선로동당은 어머니당이라는 사상정서적주장을 깊이있게 해명하는데 형상의 모를 박고 우리 삶과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주며 미래까지도 다 맡아안아주는 당에 대하여 우리모두가 체험한 생활감정을 진실한 형상속에서 뜨겁게 받아안게 하고있다.

이 가사에서 노래된 어머니당에 대한 의미는 새로운 주체100년대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시기에 **김일성**민족의 마음속에 끓어넘치는 격정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품속에서 사랑과 행복을 받아안은 나날에 신념으로 굳건한 시대의 주도적감정인것으로 하여 새로운 철학적의미를 담고있다.

이 나라의 아들딸들 품에 안고 보살피며
어머니의 천만사랑 다해가는 당이여
그대의 크나큰 심장속엔 사랑의 새힘이 샘솟네
그대는 그대는 어머니 우리 삶을 빛내준 어머니

우리 행복 꽃피우려 세상풍파 다 이기며
어머니의 끝없는 힘 펼쳐가는 당이여
그대의 영명한 그 손길은 강성한 오늘을 펼쳤네
그대는 그대는 어머니 우리 운명 지키는 어머니

용감하고 슬기로운 인민들을 키워내는
어머니의 그 이름은 조선로동당
그대는 향도의 천만리에 승리와 영광을 새기네
그대는 그대는 어머니 우리 미래 다 맡은 어머니

가사의 구절구절을 되새겨볼수록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오신 대원수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이 뜨겁게 안겨오고 그 위대한 존함으로 빛나는 당의 품속에 사는 크나큰 긍지와 영광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어머니 우리 당!

어머니당이라는 이 신성한 부름에는 자기의 삶을 지켜주고 미래를 꽃피워주는 운명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과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순결한 마음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머니당의 품을 참된 삶의 요람으로 귀중히 여기고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남먼저 안기며 우리 당을 따라 고난과 시련의 천만리길을 주저없이 웃으며 헤쳐왔다.

일찌기 자기를 지킬 힘이 없었던탓에 비참하게 살아온 인민을 자주의 궤도우에 올려세우시고 창조의 힘으로 운명개척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가도록 하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이 창건하고 이끄시는 조선로동당만이 실현할수 있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

바로 이 세상 그 어느 당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라는 우리 당의 본질적 특성을 형상의 기본으로 설정하고 그에 대한 깊이 있는 해명으로 당의 위대성을 폭넓게 일반화한 여기에 가사의 철학성이 있고 높은 사상예술적성과가 있는것이다.

가사에서는 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는 길에서 나라와 민족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수호하고 인간의 참된 존엄과 삶을 빛내준 위대한 당에 대한 칭송의 사상감정이 격조높이 토로되고있다.

우리 인민에게는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없는 위대한 품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마음속 아픔을 다 헤아려주며 세심한 손길로 각별히 보살펴주는 그 품, 사람들의 천만가지 소원과 생각도 다 헤아려주고 그것을 꽃피워주는 그 품, 자그마한 재능의 싹도 소중히 여기고 희망의 나래를 활짝 펼쳐주는 위대한 품...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오늘의 행복과 래일의 미래까지도 다 보살펴주는 이 위대한 품을 숭엄히 우러르는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걱정의 목소리가 울려나온다.

《어머니의 천만사랑 다해가는 당》, 《어머니의 끝없는 힘 펼쳐가는 당》.

얼마나 친근하고 다정한 부름인가.

언제나 살뜰하고 정다운 우리 당을 위대한 어머니라고밖에 더 달리는 부를수 없는것이 온 나라 천만군민의 뜨거운 마음이다.

하나의 기쁨을 주고나면 열가지, 백가지 기쁨을 또 주고싶고 어려울 때면 자식의 얼굴에 웃음을 피워주려 더욱더 사려깊은 마음을 쓰며 그것을 인생의 행복으로 여기는 어머니.

이런 위대한 어머니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인민으로 된 우리 인민은 크나큰 걱정 에 넘쳐 당의 품을 어머니품이라고 뜨겁게 노래하고있는것이 아닌가.

인민을 따뜻이 안아주는 위대한 당의 품이 있어 이 땅우에는 사랑과 의리의 세계가 펼쳐지고 인간 사랑의 전설들이 무수히 태어나고있다.

허리띠를 조이고 뽀전을 쪼개써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두팔벌려 이 나라 녀성들을 품어준 평양산원의 큰 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의 아이들을 찾아 변함없이 달리고달리는 콩우유차의 힘있는 경적소리, 변함없이 실시되는 무상치료제와 무료의무교육제도의 혜택들, 새롭게 꾸려진 명승지들과 현대적인 문화휴식터들에 울리는 인민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그것은 정녕 위대한 어머니당의 품에 안긴 복반은 인민만이 누릴수 있는 행복인것이다.

하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심장의 목소리를 합쳐 우리 당을 《우리 삶을 빛내준 어머니》, 《우리 운명 지키는 어머니》, 《우리 미래 다 맡은 어머니》라고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이렇듯 가사에는 고귀하고 신성한 모든것을 다 안겨주는 고마운 당에 대하여 느끼는 우리 인민의 고상하고 숭엄한 세계가 친근한 생활감정 그대로 진실하게 표현되어있다.

가사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민위천의 리념을 그대로 지니신 또 한분의 어버이를 모시여 조선로동당은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위대한 어머니당으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라는 굳은 확신과 절대적인 믿음을 웅심깊게 보여주고있다.

《그대는 향도의 천만리에 승리와 영광을 새기네》, 이 구절을 읊어볼수록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가장 숭고한 인간사랑의 세계를 펼쳐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모습이 뜨겁게 안겨온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나라의 첫 실용위성인 《파명성-3》호 2호기발사를 완전성공시킨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주신 그 모습에서, 한몸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서남전선의 최대열점지역 섬방어대초소를 찾으시여 돌도 못된

9분 27초가 지난 뒤

한 광 춘

진동하는 대지
퇴성이 진감하는 하늘
불줄기를 내어뿜는 거대한 동체가
광막한 우주에 솟구쳐올라
한초 또 한초
9분 27초가 지난 뒤

순간
행성엔 고요
그런 고요가 몇번이나 있었던가
천길 지심깊이에서
거세찬 힘이 모이고 분출하여
새 대륙이 생겨나던 때와 같이
오, 그것은
대지각변동을 앞에 둔 행성의 고요

하늘 먼곳에서부터

고요는 흔들렸다
우주의 궤도에 진입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지구를 향해 아낌없는 미소를 보낼 때
조선!
세계가 그 이름을 부르며
지도에서 그 모습을 다시 찾았다

달라지지 않은 그 위치
예전 그대로의
변함없는 그곳에 조선은 있었다
허나 세계는 보았나니
자주의 궤도를 따라
이 행성을 이끄는 거인의 모습을
주체조선을 중심으로
다시 생겨난 지구를 보았다!

아기를 한품에 꼭 껴안고 오래동안 다독여주신 숭
엄한 모습에서 우리 당이 새겨온 위대한 조국수호
의 역사를 보았다.

통라인민유원지를 비롯한 인민의 문화정서생활
기지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현대적으로 꾸려주시려
온갖 로고를 바쳐오신 그 모습에서, 소년단원들과
전쟁로병들, 청년들의 경축행사도 마련해주시고 창
전거리살림집에서 사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가정을
찾으시어 친부모도 따르지 못할 사랑과 은정을 배
풀어주신 자애로운 모습에서 우리 당이 걸어온 인
민사랑의 역사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그리고 굳게 확신했다.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
시어 조선로동당은 어제든 오늘도 그리고 매일도
영원히 친근하고 다정한 어머니의 그 이름으로 빛
을 뿌리리라는것을...

가사 《그대는 어머니》는 이렇게 조선로동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 당에 자
기 운명과 미래를 맡기고사는 우리모두의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있는 시대의 찬가이다.

가사는 작품의 주제사상적요구에 맞게 매 절마

다에 뚜렷한 형상과제를 설정하고 해명하면서 집약
적이면서도 논리성있게 전개함으로써 서정구조에서
의 정연한 짜임새를 보장하였다.

또한 어머니당에 대한 믿음의 철학을 그 어떤 파
장이나 꾸밈을 모르는 평범하고 진실한 화폭으로
안반침해주고있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고있다.

언어형상에서도 가사의 형상적효과를 최대로 높
일수 있는 시어들을 골라 반복과 대구, 함축 등의
수법으로 맞물려놓음으로써 당에 대한 칭송의 감정
을 더욱 강조해주고있다.

이 땅에 자기의 탄생을 선포한 때로부터 오직 인
민만을 위해 모진 고난과 시련을 웃음으로 맞받아
나간 어머니 우리 당 조선로동당!

오늘은 또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어
머니 우리 당 조선로동당을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여주시려 인민사랑의 그 길을
이어가신다.

가요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조선로동
당의 령도따라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
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
기 위한 진군길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힘찬 투쟁
을 적극 고무할것이다.



오 광 천

1

봄날의 푸근한 아침날씨이다.

한밤의 어스름을 밀어내며 흘러온 젖빛안개가 해
토무렵의 넓은 벌을 부드럽게 쓸어만지고 양지바른
언덕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농촌살림집들에서는 이
른아침 칼도마소리에 놀란 게으른 수탉들이 저마끔
때늦은 청을 울려댄다. 이를 비웃듯 황소들 또한
방울을 절랑이며 들판의 영각소리를 길게 뽑는다.

《움머-》

사람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하여주는 벌방특유의
새벽정취이다.

동이 트는 이무렵이면 방경모관리위원장은 서둘
지 않는 걸음으로 작업반들을 돌아보면서 농사정형
과 농장원들의 살림형편 등을 료해하고 하루사업계
획을 무르익히곤 했다.

흙갈이깊이는 제대로 보장했는지, 논물을 규정
대로 댔는지, 사과나무에 벌레가 끼지 않게 약도
쳐야겠구... 저 1반장은 농사에만 열성이지 집일엔
영 게으르단 말이야. 굴뚝에 연기 한점 없는걸 보
지. 오늘 수리분조사람을 보내서 구들수리를 해주
게 해야겠군....

이때면 언제나 두툼한 작업일지가 관리위원장의
겨드랑이에 영낙없이 끼여있곤 했는데 그것을 펼쳐
본 사람들치고 놀라지 않는이가 없었다. 사업계획
이나 영농과정, 작업정형은 물론이요 기상예보로부
터 시작하여 시간별날씨측정자료, 농작물의 생애변
화며 가족들의 이상현상, 지어는 농장원들이 앓고
난 병세까지도 꼬박꼬박 적혀지는데 사람들은 이
를 두고 《영농백과사전》, 《농장의 역사기록장》
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작업일지대신 종이말이가 손
에 들리워져있는데 어째선지 여유있던 그의 걸음걸
이에 초조감이 느껴졌다.

달라진것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앞에 펼쳐진 벌
처럼 넓은 이마밑에서 땅처럼 푸수하고 너그러우
면서도 항상 열정적이던 그의 눈가에도 번민의 빛
이 어리어돌았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어제까지만도 개천-태성
호물길설계를 맡은 아들의 자랑으로 온종일 흐뭇한
인상을 해가지고 일을 보던 그가 아닌가.

하긴 자랑스러울만도 한 일이었다. 그의 아들 성
태가 대학을 졸업하고서 관개건설설계사업소에 설
계원으로 배치받은것은 3년전의 일이었다. 그런 그
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기하시고 깊은 관심을 돌
려주시는 개천-태성호물길 부분설계를 맡은것만
해도 파분한 일인데 증지구 물길설계에서 표준락
차고를 보장할 방도를 찾아서 총설계완성의 돌파
구를 열었다니 자랑자랑 해도 이런 자랑을 어디에
비기겠는가.

《여보게, 자네 다른건 몰라도 아들 하나만은 잘
두었어. 온 사업소가 성태에 대한 칭찬으로 법석한
다네. 이제 당에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됐어. 자, 애
가 그동안 수천여리구간을 편담하며 설계를 완성하
느라 무리하였는데 총설계심의가 있을 때까지 한
이틀 잘 보양시키게나.》

물길건설을 책임진 농업성 국장 강청길이가 승용
차에 아들을 태우고와서 한 말이었다.

어찌 설계사업소뿐이라. 성태가 태를 묻고 자
라난 이 원암땅은 물론이요 자연물길의 혜택을 입
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성태에게 축하를 보내
주었다.

그런데 바로 아들의 그런 《자랑찬 창조물》이 경모에게 번민을 불러올줄이야....

옛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즐거운 마음으로 아들이 펼쳐준 증지구설계도에서 원암리물길구간을 찾아보던 경모의 성긴 눈섭이 쫓깃해졌다. 시종 자식에 대한 대견함만이 일렁이던 눈가에 의문이 실리었다.

《물길을 왜 이렇게 그었느냐? 그러면 술한 논밭을 잃게 되겠는데...》

《참, 아버지도... 수백여리의 자연물길을 내는 거창한 대자연공사인데 땅 십여정보가 대수겠나요. 물길이 완성되어 얻는 막대한 리득에 비하면 새밭의 피입니다.》

아들의 혼연스런 대꾸에 경모는 정신이 뻗해졌다. 십여정보의 땅이 새밭의 피라니? 정녕 농사꾼 자식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 옳긴 옳은가?

자연물길건설도 이 땅에서 농사를 잘 짓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가만, 혹시 이 촌놈은이의 생각이 너무 협소한것은 아닌지. 아들의 말대로 한다면 통나무를 켜는데 톱밥이 날리는건 당연한 일이라는건데...

하지만 경모에게 있어서 십여정보의 땅을 잃는다는것은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것과 같은 아니, 심장을 후벼내는것이나 같은 도저히 묵새길수가 없는 일이었다.

《내 생각같아서는... 물길도 내고 땅도 보존하면야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저도 땅을 아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압니다. 그래서 물길의 경지면적침범을 막으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물이 이 원암땅을 날아서 넘어갈수야 없는노릇이 아닙니까.》

경모는 더 다른 말을 못했다. 아들의 소리는 틀린데가 하나도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래, 물길이 완성되어 생기는 리득에 비하면야...)

리성은 그의 머리속에 대고 이렇게 말하고있었다. 그러나 쥐여뜯고 후비며 비트는것 같은 가슴속 피로움은 밤이 깊어 잠을 청하려 노력할수록 더해만 갔다. 파릇파릇 새싹이 돌아오르다가는 푸르러 설레이고 다음엔 황금나락이 일렁이는 벌이 그의 눈앞으로 다가오다가는 멀어지고 또 다가오다가는 푹 꺼져버리곤 했다.

아, 땅!

불쑥 그의 뇌리에 해방전 아버지의 눈물겨운 이야기가 떠올랐다.

...《네놈이나 비행장 닦는데 방해를 논단 말이지. 다시 물겠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이야?》

《내 땅이요.》

《뭐야?...》

이미 피가 질벽해진 얼굴을 향하여 날아가는 주먹들, 비틀거리는 사나이... 주걱턱에 붓초리같은 턱수염을 기른 순사놈이 씨벌었다.

《이 자식, 내 똑똑히 말해주지. 이 땅은 천 황폐하의 신성한 령지다. 네놈들의 땅이란 없다.》

《아니요. 이 땅은 내 땅, 조선사람의 땅이란 말이요.》

《나쁜 놈, 이놈이나 입이 살았다. 아가리를 찢어놓을테다.》

시꺼먼 칼집이 그의 입술을 짓눌렀다.

《한번 더 물겠다. 누구의 땅이야?...》

《내 땅이요.》

《개자식, 죽어봐라.》

칼집을 휘둘러 내리치니 사나이가 땅우에 쓰러졌다.

《이놈들아, 땅없는 농민이 살아선 무엇하겠느냐. 죽여라, 죽여...》

아, 땅에 흐르는 더운 피, 쓰러지면서도 그러한은 이 땅이여...

경모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땅을 잃고 하늘을 향해 터치던 아버지의 절규가 그의 가슴을 쿵 쿵 울려주었다.

(그래, 이 땅이 어떤 땅이라고, 안될 소리지.)

경모는 앉은책상에 다가가 농장의 평면도를 펼쳐들었다. 높고낮은 등고선을 밟아나가던 그의 눈길이 어느 한곳에 가서 멎었다. 파아란 선으로 표시된 물길은 원암리지경을 넘어 곧장 흐르다가 파수반언덕앞에서 굽이돌아서 논밭을 꺾질렀다. 그래서 십여정보의 토지가 없어지게 되는것이다. 문득 물길이 이 원암땅을 날아서 넘을수야 없지 않느냐던 아들의 말이 떠올랐다.

(물이 하늘로 날아갈수는 없어도 파수반밑으로 굴을 뚫으면야...)

갑자기 경모는 책상을 탕 쳤다.

《찾았다, 찾았어. 그럼, 물이야 높은데서 낮은데로 흐르기마련이지. 꼭 논밭으로 흘러야 말인가.》

밤새껏 뒤치락이는 령감덕에 선잠을 자던 안해가 흠칫 놀라서 일어났다.

《령감, 실성하지 않았소?》

《로친, 땅을 다시 찾았소.》

《그건 무슨 생똥같은 소리요?》

《하긴 알수가 없지. 성태를 찾아야겠군.》

경모는 아들이 있는 옷방의 미닫이문을 열어제꼈다. 성태는 물길설계도를 그러안고서 웃음을 지은채 푹아떨어져있었다. 잠결에서도 희열의 세계

이다. 안해가 령감의 어깨너머로 아들을 건너보며 말했다.

《당신도 흥분하였는데 애야 더하지요. 늦어서 잠들었어요.》

경모는 자기가 기빠서 잠을 못 이루던것으로 생각하는 안해를 시답지 않게 바라보았다.

(이렇게 생각이 단순하다고야... 하긴 탁아소보육원이야 항상 꽃봉오리 생각이지.)

경모는 옷걸이에서 덧옷을 내리어 걸치었다. 벌써 동창이 희웁스름하게 물들고있었다.

《여보, 토론할 문제가 있으니 애가 깨나거든 파수반으로 보내주오.》

《아니, 토론할것이 있으면 집에서 하지 이 추운 때 파수반으로 불러낼건 또 뭐요?》

...바로 오늘 새벽엔 이렇게 되어 나선 걸음인지라 경모의 심기는 무척하였다. 그러니 언제 걸음걸이나 마음에 여유가 있을수 있겠는가. 그의 머리속엔 오직 물길, 굴길 두 단어만 댘돌뿐이었다.

파수반언덕에 오른 경모는 농장평면도를 다시 펼쳐놓고서 구체적으로 타산해보았다. 결과 백여메터의 굴만 뚫으면 논밭면적을 하나도 침범하지 않을수 있다는 신심이 생기었다.

(그래, 이제는 땅을 잃지 않을수 있어.)

경모는 환성을 올리면서 동구길에 눈길을 주었다. 이제는 물길의 설계자인 아들과 의견을 같이하기만 하면 되었다.

(애가 아직도 잠을 자는가? 현지에서 토의하는것이 더 좋겠는데... 아, 해가 동산에 올랐는데 로친이 좀 깨워서 보낼것이지.)

경모는 하는수없이 평면도를 감아쥐고서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아들은 집에 없었다. 안해가 하는 말이 강청길이가 새벽들이로 와서는 데리고갔다는것이였다.

《무슨 일이 있도오?》

《뭐 설계에 대한 최종심의가 앞당겨졌다나봐요.》

《아뿔싸, 한발 늦었군.》

경모는 이마를 치며 문전에서 돌아섰다.

《어딜 가요?》

《성태를 찾아가야지.》

《아니, 승용차를 타고간 애를 어떻게 따라간다고... 지금쯤이면 군에 다 도착했겠수다.》

《그럼 군에라도 가야지.》

《헛참, 가더라도 아침식사가야 하고 가야지요.》

경모는 안해의 말을 귀등으로 흘리며 길에 나섰다.

경모가 군경영위원회 마당에 들어서는데 마침 청길이가 청사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허, 가만있자니 속이 썩신게지. 하긴 오늘이야 성태에게 있어서 운명적인 날이라 할수 있지.》

청길이가 경모를 띄여보고서 웃으며 하는 말이였다.

《난 그래서 온것이 아니라... 저, 국장동무, 최종심의를 취소해주오.》

청길이가 눈살을 찌푸렸다.

《건 무슨 낫도깨비같은 소리요. 아, 저렇게 심의일꾼들이 가득 내려왔는데...》

청길이가 마당 한옆에 줄지어있는 승용차들을 눈짓하며 말했다. 경모는 그 차들을 일별해보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도 성태가 한대로는 안되오. 우리 원암리 설계만이라도 좀 미룰수 없겠나?》

《헛참, 미룰게 따로 있지... 그런데 무엇때문에 그러나?》

경모는 청길을 마당 한쪽에 있는 휴식터에 데리고가서는 의자우에 평면도를 펼쳐놓았다.

《...이렇게 파수반언덕에 굴을 뚫으면 토지를 하나도 침범하지 않고 물길을 낼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성태너석은 이걸 놓쳤거던.》

경모는 말을 마치며 청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자기의 의견을 진중하게 들어줄줄 알았던 청길이가 생각밖에도 시답지 않은 표정을 지은채 입을 다시는것이였다.

《자네 이것때문에 온몸이 땀주머니가 되어서 예까지 뛰어왔나? 참... 성태도 그걸 생각해보지 않은것이 아니야. 물론 자네 말처럼 물길도 내고 땅도 보존하면야 좋은줄을 왜 모르겠나. 하지만 생각해보게. 그 백수십여메터의 굴을 뚫는데 드는 로력과 자재비용이 간단한줄 아나. 거 땅 몇정보가 뭐라구...》

경모는 아연해졌다. 어쩌면 한생을 땅과 운명을 같이해온다는 사람의 입에서도 아들과 똑같은 목소리가 울려나오는가. 그래 땅 몇정보가 그렇게도 하찮아보인단 말인가.

경모는 가슴속에서 부걱부걱 솟아오르는 분기를 애써 누르며 말했다.

《땅은 한당대만 필요하거나 또 요구한다고 해서 생기는 그런 물건이 아니지. 물론 지금은 힘도 들고 비용도 많이 들겠지. 하지만 땅만 살리면 공사에 든 비용을 몇년안팎에 보충할걸세. 좋네. 자

네가 못하겠다면 내라도 제기하겠네.》

청길의 미간에 주름이 모아졌다. 속상한 감정의 표현같기도 하고 어찌보면 파분한 표정같기도 한...

청길은 그 자세에서 한동안 경모를 지그시 여겨 보다가 푸념조로 말했다.

《경모, 자연흐름식물길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배운것처럼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단순한 리치로 설계하지만 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술공정과 함께 넓은 사유를 요구하지. 생각해보게. 대각언제로부터 태성호까지는 락차고가 겨우 수십메터야. 그 수십메터의 락차고를 가지고 수십만정보의 땅을 적서야 할 수백여리의 물길을 내야 하는데 그게 간단한 설계인가. 남들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지. 그런데 우린 해냈어. 성태만 보더라도 엄동설한에 고생을 하며 이악하게 노력한 결과 경사가 급한 원암지구에서 표준락차고를 보장할 방도를 찾아서 설계의 돌파구를 열었거던. 그런데 자네 말처럼 굴을 뚫어 물길을 낸다면 성태의 고생과 노력이 수포로 되고마네.》

《음, 그러니 땅을 희생시켜 명예를 얻겠다 그 소리구만?》

《헛참, 무슨 말을 그렇게 야멸차게... 여보게, 내 말 좀 들어보게...》

이럴 때 어떤 처녀가 청길을 찾았다.

《국장동지, 협의회를 시작하갑시다.》

《알았소. 내 인차 가지.》

청길은 경모에게 미소가 비낀 눈길을 돌렸다.

《내 자네에겐 후에 알려주자고 했는데 이번 설계만 통과되면 성태에겐 좋은 일이 생길거야. 아마 설계사업소기사의장의 직무를 맡게 될거네. 그러니 아들의 전도를 막는 그런 일은 그만두게. 성태야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안고 태어난 애가 아닌가. 그러니 누구보다 훌륭히 내세워야지.》

청길은 경모의 어깨를 툭 치고서는 청사에 들어갔다. 경모는 멍한 자세에서 청길이 사라진 정문만 바라보았다. 귀전에서는 방금전에 청길이가 던지고 간 《가장 큰 사랑을 안고 태어난 애》라는 말이 자꾸만 맴돌고있었다.

그렇다. 성태는 너무나도 큰 기대와 사랑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났었다. 이제는 30년전의 이야기...

...중앙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하여 경험토론준비로 여념이 없는 경모에게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의 안해가 임신한 몸으로 도시거름을 실은 소달구지를 몰고 령길을 넘다가 눈사태에 밀려 심하게 다쳤다는 것이었다.

《...심한 물리적타격으로 인한 척추골절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현재 환자의 몸안에 있는 태아를 류산시키지 않으면 부인의 생명도 담보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아이를 없애는것을 완강히 거절합니다.》

얼굴이 퍽퍽하게 질린 경모는 수화구를 통하여 날카로우나 그루를 박아 말하는 도인민병원 기술부원장의 목소리를 전해들었다. 불시에 방안이 빙그르 도는듯 한 현훈증이 몰려왔다. 자신에게 닥친 이 불행이 악몽같이 여겨졌다. 그래 악몽이 아니란 말인가. 방금전까지 궁지로 부풀던 가슴에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행복과 불행의 혼잡, 이런걸 두고 인생의 오묘한 장난이라 하는가.

《기사장동지, 동지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동지만이 환자를 설복할수 있습니다.》

어안이 병병해서 침묵을 지키고있는 경모에게 기술부원장이 절절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고야 경모는 무아몽중에서 해매는 자신의 의식을 붙어잡았다. 현실을 인정하자니 심장이 후두둑 떨려왔다. 그는 마른침을 꿀꺽 삼키고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제 처가 어디 있습니까?... 입원실에... 처와 이야기를 나눌수 있겠습니까?》

잠시후 수화구에서 눈물에 젖고 전혀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안해의 목소리가 울렸다.

《여보세요, 저예요.》

《여보, 내 말을 들소. 의사선생의 말대로 하오. 선흥이, 난 당신만 있으면 되오. 당신만... 꼭 내 말 들소.》

《아니예요. 난... 이제 다시 아이를 가질수 없다는걸 알아요... 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아이를 낳아야 해요.》

안해의 흐느낌소리가 경모의 가슴을 미여지게 했다. 경모는 눈시울이 후터워오고 목이 짹 메여올라 다음말을 잇지 못했다. 경모도 자신의 생을 바쳐서라도 자기 후대의 출생을 지켜주고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럴 때 농업위원회(당시) 한 일군이 그를 불렀다.

《석교리 기사장동무, 동무 차례요. 빨리 대기 하오.》

그 말에 경모는 정신을 번쩍 차렸다.

지금은 가정잡사때문에 신경을 쓸 그런 때가 아니였다. 온 나라앞에서 경험토론을 잘하는것은 당의 믿음이며 또 파업이기도 한것이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경모는 호흡을 길게 하고서는 송화구에 대고 명령조로 말했다.

《선흥이, 부탁이요. 내 말대로 꼭 해주오.》 하고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그다음부터 경모는 자신이 어떻게 토론장에 나섰으며 만장에 요란한 박수갈채가 울렸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토론을 끝내고 휴게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건잡을수 없이 밀려드는 허탈감에 쓰러지고야말았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각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의 가정에 미치고있을줄이야...

《...이에 대하여 보고받으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방경도동무는 수령님께서 아시는 일 잘하는 농업일군이라시며 나이는 젊지만 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성실한 마음을 자신께서도 높이 평가해오셨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자식이 꼭 이 땅에 고고성을 터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러시며 그이께서는 중앙의 이름있는 병원들의 의료진이 합동하여 아기도 받아내고 산모의 몸도 무조건 완치시켜야 한다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그날 당중앙위원회 일군으로부터 장군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경모는 뜨거운 격정에 두볼 적시며 목메어 불렀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되새기며 저도 모르게 움긴 경모의 걸음이 어느덧 군경영위원회를 벗어났다. 정문 앞에서 그는 경영위원회 소회의실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3

경모는 읍거리에 나섰다. 어찌선지 마음이 번거로왔다. 무엇을 잊은듯 한 감정이랄가 아니면 누구와 싸우고난 심정이라 할가...

그의 걸음이 네거리에 멎어섰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발길이 원암리와 반대방향으로 향해졌다. 어디선가 요란한 취주악소리와 함께 울리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경모의 심장을 끌었던것이다.

《...조국보위를 최대의 애국으로 간직하고 이 성스러운 위업에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나갈 불타는 결의를 안고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하는 우리의 미더운 청년들...》

읍중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인민군대입대탄원모임이었다. 청년들이 너도나도 주석단에 뛰어올라가 탄원자명단에 자기의 이름을 써넣고있었다.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의 꽃다발을 흔들어주었다. 그 광경을 목격하느라니 경모의 가슴도 저절로 후터워울랐다.

《다음으로 전쟁로병 **김경선**공화국영웅동지가 축하연설을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발언에 이어 반백의 로병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짓고서 연탁에 나섰다. 앞가슴에 금별메달이 번쩍이는 그의 군복자락에는 가렐했던 전화의 포연이 그대로 스며여있는듯 했다.

《오늘 저는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전사들의 넋을 그대로 계승한 청년들을 대하니 정말 감격도 새로워집니다. ... 전화의 그날 우리 인민군전사들은 무슨 힘을 가지고 싸웠는가. 장군님께서 찾아주신 이 땅을 원수들에게 빼앗기면 또다시 짐승보다 못한 노예살이를 강요당해야 한다, 제땅이 없는 우리의 삶이 무엇에 필요한가. 이런 정신을 지니니 죽음에 두렵지 않았습시다. 바로 그 정신이 원수의 수백만대군을 쳐물리치게 한 힘이였습니다. 1211고지전투때였습니다. ...》

로병아바이의 연설을 듣느라니 경모의 머리에 문득 떠오르는 편지구절이 있었다.

《...여보, 나는 적들의 열세번째 공격을 물리치고 이 편지를 쓰요. 고지엔 십여명의 전투원만이 남아있소. 이제 좀 있으면 천도 넘는 적들이 또 달려들거요. 하지만 우리는 비판하지 않소.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때문이요. 여보, 해방전에 땅이 없어 강요당하여야 했던 피눈물나는 노예살이를 생각해보요. 한짐, 두짐 흙을 날라다 늪을 메워 얻은 땅을 내 땅이라고 했다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비참한 신세를... 그 세월에 땅은 우리에게 모진 가난과 고역, 설움만을 안겨주었지. 하지만 수령님께서 착취받고 압박받던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다음부터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찾아왔소. 땅은 그야말로 삶과 행복의 터전이요. ... 바로 이 고지를 끝까지 사수하는것이 내 땅을 지켜내는것이라는것을 우리는 잘 알고있소. 땅은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자식들의 밝은 미래요. 하기에 목숨보다 귀중한것이 바로 땅이요. 순림이, 땅을 사랑해주요. 장군님 주신 우리의 땅을 잘 가꾸어 하늘같은 그 은혜에 꼭 보답해주요.》

경모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다.

글발은 나날이 희미해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땅의 귀중함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는 편지였다.

경모는 죄를 진 사람처럼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끼었다. 그는 머리를 숙인채 그 자리를 피했다. 어쩐지 피흘려 조국을 지킨 아버지와 로병들앞에 그리고 조국보위를 숭고한 사명으로 간직한 이 청년들앞에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안될 소리.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것이 땅이야.)

경모는 머리를 들고서 경영위원회로 다시 걸음을 옮기었다.

4

경모가 경영위원회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심의가 끝났는지 청사정문으로 사람들이 나오고있었다. 눈치빠른 운전사들이 그들앞에 승용차들을 들이밀었다.

경모는 자기가 좀 늦었음을 자책하며 빠른 걸음을 놓았다. 이제라도 일을 수습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던 그의 발길이 주춤해졌다. 풍채가 좋은 어느 한 일군이 성태의 어깨를 두드려 주며 엄지손가락을 펴보이는것이 눈에 띄었기때문이었다.

홍분에 들뜬듯 벌거우리해진 아들의 얼굴.

그 얼굴을 대하자 웬일인지 경모의 마음이 알찌 근해왔다.

새삼스럽게도 경모의 머리에는 자신이 여기에 어째서 다시 왔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을 하라고...

아들의 저 홍분을 깨어버리자고...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성과를 허물어버리고 전도를 막자고...

그렇다, 경모는 아들의 자랑스러운 공지를 고소하자고 이 자리에 다시 온것이다.

이를 인정하자니 가슴이 뻘근해왔다.

눈앞에서는 놀라움에 굳어진 아들이며 열이 오른 청길이가 그리고 눈물을 머금은 안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경모가 서있는 사이 일군들을 태운 승용차들이 그의 곁을 휙휙 지나쳐갔다.

경모는 배기가스를 뿜으며 사라지는 차들을 멀거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버지를 발견한 성태가 다가왔다.

《아버지, 언제 오셨습니까?》

경모는 얼굴에 침통한 빛을 띠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성태의 눈가에서 억제할수 없는 기쁨이 툭툭 튀기는듯 했다. 경모는 말고랑같은 주름을 이마에 담으며 눈길을 내려깔았다.

《그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심의성원들이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인차 당중앙위원회에 보고드리게 된답니다.》

경모는 흠칫 놀라며 머리를 버쩍 들었다. 그의 불편이 푸들푸들 떨려왔다.

《그러니 본래설계대로 통과되었단 말이지... 그게 그렇게도 기쁘냐?》

《아버지는 기쁘시지 않습니까?》

경모는 한숨을 후 내쉬며 머리를 저었다.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땅을 지켜나가는 길에 청춘을 아낌없이 바치는데 너는...》

성태의 인상이 딱 굳어졌다. 그런 아들을 서늘한 눈길로 바라보던 경모는 발길을 돌렸다. 그의 걸음이 허청이었다.

《아버지!》

아들의 부름에 경모는 잠시 주춤했다. 그러나 다시 걸음을 옮겼다.

아들이든 그 누구이든 자기를 붙어잡으면 이내 마음이 흔들릴것만 같은 생각에서 그는 총총걸음을 놓았다.

(자식은 걸만 만들지 속을 못 만든다더니...)

그는 곧장 군당위원회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5

경모가 리에 도착한것은 종낮이 퍼그나 지나서였다.

관리위원회쪽으로 꺾어드는데 2작업반장이 그를 보고서 마주달려왔다.

《위원장동지를 한참이나 찾아다녔습니다. 3분조에 감자심는 문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나 경모는 멍한 자세에서 응대가 없었다. 2반장은 관리위원장의 행동에 머리를 기웃했다.

한밤새 훌쩍해진 불, 몽유병환자처럼 생기를 잃은 눈빛.

무슨 일이 있었는가. 누가 말하기를 위원장이 아침에 경황없이 읍으로 가더라더니 욕이라도 먹고 돌아왔는가. 그렇다고 저렇게까지야 풀이 죽어있을 수가 있는가.

하긴 그는 알수가 없었다. 땅을 다루는 농민의 랑심을 안고 모대긴 하루밤, 하루낮의 번민을. 그 랑심때문에 외아들의 전도를 외면하게 된 한 아버지의 가슴속 통탄을...

잠시동안 이러고있던 경모는 비로소 현실을 의식하며 반장에게 눈길을 주었다.

《가만, 반장동무, 이자 뭐라고 했던가.》

《3분조논에 감자를 심는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 물었습니다.》

《아침에 작업지령을 받지 못했소? 오늘까지 논 앞그루감자파종준비를 전부 끝내기로 하지 않았소.》

《그렇긴 한데, 거 3분조의 일부 논들에는 물길을 내야 하기때문에 심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경모의 미간에 굵은 주름이 일어섰다. 또 그 소

리다. 물질을 어디로 내는가. 단순한 문제같았지만 거기에는 이 땅의 운명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져있었다. 경모 그자신만 놓고보더라도 땅이나, 아들이나 하는 땅자택일의 심각한 문제가 이제 극게 될 물값을 타고 흐르게 되는것이다.

경모는 근엄한 눈길을 반장에게 주었다.

《반장동무, 농사군은 당장 죽는대도 땅을 빼고 쓰러져야 하는거요.》

《그 말이 바로 제 하자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살점과도 같은게 이 땅인데...》

경모는 반장을 머뭇하니 여겨보다가 허구프게 웃었다.

《허, 살점이라... 아니, 목숨과도 같은거지.》

그는 반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반장은 싱긋 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알았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감자과종준비를 내밀겠습니다.》

반장은 저앞에 반원들이 서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반장의 설명을 들으며 농장원들은 환성을 올린다. 그리고선 어인 일인지 경모에게 꾸벅꾸벅 인사들을 하고는 거름을 실은 트랙토르를 앞세우고 논으로 향하는것이였다. 경모의 가슴이 후터워 올랐다.

(그때, 땅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이 우리 농민들이지.)

경모는 저도 모르게 격동되어오르는 마음을 느끼며 팔소매를 척척 걷어붙이였다. 농장원들과 휩쓸려 허리가 늘씬하도록 땀을 흘리면서 온갖 시름을 털어버리고싶은 충동에서였다.

이때였다. 승용차 한대가 앞에 와서 멈춰섰다.

내리는 사람을 보니 강청길이었다. 그는 이치러진 인상을 하고서 대뜸 큰소리부터 쳤다.

《내 방금 군당책임비서동물 만나고 오는 길인데. 자네 나살을 건사하더니 망녕이 든게 아닌가? 아들은 몇달동안 고생을 하며 설계를 완성하니 아버지네는 그걸 부정해나서?...》

경모는 묵묵한 자세에서 불씨가 튀기는듯 한 청길의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가에는 이름 못할 피로움이 실리어 뿌잇하게 흐려졌다.

그런 경모의 인상을 보고 측은함을 느끼였는지 청길은 좀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자네 심정이 리해는 돼. 하지만 우리야 하많은 인생풍파를 겪어온 사람들이 아닌가. 개인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사고를 넓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고 강성국가건설의 길에 들어섰지만 나라의 경제사정은 의연히 어려워. 고난의 흔적을 가시자면 힘을 집중해서 투자를 해야 할데가 많지. 하지만 당에서는 물에 대한 우리 농민들

의 세기적숙망을 완전히 풀어주기 위해서 대자연 흐름식물길건설이라는 방대한 공사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웠다네. 이런 조건에서 국가의 자금을 적게 쓰면서도 공사기일을 최대한 앞당기는데서 방도를 찾는것이 나라를 위하는 립장이 아니겠나. 그런데 자네 말대로 굴을 뚫어 물길을 낸다면 여기 원암리구간만이 아니라 월계리에서도 백여메터의 굴을 뚫어야 하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이 간단 한줄 아나.그리고 당앞에 결의한 공사기일은 어떻게 보장하구.

여보게 경모, 부탁이네.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땅 몇정보때문에 일을 복잡하게 몰아가지 말아주게.》

경모는 처음 대하는 사람처럼 청길을 뚫어지게 여겨보았다.

《자네 호미자루를 놓은지가 십여년 잘 되었지. 하긴 흙냄새가 빠질만도 하지.》

《그건 무슨 생똥같은 소리인가.》

청길은 팔살을 찌프리며 눈을 흘겼다.

《내가 뭐 틀리는 소리를 하나. 자네나 성태는 땅이 없든지든말든 손쉽게 물길을 완성하여 명성을 얻으면 그만인 아닌가. 똑똑히 알아두라구. 땅은 천만금을 들여서도 살수 없는 이 하늘아래의 가장 큰 재부야. 땅을 떠난 애국이란 있을수 없어. 내 아들의 행복도 이 땅이 있어 마련되는것이구.》

경모의 어조는 높지 않았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전해간 충격은 강한듯 청길은 눈이 휘둥그래진 채 말을 못했다.

경모도 자신이 한 말로 하여 새삼스레 놀랐다. 땅이 있어 행복이 마련된다. 이 순간에 떠오른 생각인가? 아니다. 경모에게 잠재하여있던 의식이 비로소 말문을 터친것이다. 그렇다, 땅은 그야말로 삶과 행복의 터전이였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는데만 습관이 되어 이 땅에서 삶의 행복이 어떻게 움트고 자라며 열매를 맺는가를 알려 하지 않는다. 하기에 행복을 누릴줄은 알아도 땅을 사랑할줄은 모른다. 성태나 청길이가 누구인가. 그래도 땅과 인연맺어서부터 그 땅에 정과 노력을 기울여온다고 스스로 자부해온 사람들이 아닌가....

경모는 안타까움이 어린 목소리로 절절하게 말을 이었다.

《청길이, 정신을 차리라구. 이 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어머니의 고귀한 뱃이 자네를 지켜보고 있어.》

경모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 청길은 몸을 부르르 떨었다.

문득 그의 눈앞에 무시무시한 광경이 떠올랐던 것이다.

…《광—》하는 요란한 폭음에 뒤이어 울리는 다급한 웨침소리.

《저수지독이 터졌다.》

눈깜박할새에 사품쳐 들이닥치는 홍수, 그 홍수에 떠밀리우는 집들, 사람들의 아우성…

《엄마, 우리 집이 없어졌어. 이젠 어떻게 사나? 흑…》

이제 다섯살잡힌 청길이가 온통 모래로 뒤덮여 황량한 사막처럼 되어버린 마을이며 벌을 바라보다가 어머니품에 얼굴을 묻으며 울음을 터쳤다. 미세공중비적들이 펄군 폭탄에 견능저수지독이 터지며 홍수와 함께 수천립방의 모래가 쏟아내렸던 것이다. 청길이 어머니가 아들의 머리를 쓸어주며 고개를 저었다.

《청길아, 걱정말아. 우리에게 땅이 있는 이상 집도… 모든것이 생길수 있단다.》

《그렇지 않구. 청길아, 이제 아버지가 미국놈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전선에서 돌아오면 고래등같은 기와집을 짓지 않으리. 자, 그때까지 저 경모네랑 함께 우리 집에서 살자.》

어린 청길이를 안심시키고난 면인민위원장인 청길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여기 새골은 지대가 낮은데라 이번에 큰 피해를 보았수다. 그래서 면에서는 새골사람들을 큰골로 이사시키기로 했수다. 그런데 저 경모 엄마는 영 막무가내요. 자기 땅을 못 떠난다는거요. 현대 모래판우에 곡식을 심을수는 없는노릇이 아니요. 그러니 청길이 어머니가 경모 엄마를 잘 타일러 이사하게 합시다.》

《저도 경모 어머니와 같은 심정이예요. 땅을 떠난 농민이 무엇에 필요하겠나요. 그래서 애아버지도 목숨을 내대고 이 땅을 지켜싸우는것이고… 저나 경모 어머니는 등짐으로 모래를 저날라버려서라도 이 땅을 꼭 살려내고야말겠어요.》

그로부터 한달후 불시에 달려든 적기의 기총사격에 청길이 어머니는 모래짐을 진채로 논머리에 쓰러졌다. 그는 눈을 감기 전에 엄마를 목놓아부르는 청길의 손을 꼭 잡아쥐고서 미소를 지어보였다.

《청길아, 울지 말아. 삼대째 머슴살이를 하던 우리에게 장군님께서 이 땅을 주시였단다. 이 땅이… 부모도 대신 못할 사랑으로 너를 지켜줄게다.》…

그때 일을 돌이켜보는 청길의 가슴이 뜨끔해왔다. 그는 침통한 표정으로 석상처럼 묵묵히 서있다가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피워물었다. 파르스름한 연기가 술술 피어오르는 담배대가 가늘게 떨렸다.

그런 청길을 침울한 눈길로 바라보던 경모가 그

의 손을 잡았다.

《청길이, 땅을 흘시하면 자신의 삶을 무시하는 거나 같애. 우리는 새 세대들에게 이것을 물려주어야 하네, 새 세대들에게…

청길이, 내가 피로운건 바로 우리 아들녀석에게 그걸 물려주지 못했다고 생각되어서네. 우리 성태가 어떤 사랑으로 세상에 태어났는지야 자네도 잘 알지? 이 땅과 그렇게 혈연적으로 이어져있다고 생각해온 우리 성태가 땅을 그렇게 대수롭잖게 여길 줄이야 꿈엔들 생각했겠나. 난 정말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내 심정을 리해해주게.》

경모는 말을 마치고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다. 그러다가 승용차곁에 서있는 성태를 발견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길이 허공에서 마주쳐 엉켜돌았다. 아들의 눈빛속에 뚫고있는것이 무엇인지… 타매, 울분, 피로움…

인차 성태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처럼 양양하던 아들의 모습이 뺨뺨에 시든 잎사귀처럼 후줄근해보였다.

경모는 한숨을 후 내쉬면서 성태옆을 지나쳤다.

성태는 아버지의 뒤모습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멀거우리해진 그의 눈귀에 맑은것이 서서히 맺혀올랐다. 《아버지!—》 가느다란 속삭임같은것이 흘러나왔다.

흔이라도 빼앗긴듯 멍청한 자세에서 한참이나 벌을 바라보던 청길이가 성태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한동안 성태의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넓은 이마며 유순한 입매, 성긴 눈썹밑의 푸수해보이는 눈매, 어찌면 아버지를 꼭 닮았을가. 그런데…

청길은 이런 생각을 하며 성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성태야, 어제나 오늘이나 너의 아버지는 한본새로구나. 이 땅을 놓고서는 한점의 용통도 없단말이다. 하긴 내가 너의 아버지에게 그런 용통을 바란것부터가 잘못이지.》

청길은 씩씩한 미소를 짓고서 말을 이었다.

《하긴 너의 아버지가 이 땅을 위하여 바친것이 너무도 많아. 모래투성이인 이 땅을 웅근소출을 내는 옥토로 변모시키자고 아글타글했지. 낮에는 벌에 붙어살고 밤에는 도시거름을 실은 달구지의 고삐를 쥐고 령을 넘었단다. 물론 그때는 나도 고향 땅에 진심을 쏟았다고 할수 있지. 그러나 흐르는 세월과 함께 자신도 모르게 변했지. 너의 아버지가 한 말이 있단다. 땅의 퇴화는 세월이 주는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정신적로쇠가 가져다준다고… 성태야, 너를 보란듯이 내세워서 친구를 기쁘게 해

주자던 내 생각이 아버지에게 피로움을 주었구나. 내가 잘못했어.

성태야, 더 할말이 없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부정하려니 그 아픔이 오죽했겠니. 우리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해해야 할것 같다.》

성태는 머리를 떨구었다.

그를 바라보던 청길은 무거운 걸음으로 차에 올랐다.

6

그로부터 며칠후 경모는 연락을 받고 군당에 도착하였다.

군당회의실에는 이미 물길건설지휘부와 련관부문 일군들이 와있었다.

경모는 그속에서 아들의 모습을 띄여보았다. 며칠새 아들의 얼굴은 반쪽이 되였고 입술은 조갈이 들어있었다. 아마도 마음속 고통으로 인한 모태김이 큰 모양이다. 어떤 고통인가? 결합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그 고통은 분명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것이였다.

소금이라도 뿌린듯 쓰러여오는 마음을 녹찾히며 경모는 자리를 찾아 앉았다.

잠시후 당중앙위원회 일군이 주석단에 나와섰다. 그는 잠시 좌중을 둘러보다가 흥분한 어조로 말을 떼었다.

《동지들, 오늘 개천-태성호물길설계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일시에 일어서서 옷매무시를 바로 잡았다.

경모는 저도 모르게 긴장해지는 마음을 느끼며 그 일군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이른새벽 저를 불러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였습니다. ...어제 밤 원암리관리위원장의 편지를 보고 나는 땅을 사랑하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느끼였습니다. 땅이 넓어 대국이 아니며 인구가 많아 강국이 아닙니다. 한치의 땅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인민의 그 정신이 강성국가라는 거대한 위업을 안아 오는것입니다. 우리의 물길로는 철저히 땅과 그 땅을 가꾸는 인민들에 대한 사랑만이 흘러야 합니다. 그 사랑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며 장군님께서는 국가가 좀 어려워도 물길굴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대주며 힘있는 건설력량을 무어 짧은 시일내에 공사를 끝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감격과 걱정의 열도가 온 장내에 끓어번졌다. 사람들이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장내를 둘러보던 일군은 경모를 불렀다.

《원암리관리위원장동무,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의 가정에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예?... 장군님께서 말입니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방경모동무가 설계를 맡은 설계가의 아버지라는데 아들의 잘못을 끄집어내는것이 험치 않았을것이라시며 이는 후대를 위하여 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행동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습니다. 설계가동무가 자기는 물길설계를 맡을 자격이 없다며 자원해서 농장에 진출하겠다고 한다는데 자신께서는 아버지처럼 그의 아들도 믿는다시며 이번 수정설계도 꼭 방경모동무의 아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경모는 쏟아지는 눈물을 견잡지 못하여 머리를 숙였다. 넋직한 그의 잔등이 세차게 물결쳤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성태가 경모의 손을 부여잡았다.

《아버지!》

청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저마끔 눈굽을 훔치며 그들부자에게 박수를 보내주었다.

...

그로부터 2년후.

완공된 개천-태성호물길을 따라 물이 흘렀다.

이 땅을 시원하게 적시며, 농민들의 가슴도 후련히 적시며 물이 흐른다.

아, 자연의 리치대로만 흐르는 물이 아니로구나. 땅에 대한 위대한 사랑으로, 그 땅을 가꾸는 농민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으로 출렁이며 흐르는 물이여, 그대로 사랑이로구나, 덕이로구나.

걱정을 터쳐라. 만세를 불러라. 이 땅에 대한 사랑만세를 불러라. ...

《만세! 만세!...》

농민들도 건설자들도 목청이 터져라 만세를 부르며 저마끔 물속에 뛰어들었다.

흐르는 물을 손에 퍼담아 힘껏 휘뿌리는 사람, 물을 퍼담을듯 두팔 가득 그러안는 사람, 여기저기서 하늘공중 물보라가 솟구쳤다. 물길뚝우에서는 북소리, 징소리의 요란한 장단에 맞춰 둥기둥기 흥겨운 농악무의 춤판이 펼쳐졌다.

아, 물에 젖은 사람들이여, 사랑에 취한 농민들이여...

물과 함께 울고웃는 사람들속에 경모와 성태도 있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서 평양쪽하늘을 우러러 점도록 서있었다.

모내기벌에서

함영근

군대식으로!

작업복차림도 군복차림새로
모자도 혁띠도 단추도 반짝반짝
모내는기계 간간히 점검하네
그는 어제날 땅크병출신
오늘은 농장의 당당한 주인

어제 저녁 작업반회의때
작업반실이 쨍쨍 울리게
땅크는 못 넘는 령이 없고 강이 없습니다
하물며 일매진 논벌이야 눈감고도...
슬쩍 처녀들을 둘러보며 웨치던 열변

땅크병출신 그의 목소리
회의장천정만 울리었던가
모공급수처녀들의 가슴도 울렁울렁
저런 총각과는 일할 멋도 있겠지
그러면 처녀들은 땅크의 승조원

정비를 끝낸 《땅크승조장》
처녀들의 어깨를 툭 치네
어서 《땅크》에 올라앉으라나
감쪽은 논판에 총알을 박듯
순간에 세배미 냅다 제끼자네 군대식으로!

순이 노래 부르려마

모내는기계가 무슨 땅크람
포신도 룝크도 없는데
그래도 모내는기계는 땅크래
바퀴도 쇠바퀴 운전대엔 기발
줄대같은 모는 경량화된 포탄이래

땅크가 앞서나가야 보병들 사기나고
땅크가 지나간 자리엔 잡풀도 못난다나
어제날엔 최전선의 호랑이땅크병
오늘날엔 농업전선의 착실한 농사군
자 승조원들 또 한배미 제졌구나

멋중의 멋이야 군대멋이지
순이 노래를 부르려마
우리 누구 몰래 부르던 노래 있지
《전차병과 처녀》
우리 둘의 사연 누구도 모르는데 뭐라나

자 한배미 푸른 주단 펼쳤으니
오늘중에 분조논 절반은 냅다 밀자
우리 펼쳐가는 푸른 주단 저뒤로
물결쳐오는 황금파도 보여오지 않니
그 좋은 날 우리 잔치를 하자꾸나

시를 쓰는대

네배미 모내기 끝내고
다섯배미째 논판에 들어서니
땅크병 그 총각 말을 걸겠지
우리 모공급수처녀들이
농장벌우에 멋진 시를 쓴다나

농사밖에 모르는 우리들이

무슨 시를 쓸줄 안다고
처녀들 놀리지 말라고 한마디 쏘았더니
아니래요 시중에서
조국이 제일 사랑하는 시를 쓴대

무얼가 조국이 제일 사랑하는 시
흙을줄은 알아도 쓴적 없는 시

그렇지 생각나는구나 생각나
아, 쌀로 받들리 우리 원수님!...
우리의 본분을 자각케 하는 시

웁아 우리 농장벌에 시를 쓰자

시라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맹세의 시
배미마다 쌀이 넘치게 농사를 잘 지어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드릴
금문자로 아로새길 그런 시를!

량심의 거울

거울같은 모판에 량심이 비낀다
모공급수 승조원처녀들아
깊지도 알지도 많지도 적지도 않게
알뜰살뜰 꽃아가자
포기마다 꼭꼭 석대 너대씩

처녀들아 헛는 팔지 말아라
백일홍 채송화 코스모스
집마당가에 꽃모를 옮기듯
정성을 심어야지 마음을 심어야지
너희들의 일숨씨 총각들이 지켜본다

보려마 모가 떨어질라
두렁마다 쌓아놓은 줄대모는
너희들을 마음속에 새겨둔 그 총각의 마음이다
모내기전투 끝난 그날에 주자고
그 총각 읍에 가서 기념품도 사왔단다

어허, 또 한배미 넘어가자
나의 땅크승조원들 앞으로
푸른 벌은 농민들의 마음을 묻는 벌
풍년벌은 농민들의 량심을 비쳐주는
애국의 거울이란다

숲의 노래

주 경

새웁트는 아지마다
바람새도 좋구나
너의 끝없는 소리는
숲에 깃든 사랑의 노래
이 땅에 불러주는것 아니나

숲이여 너는 언제부터
눈과 비 바람이 그칠새 없던
세포라 허허등판에
바람막이숲이 되어
정겨이 설레이느냐

너의 싱그러운 향기는
강설이 몰아치던 겨울에도
더운 입김 날리며
언땅을 까헤치던
우리들의 숨결이 아니나

너의 한그루한그루 나무마다엔
소중히 깃들어있어라
잔뿌리 하나 상할세라
찬바람 한줄기 스며들세라
돌우에도 꽃을 피우듯
정성을 다해가던 그 마음들이

바위가 막아서도 예돌지 않았다
흙이 모자라면 우등불 지피여
언땅을 녹여 뿌리를 덮어주었고
세찬 폭풍에 너를 그어안고
한밤을 지새우며
우리는 이 땅에 푸른 숲을 일떠세웠어라

숲이여 이제 너는
무성한 아지를 펼치며
이 땅에 억년뿌리를 내리리라
이 등판에 사납게 몰아치던
바람도 고이 잠재워주며

저기 하늘빛 파란 등판으로
양떼 염소떼들이 구름처럼 흐르고
새로 선 고기와 젓가공공장에서
희한한 제품들이 쏟아져나올 때

아, 숲이여 너는
인민들이 잘살 날을 당겨오시려
수천년 잠자던 이 땅에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펼쳐주신
경애하는 **김정운**원수님의 사랑을
년륜마다 새겨안고
천만년 설레이며 노래를 부르리라



달밤

리 통 운
그림 김 광 석

배산너머로 해가 지자 산밑에는 급기야 어스름이 찾아왔다. 이해의 마감문턱인 동지달도 며칠 남지 않았건만 쌀쌀한 대기에는 아직도 마가울의 구수한 정취가 남아있는듯 하다.

그런 가위에 검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산은 한결 더 높아진듯싶다. 그 산마루우에 깃털모양의 띠구름 몇송이가 떠있는데 건강미 넘치는 이곳 해변가 사람들의 혈색좋은 얼굴마냥 불긋한 그 색깔은 태일도 틀림없이 날씨가 좋으리라는것을 예언하는듯싶었다. 파도소리가 들려왔다.

그 파도소리를 쉼이라도 세듯 명상에 잠긴 두사람이 밋밋한 비탈을 따라 내리고있었다.

두사람의 잔등에는 빈 부식토지계가 매달려 제마끔 덜렁거린다. 앞장선 사람은 이곳 리당비서 김형근이고 뒤따르는 사람은 관리위원장 리성식이다. 행색을 봐서는 지금껏 산밑의 등성이밭에 부식토를 저울린 모양이다.

앞에 선 김형근은 짙막한 다리를 재게 놀리며 마른 풀대 우거진 소로길을 잘도 걷는데 그에 비해 허우대도 크고 목덜미도 실한 성식은 어지간히 지친 기색이었다.

《에에, 난 이담에 우리 순희 새서방은 비서동무처럼 작달막한 사람으로 고를라우.》

푸념하듯 중얼거리는 관리위원장의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김형근은 내치 걸기만 했다.

그들이 걷는 비탈밭 오솔길옆에 아직도 얼어들지 않은 개울물이 주절대며 흐른다.

리에서 제일 막바지라고 할수 있는 여기 등메동비탈밭은 들인 품에 비해 소출이 시원치 않아 관리위원회에서조차 그닥지 않게 여기는 땅이다.

아홉정보나마 되게 널다란 땅이 온통 진흙밭인데 비라도 조금 뿌려진 날 와볼라치면 신발창에 끈적 끈적 묻어돌아가는것이 마치 옛함지에 들어선 기분이다. 그러다가는 며칠 날이 좋아 해비침물이 높아지는 때에는 또 그대로 찻찻이 굳어진 흙밭들이 농쟁기밭에서 단 가마에 가마치 일듯 하였다.

모래나 탄재도 뿌려보고 부식토와 거름도 다른 곳보다 넉넉히 내느라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마을사람들속에서는 이런 말이 곧잘 돌고있다.

《등메동등판에 태줄을 묻었나?》

심사가 바르지 않거나 생억지를 곧잘쓰는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새땅찾기로 온 리가 달라붙어 개간하여 정식 국가토지로 등록한지도 여러해되지만 가을에 가서 소출을 보면 여전히 큰 전진이 없었다.

《장가를 든다는게 망가에 빠진 꼴이야.》

가을철이면 등메동에상수확고를 놓고 여기 4작업반 반장이 두덜대듯 하는 말이다.

그도 그럴것이 등메동등판전체가 4작업반에 속해있는것이다. 얼마전에 소출이 적게 나가나 농장의 능력제한으로 관리하기 힘든 땅은 모두 장악하여 우에다 보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물론 다 알수는 없으나 이런 지시를 받고보니 성

식으로서도 짐작되는바가 있었다.

농민들의 생산의욕과 열의를 한층 북돋아주고 분조관리제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성식은 4작업반장을 만난 기회에 새로 떨어진 지시내용을 알려주면서 등메동등판을 내놓는게 어떻가고 던지시 물었다. 현대 선뜻 응해나서며 기뻐할 줄 알았던 그가 대뜸 이마살을 찌프리며 고개만 찌뚫하는게 아닌가.

《왜?! 정작 내놓자니 아깝나? 물론 개간하고 걸구어보느라 바친 노력을 봐선 나도 내키지 않아.

하지만 가을만 되면 이 등메동때문에 우거지상을 짓는 자네를 보기두 딱한노릇이야. 또 농장계획 전반에 주는 영향도 그렇구.》

그래도 4작업반장은 여전히 대척없이 한본새이다. 성식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꼬웠다.

혹시 능구렁이같은 저 사람이 이런 땅이라도 계속 깔고앉아 계획조절을 어떻게 달리해보려고 궁리하고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작업반적인 리득을 챙기는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농장의 건지에서 볼 때는 틀림없는 손해이다.

왜냐하면 해마다 비료배정때나 로력집중조직에서 4작업반이 우선시되는것이 바로 이 등메동때문인것이다.

결국 관리위원회에서 등메동을 저수확지로 내놓는것으로 약속짓고서 오후에 자전거를 타고 리안을 한바퀴 돌며 량곡수매정형이며 겨울철소사료확보량을 료해하던 성식은 뜻밖에도 4작업반 탈곡장앞에서 리당비서 김형근을 보게 되었다.

그는 이곳 중학교에서 오래도록 교장사업을 해온바있는 강승봉로인과 마주서서 어딘가를 연방 손짓하며 열심히 얘기를 주고받고있었다.

그러다가 성식을 보게 되자 김형근은 강로인에게 굽석 인사를 한 후 잔걸음으로 다가왔다.

《여긴 어떻게... 여기서 뭘 하오?》

성식의 물음이었다.

《강로인이 날 찾아 리당에 나오는걸 마침 만났소. 참, 등메동 아홉정보를 내놓게 했는지요?》

리당비서의 말에 성식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것으로 대답했다. 잠시 무슨 생각엔가 잠기듯 하던 김형근이 성식에게 함께 등메동으로 가보지 않겠는가 고 했다. 정작 땅을 내놓자니 변변치 못한 자식 외면해버린 부모의 심정처럼 속이 얼얼하던차라 성식이라도 군말없이 따라나섰다.

그런데 가는 길에 형근은 어느 분조엔가 들러 부식토지게 하나를 둘러지는것이였다.

《건 뭘하자구?...》

의아해하는 성식에게 형근은 혼자소리처럼 중

얼거렸다.

《아무리 말없는 땅이라두 그냥 헤어지기 섭섭하구만. 부식토라두 몇집 쳐다놓으면 어떨지.》

성식은 그 말의 의미를 곧 깨달았다.

아닌게아니라 그렇게라도 하면 빠근하던 자기 속도 좀 편할듯싶었다. 마침 며칠전에 그곳을 지나치다 포전으로 올라가는 길어구에 쌓아놓은 부식토무지를 본터이다. 말하자면 땅과의 송별식이랄가.

그때부터 지금껏 두사람은 이렇다할 말이 없이 비탈길로 부식토를 저날랐다.

오솔길이 끝나면서 좀 널찍한 달구지길이 나졌다. 앞뒤로 나란히 섰던 그들은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걸었다.

그제서야 김형근은 옆을 힐끔 쳐다보며 《작달막한 사람? 건 왜?》 하고 통명스레 묻는다.

이마우에 드리운 희숙한 머리카락밑에서 작고 명민하게 생긴 두눈이 반짝인다.

《왜라니요, 날 좀 보시구려. 허우대만 컸지 힘을 쓰나, 손발이 재나, 옷짓는데두 천은 남보다 곱절이나 들어야지...》

《못하는 소리가 없군. 아무려면 큰것만이야 할라구. 여복했으면 학교에서 키키기운동을 시키겠소?》

고지식하고 또 고지식한 김형근이다. 그는 여적 말 한마디 없는 자기를 위해 관리위원장이 원심을 쓰던 끝에 이런 너스레를 떠다는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듯싶다. 김형근은 워낙 말수가 적은 사람이였다. 남의 말은 신중히 들었으나 그에 대한 반응은 매우 명료하면서도 간단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짓는것이 레상사였고 간혹 긍정이나 부정의 말끝에 자기 의견을 한두마디 첨부하는것이 고작이였다.

그런 그가 오늘은 별스레 말이 더 없어졌는데 어쩌다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까닭모를 경원마저 어린듯 하였다. 십여년 남짓이 그와 함께 일해오는 성식으로서 그 눈길에 가지는 의미를 잘 알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속에서 일욕심있고 승벽이 센 반면에 푸점 또한 좋다는 평가를 받는 성식이조차도 그의 이런 눈길앞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음을 항상 느껴오느터였다.

함께 일해온것도 그렇고 나이마저 한두해차이로 어금բ금이어서 사업상으로나 생활적으로 둘사이에는 따로 꿈지는 보따리가 없었다.

잊지않는 총화때까지만도 리당비서에게서 별다른 기미를 느끼지 못한 성식이였다.

(이 나이에 계집애들처럼 웬 번덕이람.)

속으로는 이렇게 뽕얼거리면서도 성식은 은근

히 자신의 하루를 돌이켜보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허나 딱히 짚이는데는 없다.

있다면 혹시... 등매등을 처리한 문제때문에 그러는것이 아닌지. 그렇다면 그거야 어디까지나 순수 생산실무적인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자기는 국가계획을 걸머지고 그것을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이 농장의 주인인것이다.

잠시후 성식은 자신의 부질없는 짐작에 도리머리를 저었다. 지금껏 알건대 리당비서가 그렇게 웅성한 사람이 아니었던것이다.

급기야 질어가는 어스름속에 길설에 무저논은 부식토무지가 나타났다. 그앞에 이른 두사람은 지계를 풀어놓고 앉아 담배를 한대씩 붙여물었다.

앞산마루에 떠오르기 시작한 열이를 찌그렁달이 사위를 푸릿하게 밝히고있었다. 저아래 집집의 굴뚝들에서 피어오르는 저녁연기가 달빛속에서 땀기오리처럼 하얗게 보였다. 어둠속에 전조등을 휘저으며 2작업반쪽으로 넘어가는 트랙토르소리가 아슬푸레 멀어지자 김형근이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는 담배꽂초를 발뒤축으로 비벼끄며 그냥 앉아있는 리성식을 돌아보았다.

그만 일어서 내려가자는 뜻이다.

《먼저 내려가십시오. 난 좀 앉았다 가겠습니다.》

성식은 담배 한가치를 또 꺼내든다.

《어거지쓰지 마오. 어차피 이제야 우리 땅도 아닌데.》

《허참, 비서동무두, 내가 무슨 어린애라고 어거지를 쓰겠소. 집에 간댕자 로친네두 없는거. 우리 순회두 이제야 퇴근해왔을게요.》

순회란 이곳 소학교에서 교원을 하는 성식의 딸이다.

《사업총화두 지어야 할게 아니요.》

사업총화라는 말에 성식은 입을 꼭 다물어버렸다. 당치 않게도 이 순간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던것이다.

아침모임을 방금 시작했는데 갑자기 전화종이 울렸다.

누군가가 송수화기를 들더니 곧 계획부원에게 넘겨주었다. 계획부원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얼른 책상밑으로 내려앉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성식은 하던 말을 계속했다.

그런데 무슨 대화가 그리 긴지 좀체 전화가 끝나지 않았다. 소리를 죽여가며 수군수군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신경을 자극했다.

참다못해 무슨 전화가 그리 오랜가고 핀잔처럼

한마디 하였다. 계획부원은 흠칫해서 일어나며 울상을 지었다.

《저... 군에서 복합비료공장건설때문에... 이달중으로 무조건 끝내랍니다.》

복합비료공장건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군에서 조직한 여러가지 사업중에 중심을 이루는 사업이다. 의연히 긴장한 비료문제를 해결하자고 군에서는 몇개 농장에 하나씩 복합비료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이곳 농장에 먼저 비료공장을 건설하도록 한것이다.

그래 낱알털기가 끝나는 차제로 기본로력을 돌려 터를 닦고 벽체쌓기를 비롯하여 기본공사는 다 끝내었다. 중요설비들도 다 들여놓은게고 이제 남은것은 지붕공사를 비롯한 마감시공인데 여기에 필요한 목재가 딱 걸렸다.

그에 대한 타산이 없었던것은 아니지만 한계가 그어진 시간내에 하자니 립체전을 하는수밖에 없었다. 기본벽체완성을 이삼일 앞두고 가을갈이를 끝낸 트랙토르 몇대를 목재수송에 돌렸다.

농촌이라지만 해변가에 있다나니 80여리밖의 립지에 다녀오느라 운전수들의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었다. 차를 끌고다니는 사람들은 교대운전사도 있고 그런대로 괜찮지만 문제는 가을갈이를 끝내자마자 산길에 들어서 통나무를 끌어내는 트랙토르들이었다. 뒤통수라면 다문 한것이라도 정비비를 시켰어야 하는건데 눈앞에 닥친 일이 급하여 그러질 못했다. 그것이 일을 쳤다.

수송거리가 멀다나니 하루에 뒤통수 하나하나한테 벌써 첫날에 한대가 주저앉았다.

발길에 채이자 코까지 깨진다고 어제 낮에는 또 기계화반장이 관리위원회에 뛰어들었다.

《뭘라구? 38호는 또 왜 그런다오?》

벌떡 일어서 다궂듯 하는 성식의 물음에 기계화반장은 얼굴을 찡그리며 목을 비틀었다.

《크랑크축이 나갔답니다. 보나마나 운전수가 욕심스레 실었겠지요. 공사기일은 박두한데 수송량은 마음에 차지 않지. 예, 그나저나 내 불찰이지요.》

글쎄 한것이라두 정비작업을 시켰어야 하는건데...》

마지막말은 분명 관리위원장인 성식이 들으라고 한 말같다. 금시 논밭에서 나와 흙밭도 털지 못한 차들을 그길로 립지로 떠밀다싶이 보낸것이 바로 성식인것이다.

《그만하오. 제길, 아낙네들 푸념처럼 듣기 궁상스럽소.》

성식은 물풍스레 기계화반장의 말을 밀막으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러면서도 머리속으로는 부지런

히 생각을 굴렸다.

아직도 퍼그나 많은 랑을 실어야 할텐데 난사는 난사다. 아직 한창 논갈이를 하고있는 다른 작업반들에 전화를 하니 사나흘은 걸려야 일이 끝날거라고 한다. 땅이 얼기 전에 해야 할 일이니 이 좋은 초겨울날만 믿고 갑자기 차를 동원시키기도 어려운노릇이다. 기계화작업반장이 뭐 좀 준비해가지고 차들이 벗어선 현장으로 간다고 집으로 달려간 뒤에도 오래동안 꼴을 씩었으나 아침모임을 하는 지금껏 신통한 궁리가 떠오르지 않았다.

주변리들에 도움을 청해볼 생각도 해보았으나 이내 도리머리를 저었다. 보나마나 사정은 거기도 마찬가지일것이다. 각 작업반들에 무조건 몇립방씩 끌어다놓으라고 내려먹이려다 그것도 인츰 부정해버렸다. 아무리 얹어치고 뒤쳐봐도 그런 식으로는 기한전에 공사를 끝낼것 같지 못했다.

(원, 나무 한토막 안 주면서 독촉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난 성식은 넉적한 손을 너푼하며 낮을 찌그렸다.

《한다고 그러우, 인차 끝낸다고.》

《하지만 지금 이 형편에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차는 주저앉았지, 수송방도는 아직 없지. 이견 그저 새통에 끼여서 나만 괜히...》

마지막말은 혼자말처럼 입속으로 종알거리다 먹어버리는데 그것으로써 그는 자기 사업에 무관심한 관리위원장에 대한 불만을 은연중 내비치었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공사의 시공을 건설물계에 속내가 튼 계획부원에게 맡겼던것이다.

체소한 몸집처럼 내칠성이 없는 계획부원은 이렇게 종알거리기를 잘한다. 성식은 속빈 웃음을 허허웃으며 계획부원을 너그럽게 타일렀다.

동무도 잘 알지 않는가, 지금의 실태를... 그래서 농장에서도 최대한 대책을 세우는중이고...

그쯤했으면 계획부원도 알아들었어야 할텐데 그는 마치 얼리면 더 우는 아이처럼 제켄에서 역증을 켜다.

《누가 몰라서 그러니까. 너무 세월없이 옛당기듯 하는것 같아 하는 말입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관리위원장동지가 한번만 똬주셔두 쪽 풀릴 일을 놓구 구차스레...》

책상이 탕 소리를 냈다.

성식은 그때 왜 자기가 그다지 성을 냈는지 알수 없었다. 계획부원이 못할 말을 한것도 아니며 그렇게 일한적이 노상 없는것도 아니었다.

정 바쁜 대목에 이르러 뛰여가면 딱해하면서도 가능한것 도와준 사람들이 한들이 아니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으나 또 그것으로 해서 그는 아버지장군님의 령도자옥이 깃들어있는

땅에서 일하는 궁지를 늘 느껴왔었다.

그런데 왜 성을 냈던가?

하루종일 잊고있던 불쾌한 일을 다시 상기시켜준 리당비서를 물끄러미 쳐다보던 성식은 《기사장동무한테 사업총화를 좀 부탁해주시시오.》 하고는 낮을 돌려버렸다. 김형근은 군말없이 돌아서갔다.

아마 리당위원회로 갈것이다. 그가 세포비서들을 불렀다는것을 성식은 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낮에는 현장으로, 밤에는 사무실로 쉴새없이 돌아치는 리당비서에게 어쩐지 미안스런 생각이 들었다.

저 작고 다부진 체구에 어디서 그런 열정과 힘이 솟는지 알수 없었다. 이윽도록 멀어져가는 발자욱 소리에 귀기울이던 그는 지게등받이에 잔등을 기대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러다 갑자기 온 하루 자기에게 패없이 던져지던 리당비서의 눈빛이 다시 떠오르며 말없는 그 책망의 의미가 안겨왔다.

(아침모임때 일을 들은 모양이지. 사람두, 할말이 있으면 맞대놓고 할노릇이지.)

부지중 입밖으로 《쑈-》 하고 허차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그 눈빛이 곧 자신의 사업작풍을 넘두에 둔것이었는데 사람이 일을 하느라하면 큰소리도 있게 되고 때로 욕도 하게 되는것이다.

료리에 들어가는 향신료들이 개별적인 그 맛 하나하나보다도 그것들 서로가 적절히 배합될 때라야 비로소 음식의 맛이 더 감칠맛있고 이채로와지는것이 아닌가. 그는 다리에 힘을 주며 지게등받이에 실은 몸을 끄- 하고 뒤채졌다.

그리고는 마치 잠이나 청하련듯 어깨죽지에 고개를 구겨박았다. 저켄 산마루를 스치며 지나가는 긴 바람소리가 후-우 하고 들려온다.

불시에 까닭모를 고독이 온몸을 휩쌌다.

귀가 멍하도록 가라앉은 마을의 정적, 이밤따라 파도소리는 왜 저다지 잠들줄 모르는가.

그렇사하게 생각해서인지 마을이 온통 물속에 잠긴듯 끝모를 고요에 빠져있었다.

원래 바다가마을의 저녁은 늘 활기에 넘쳐있었다. 불빛밝은 창문들에서는 노래소리가 울려나오고 생선을 건져가지고 들어오는 아낙네들의 성수난 웃음소리가 골목마다에서 울렸다.

바다에서 돌아오는 배군들이 옷자락을 펄럭이며 마당에 들어설 때면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꺼번에 달려나와 떠들썩 웃음판을 만들어놓는다.

썰물지는 저녁이면 또 얼마나 야단스러운가.

이맘때의 이 고장 사람들은 찌리와 그물로 엮은 지게를 지고 그물망태를 들고 서로 찾고부르며 앞을 다투어 바다로 달려나간다. 그 모양은 흡사 런인을 만나러 달려나가는 처녀의 모습 그대로다.

그렇다. 이 고장 사람들은 예로부터 바다라는 총각을 사랑하는 대지라는 처녀의 심정으로 살아오고 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바다는 참말로 보배로운것이어서 거기에는 없는 것이 없을뿐더러 진할줄 모르는 자기의 재부로 대지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를 끊임없이 충족시켜주고 있는것이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바다에서 나는 조개며 소라, 망둥어따위들을 말리워두었다가 나들이를 가거나 친척이 오면 한집씩 지워보내기도 한다. 그것은 교역이기 전에 자기 고장에 대한 자랑이었고 긍지였으며 말없는 소개였다.

그렇다고 봄부터 가을까지 땅을 가꾸어야 할 사람들이 노상 바다에 붙어있을수는 없는것이고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짬물에 몸을 푹 적시며 바다사냥에 재미를 들일 때이다. 작년같으면 어느 하루는 시간을 내어 자기부터가 앞장서 바다로 나갔을것이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어울려 조개를 줏고 굴을 캐고 자망에 걸린 송어며 망둥어를 따며 웃고 떠들것이다. 또 그것을 계기로 서로의 마음속에 한해동안의 자그마한 오해며 고까운 마음들을 싱그러운 바다바람에 날려버리기도 하는것이다.

이제는 농장의 관례처럼 되어버린 그 풍속이 올해에만은 이어지지 않았다.

(하기야 지금이 어떤 때인가.)

올해농사작황은 레년에 없이 좋았다. 너무도 뜻밖에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그후 온 한해를 들에서 살다싶이해온 사람들이 안아온 결실이였다. 하지만 만가울의 들머리에 앉아서도, 탈곡장에 치솟는 난알무지를 보면서 그들의 얼굴에는 기뻐하는 기색이 별로 없었다.

가을수확이 끝나고 난알털기까지 말끔히 끝난 지금에 와서도 이어 새해영농준비를 서두르는 품이 모두가 마치 보이지 않는 초조감에 쫓기는 사람들 같았다. 그들모두의 가슴속 밑바탕에 진하게 흐르는 회오와 자책, 소용돌이치며 분발된 자각이 이런 열성을 낳는다는것을 성식은 잘 안다.

로력문제로 어지간히 판리일군들의 속을 쓰게 하던 방대한 비료공장건설이 큰 무리없이 추진돼가는것도 농민들의 이러한 헌신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는것이다.

(래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군에 들어가 봐야겠어.)

성식은 양양된 농민들의 열의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있는것이 유독 자기 혼자만이 아닌가 하는 자각지심으로 다시한번 마음을 도슬러먹었다.

군차사업소는 량정사업소는 운수기재문제는 꼭 자기가 해결해야 하리라는 자각이 들었다. 그리고 농장수산분조장에게 일러야겠다. 농장원들을 위해

생산물창고를 한번 열어야겠다고... 무엇이든 일단 그러안은 답에는 그 팔을 펴게 한다는게 조련치 않은 털보수산분조장을 구슬린다는것 또한 헛치 않을것이다. 하지만 바다가에 살면서도 올해엔 해감 한번 묻혀보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서는 꼭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이 신선한 굴이며 조개수확고가 제일 높을 때이다.

...대중없이 떠오르는 생각에 푹 잠기여있던 성식은 마침내 훌쩍 일어서고말았다.

지계를 외어깨에 걸치고 마을로 향한 길을 따라 털썩털썩 내려가느라니 땀식은 목언저리가 선선했다. 등너머 멀리 숲속으로 이따금 빠져나가는 바람소리가 소연히 들려온다.

어둠과 고적을 불러오는 그 소리가 지뫓게도 성식의 귀를 두드리며 가지가지 갈피없는 생각의 씨앗을 뿌려주는듯싶었다.

성식의 말마따나 집에 가면 안해가 없다.

이웃리에 있는 동생네 집에 간다면서 오늘 아침 어둑새벽에 떠났다. 지난해 장마철 쏟아지는 폭우속에 수로뚝이 터지면서 작업반원들 서너명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때 작업반장인 성근이가 해엄쳐들어가 그들을 구해내고 눈을 감았다.

그후로 외아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동서생각에 늘 걱정이 마를날없던 안해가 아무리 바빠도 한번 가 봐야겠다면서 아침밥도 설치고 떠나갔다.

그 동생의 일을 생각하면 안해 못지 않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성식이다.

남달리 건강치 못한 제수로 하여 슬하에 아들 하나만 두었는데 그 알량한 외아들때문에 무던히도 속을 태우다 간 동생이다. 이름도 고르고골라 명현이라 지어줬건만 그 애는 조금도 밝고 현명하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슬쩍하면 학교를 두꺼먹고는 산이요 바다요 돌아다니며 장난으로 하루해를 지우곤 했다. 군적으로도 프르르한 모범작업반장인 동생이 그 아들때문에 드문히 창피스런 걸음을 해야 했다.

하지만 그 애가 그 지경 된데는 제 부모 잘못이 더 크다고 성식은 여기고있었다.

결혼이후 인차 자식을 보지 못하고 몇년후에야 늦게 본 아들이라고 동생내외간의 편애가 대단했던것이다. 성식이기도 자식을 대하는 동생네의 이 처사때문에 늘 불만이였다.

그런 속에 세월은 흘렀다.

동생이 그렇게 가기 뒤달전에 읍에서 만났을 때에도 성식은 이렇게 신칙했었다.

《...가문에 없는 청개구리를 내지 않으려거던 명현이녀석을 단단히 다잡아라.》

림종의 시각에 자기가 구원한 반원들에게 둘러

싸인 동생은 머리맡에 와앉은 명현이를 눈물이 그렇게 말없이 쳐다보기만 하였다. 하얗은 부락을 담은 아버지의 간절한 그 눈빛에서 덜때먹은 그녀석이 도대체 무엇을 읽었을것인가.

성식은 그렇지 않아 그 조카애에 대해 늘 걱정은 하면서도 벌려놓은 일에 쫓기위 지금껏 선뜻 걸음을 내짚지 못하고있느터였다.

올해 졸업반이니까 그녀석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론가 날아갈 차비를 하느라고 궁싯거리고있을 것이다. 듣자니 공부는 꽤 하는 모양이던데 하다못해 전문학교라도 가게 됐으면 좋으련만...

성식이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에 떠밀리워 걸음을 놓는데 앞켠 둔덕꼭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대지에 드리운 달빛을 마주하고 눈여겨살피니 별스레 길고 짧은 두사람의 형체가 어른거리는데 쿵쿵 땅을 파는 소리도 들려온다.

《할아버지, 여기가 맞긴 맞나요?》

되알지게 울리는 어린애의 짜증기어린 목소리...

《허허, 녀석두. 그러게 왜 따라나와 이 성하나.

아무려면 이 고장이야 이 할아버지가 더잘 알겠지. 힘들면 여기 앉아 좀 쉬려무나.》

자애에 푹 젖어 느슨하게 울리는것은 분명 늙은이의 목소리이다. 뒤이어 곡괭이질소리가 또 들리는데 누구인지 소리만 듣고도 일에 서투른 사람의 숨씨다. 그결에 오탁하니 서있던 손자인듯 한 애가 손에 쥐고있던 삽을 꼬나쥐고 저켠으로 쪼르르 달려가며 웨친다.

《그럼 난 저쪽으로 좀 가서 파볼래요.》

잠시 허리를 뻗던 로인이 손바닥에 침을 묻혀 다시 곡괭이를 쳐드는 순간 성식이 그앞으로 다가갔다.

《저 교장선생님 아니십니까?》

대꾸에 앞서 고개가 들리었다.

《접니다, 성식입니다.》

《허, 관리위원장동무가 어떻게...》

백발의 로인은 별로 깊지 않은 구렁이에서 나오느라 성식에게 손까지 내밀었다.

혈색이는 숨소리가 류달리 높다.

《한데 이밤에 여기서 뭘하십니까?》

《허허, 뭐 별게 아닙니다. 내판에 그저 좀...》

강승봉로인은 잠시 뭔가 주저하듯 하더니 곧 말을 이었다.

《여기 4작업반장이 실은 내 오랜 제자외다. 학생뻔 공부도 팬찮게 했지요. 헌데 오늘 그 사람이 이 등메동등판을 내놓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조치라지만 어쩐지 속이 언짢습니다. 글썽 작업반의 생산계획을 걸머진 단위의 주인으로서 속

궁냥이 있어 그랬겠지만 내 생각은 좀 다릅디다. 말하자면 뭐랄가. 작업반의 주인이기 전에 땅의 주인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왜 그런지 그 말에 성식의 가슴이 뜨끔했다.

작업반의 주인이 되기 전에 땅의 주인이 되라. 어쩐지 꼭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는 말같았다. 얼굴이 슬며시 달아올랐다.

난처하고 딱한 그 순간에 주머니에 넣었던 손에 담배갑이 묻어나왔다. 사양없이 담배를 붙여 문 강로인의 입과 코구멍으로 짙은 연기가 쏟아져 나왔다.

《위원장동무도 생각해보시우. 농장에서 내놓은 이 땅이 강을 건너 다른 나라에 가겠소?

결국은 국가가 걷어안게 될거구 그 부담이 어디에 실리게 되겠소. 새삼스런 말같소만 해방전에 제 땅이 없어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이 알면 등메동등판이 아까워 땅을 박차고 나올거우다.》

성식은 손에 든 담배가치를 그냥 주무르며 로인의 앞에 마치 잘못을 저지른 학생처럼 서고만 있었다. 환갑이 넘도록 이곳에서 오래도록 중학교교장을 지낸 강승봉은 70고령인데도 기골이 장대하고 깨끗이 늙어 어딘가 신선을 마주한듯 한 신비로움까지 자아내는 로인이다. 이렇게 달빛을 마주하고서니 더구나 그러했다. 젊은 시절 농장에 찾아오셨던 위대한 장군님까지 만나뵈온적이 있는 로인이다.

푸근한 목도리는 풀어 목에 걸치고 후렁한 솜저고리는 앞섶을 헤쳐놓았는데 아직 콧뎀한 허리에 비해 휘우듬한 어깨며 삽자루를 잡고 옆으로 기울서한 자세에는 로동에 익숙하지 못한 부자연스러움이 짙게 어려있었다.

벌써 어디를 굶혔는지 하얀 형겁으로 싸맨 손가락이 유포하다.

《그런데 여긴 파서 뭘하자구 그러십니까?》

잠시 깃들었던 침묵을 깨며 성식이 물었다.

《오참, 관리위원장동문 타고장에서 이곳에 왔으니 잘 모르시겠구려. 전쟁이 끝나구 농업협동화가 한창일 때 여기에 큰 기와가마터가 있었다우. 술한 기와를 구워내서 새집들에 얹었습니다. 그러다가 읍에 요업공장이 생기면서 없애구말았지요. 대신 이 자리에 기와를 익히고 남은 연재가 끄적하게 쌓였더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 등메동은 잠판목만 들어찬 그런 땅이었지요. 아마 그때 여기 쌓였던 연재만 다 퍼내두 등메동 진흙발썹 문제가 아닙니다. 그새 저 땅을 두구 이래저래 속썩는줄 알면서도 근처무당령험한줄 모른 격으로 인제야 여기 생각이 미쳤구려.》

혼연스레 하는 로인의 말을 듣는 순간 성식의 귀가 번쩍 뜨이었다. 동시에 관리위원회에 종합된 이곳 4반 작업일지의 수자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저 등메동에 날라다편 여러가지 토지개량물질들의 수자였다.

적다. 관리위원회에서도 관심하고 여기 작업반에서도 노력하느라 했지만 이 넓은 땅을 살찌우기에는 분명히 적었다.

더구나 부족했던것은 땅에 대한 자신의 올바른 텅장과 태도였다.

뭐? 국가앞에 계획을 책임진 농장의 주인?!...

그래 생산물은 저 하늘에서 뚝 따온다던가.

농촌에서의 기본생산수단은 토지라는 말이 단순히 책에만 있는 리론이란 말인가. 그러고도 이 땅을 누구에게 밀어놓으려 했던가. 자기가 못다한 책임을 누구에게 짊어지우려 했던가.

불시에 자신에 대한 질책과 타매가 견잡을수 없이 치밀어올랐다. 이러한 그의 속마음을 알리 없는 강로인이 담담한 어조로 계속했다.

《...내 아까 리당비서동무를 만났을 때두 이 일을 두고 얘길 했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습디다. 그래 생각다 못해 이렇게 공구를 들고 나서는네 손자애가 기를 쓰고 따라나서는구려. 건 그렇구 이젠 하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때의 연재야적장을 찾을길이 없구려. 분명 이가까이 어딜텐데...》

로인은 마지막말을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리며 달빛에 휩싸인 사위를 다시한번 주의깊게 살피었다.

《할아버지, 뭘해요? 빨리 찾아보지 않나요?》

웃전에서 삼질소리와 함께 애된 목소리가 날아와 귀를 찌른다.

《원 녀석두, 허리를 굽힙시다. 이러다간 우리가 락후분자칭호를 받기 십상이겠소.》

로인이 황급히 꾸그리고앉는 바람에 이제껏 제생각에 골몰해있던 성식이라도 얼른 허리를 굽혔다. 문득 까닭모를 즐거움이 솟구쳤다.

불현듯 아득히 흘러간 시절 어린것과 숨박곡질을 하느라고 집안을 온통 뒤삶아놓던 일이 생각난다. 성식은 손에 잡히는대로 곡괭이자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밭치알의 땅을 힘껏 내리찍었다.

《아무리 짚어봐두 이바루 어디 있소. 그렇게 깊이 파느라 할것두 없다니까.》

강로인이 손에 든 삽을 땅에 힘껏 박으며 하는 말이다. 성식은 대답대신 걸쳤던 솜옷을 와락 벗어 불었다. 그의 일숨씨는 온 리가 다 아는것이다.

손에 거머쥔 곡괭이를 힘껏 땅에 박고 자루를 우썩 당길 때마다 땅겉질이 망작만 하게 번져진다.

토지개량에 연재가 어느만큼 좋은가는 성식이기도 알고있다. 게다가 그것도 이 등메동 턱밑에 묻혀있

으니 그야말로 사발속의 물고기 건지는 격이다.

예리한 곡괭이날아래 땅이 번져질 때마다 구수 무례한 흙냄새가 미쳐온다. 성식은 저도 모르게 실눈을 지으며 코를 벌름거렸다. 이런 때면 그는 만시름을 잊고 일에 심취되어버린다.

강로인은 성식의 원전에서 삼질을 했다. 구태여 경쟁할 상대자가 못된다는것을 깨달은듯 늙은이답게 슬렁슬렁 삼질을 하며 주근주근 이야기를 펼쳐놓았다.

《세월두 참, 우리 장군님께서 애석하게 서거하신지도 벌써 한해가 가까워오는구려. 사람은 슬픔을 겪어봐야 철이 드는가보오. 농장에서 해마다 땅때문에 애쓰는걸 보면서두 이런 일쯤 도와줄 생각을 내 왜 진작 못했겠소. 철이 덜 들었거던.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시려구 낮이나 밤이나 현지지도의 길에 계시던 어버이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고서야 이렇게 정신을 차리게 되는구려.》

성식은 지난 한해동안 농장을 위해 바쳐온 로인의 사심없는 수고가 얼마나 큰가를 잘 알고있다.

사람의 기억력이란 이남박과 같은것이여서 생활이라는 알갱이를 세월이라는 물결에 일고 또 일어 하얗고 부차적인것들은 가벼운 검불처럼 떠내려보내고 알쭉하고 무거운것들만 밀바닥에 소복이 가라앉혀 간직한다.

그 알쭉하고 무거운것이란 무엇이겠는가.

그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일생동안 보고 듣고 느끼며 가장 뜨겁게 심장을 달구었던 진실하고 생동한 생활의 조각들이 아닐까.

성식과 강승봉로인은 서로가 무거운 상념에 사로잡혀 그 조각들을 마음속에 추어올리고있었다. 한동안 삼질소리만이 간간이 울렸다.

성식의 마음속으로 뜨거운 감정의 물결기가 차올랐다. 후회, 자책, 가슴아픔... 나에게는 정말 할말이 몇곱절이나 많고많다.

뭐든 제기되면 담너머부터 목을 빼들고 기울거리고 나라창고만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으려 했던것도 그중의 하나가 아닌가.

바로 그렇게 일하다나니 아래사람들도 닦아 찍하면 우를 바라보며 그 어떤 특전을 바라는것이 아닌가. 오늘 아침 계획부원을 꾸짖기는 했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바로 자기의 생각 그대로였다.

바로 그의 모습에서 자기 얼굴을 보는것이 역겨워 그렇게 화를 냈다고 비로소 성식은 생각되었다.

그러고도 모자라 래일은 또 군에 들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손을 내밀려고 했지.

농장의 주인?! 아, 이 철딱서니야...

이때였다.

《위원장동무, 그만하구 이걸 좀 보시우. 우리가 바로 찾긴 찾았수다.》

강로인이 갑자기 탄성비슷하게 웨치며 흙을 한웅큼 떠들고 성식의 앞에 내밀었다.

성식은 얼른 받아들고 눈여겨 살피다가 손에 꼭 쥐고 부스러뜨려보았다.

틀림없이 석탄이 미처 연소되지 못하고 생긴 연재였다.

《웁습니다. 이게 연재가 웁습니다.》

가뜩이나 자신에 대한 가책과 혐오감에 차있던 성식은 거의나 부르짖다싶이하였다. 결국은 크지 않은 이 둔덕이 모두 연재무지인셈이다. 성식은 마치 놀다란 난알무지우에 올라선듯 한 환희를 느꼈다.

두사람이 손을 맞잡고 기뻐하는 웃음소리에 강로인의 손자가 삼을 질질 끌며 달려왔다.

《씨, 내가 먼저 찾는건데… 에이.》

그 애는 어른들에게 선손을 앓긴것이 분한듯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아니다. 이진 네가 찾은거다. 봐라, 네가 처음 파던 자리가 아니냐. 맞지요, 교장선생님?》

강로인은 대답없이 환히 웃기만 했다. 그야말로 자기가 한 일을 두고 더없는 만족을 느낄 때 짓는 그런 웃음이다.

이때 마을쪽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리며 여러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덜컹덜컹 달구지소리까지 함께 들려온다. 파아랗게 은빛으로 쏟아져 내리는 달빛속으로 달구지 하나를 앞세우고 우줄우줄 걸어오는 사람들이 시야에 안겨든다.

《…제길, 일은 저회반 일을 하면서두 한상 내긴 나보구 내라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등메동하구 몇년 씨름하더니 꼭 땅을 닦아버린게야.》

앞에서 달구지고삐를 쥐고오며 청을 둔구어 두덜대는것은 분명 털보수산분조장이다.

《이진 참, 제 좋아 이부자리 퍼면서두 아는 게정이야. 래년가올엔 내 이 등메동난알루 푸짐히 한상 차릴테니 그전까지 그 버릇 싹 고치라구.》

거친 목소리로 시답지 않으나 씩씩하게 응대하는 것은 뜻밖에도 4작업반장의 목소리인데 그 말에 따라오던 사람들이 꺾꺾 웃음을 터쳤다.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들앞에 서있는 성식이네를 발견하고 모두 서버렸다.

《위원장동지가 어떻게… 아니?! 선생님.》

먼저 다가온 4작업반장은 여기저기 파헤쳐진 주위를 둘러보고 모든것을 깨달은듯 고개를 떨구었다.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농사군이라는게 너무나 쉽게 제땅을 내놓으려 했으니… 위원장동지, 바른 주견도 없이 살아온 저를 욕 많이 하십시오.》

자신을 깊이 반성하는 옛제자앞에 로스승은 흐무

지게 웃었으나 성식은 그럴수가 없었다.

강로인과 사람들앞에, 나아가서는 이 땅에 보다 깊이 속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던것이다.

그는 4작업반장의 입을 빌어서야 리당비서 김형근이 리당에 가던 길에 들렀했다는걸 알았다.

《…어떻소? 반장동무, 둘우에도 꽃을 피울만한 정성이 우리에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소?》

김형근이 4작업반장에게 들려 했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강로인에게서 들은 옛 기와가마터소리를 하더라는것이다. 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그러잖아 속이 설똥했던 4작업반장은 곧 분조장들을 모여놓고 회의를 열었다.

분조장들이 당장에 펼쳐나섰는데 집으로 돌아가던 몇몇 농장원들이 여기에 따라섰다.

《그런데 수산분조장은 어떻게 여기 나타났소?》

성식의 의아한 물음에 털보수산분조장이 끌고온 달구지우에서 웬 나무단같은것을 와락와락 부리며 두덜거린다.

《오늘이 조금날이어서 바다물이 잘 찌지 않습니다. 그래 초저녁에 얼마 건지 못한 생산물을 싣고 들어오다 저 억지바우 4작업반장한테 걸렸지요.》

조금날이란 한주일을 주기로 하는 미세기현상에서 썰물이 제일 빠지지 않는 날이다. 그래 이런 날에는 썰물이 빠진 뒤 드러나는 바위나 감탕속에서 채취해야 하는 조개나 굴같은 수산물수확량이 제일 적다.

《뭐 오늘 밤 여기 등메동토지개량전투를 하는데 맞다든김에 후방사업을 하라는게지요. 질기기란 소심줄 한가지인데 저 사람이 등메동을 닦았는지 땅이 사람을 닦았는지…》

거푸시한 수염속의 두툼한 입술사이로 변죽질이 그치지 않았다. 달구지우의 나무단을 부리자 그 밑에 듬뿍 실린 주먹같은 굴이며 소라덩이가 드러났다.

화토불을 피워놓고 꺾질채로 굽자는것이다.

《조금날에 잡은것치군 량이 꽤 많구만.》

달구지에 실린것을 던지시 넘겨다보며 하는 성식의 말에 4작업반장이 수선을 떨었다.

《위원장동지도 아시지요? 저 털보가 생각은 바로 하는데 항상 입이 곱지 않거던요. 이왕 내는바하군 크게 낸다구 창고문을 열고 랑껏 담아실은겁니다. 수산분조실에 있던 장작까지 해서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모두들 싱글벙글 웃음을 금치 못하는데 성식의 가슴도 화로를 안은듯 따뜻해났다. 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가.

바로 그 순간 성식에게는 불현듯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으니 무언속에 던져지곤 하던 리당비서의 눈빛은 단순히 위원장의 사업작품만을 넘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

늘 받아오던 남다른 관심이 체질로 굳어져 무엇이나 더 먼저, 더 많이 받으면 그것을 웅당한것으로 여기면서 주머니를 벌리고 앞장서 달려가던, 그래서 이렇게 자각되고 양양된 자기 사람들의 속마음도 헤아리지 못한 성식이자신에 대한 말없는 힐난이었다. 이런 사람들을 곁에 두고도 쉽사리 땅을 내놓으려 하고 통나무수송문제도 전전궁궁했으니 아, 나야말로 눈 뜬 청맹파니였구나.

곧 모닥불이 타올랐다.

《자, 오늘 저녁은 오륙이 늘씬하두룩 제껴보세. 후방사업은 넘려말구...》

기세좋게 타오르는 불무지에 굴이며 소리를 연방 던져넣으며 수산분조장이 하는 말이다.

환한 불빛에 그의 얼굴이 타는듯 한데 어딘가 데설긋게 보이던 그 모습이 이렇듯 정답게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다.

잠간사이에 나지막한 이 등성이우에 삼질소리, 곡괭이소리에 사나이들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울려퍼졌다. 성식의 온몸에 무엇이라 이름할수 없는 새힘이 차올랐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 좁한 토지개량이 무엇이요 그까짓 목재수송이 무엇이랴.

프락토르가 고장났으면 차적재함에 바줄을 매어 끌고 어깨를 들이대여 밀어서라도 날라오자.

손에 들린 곡괭이날이 번뜩이고 땅이 푹푹 뒤번지는데 가슴속에는 생각이 끊임없이 고삐쳤다.

《관리위원장동지가 어디 있소?》

갑자기 뒤에서 찾는 소리에 허리를 펴며 돌아다보니 뜻밖에도 아침에 자기에게 곤욕을 치르었던 계획부원이 자전거를 끌고 달려온다.

무슨 일이 있는지 숨이 턱에 닿아 씨근거리는데 찹찹하게 작은 두눈이 연송 깜박인다.

《왜 그러오? 무슨 일이요?》

다그어묻는 성식에게 계획부원이 거칠게 숨을 토틈며 말한다.

《방금 나무실은 차들이 도착했는데 어쩔가요? 곧장 제재소로 날라가야지요?》

밀도 끌도 없이 이진 무슨 소린가. 나무실은 차들이라니...

《좀 차근차근 얘기하구려. 나무실은 차들이야 아직 길바닥에 주저앉아있을텐데 웬 소리요?》

그제서야 계획부원은 끌고온 자전거를 바로 세우고 사연을 이야기했다.

《농기계작업소장 말입니다. 엿저녁에 어딘가

다녀오다가 길바닥에 서버린 우리 프락토르를 본 모양입니다. 그 사람이 글썽 목재때문에 비료공장건설이 늦어져서야 뭇말인가고 하면서 오늘 첫 아침에 수리공들에게 부속까지 들리워서 내보냈답니다. 크랑크축이 나간 차는 아직 수리중인데 작업소에서 끌고나온 프락토르로 대신 끌고왔습시다.》

갑자기 머리가 뻥해났다. 그러고 고심하던 수송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풀리다니...

그런 속에도 성식은 경황없이 지시했다.

《뭘 더 생각할게 있소? 빨리 제재소에 날라다 나무를 켜야지. 그리구 운전수들은 좀 쉬우오.》

《쉬우는게 다 뭘니까. 당장 부리고 돌아서서 그새 밀진 봉창을 해야겠다구 욕욕하는데. 좌우간 알았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밤새 켜야지요.》

계획부원의 마지막말은 마을로 달리기 시작한 자전거우에서 던져진 것이었다. 성식이 그의 등뒤에 대고 운전수들을 꼭 식사시키고 밤참을 듬뿍 싸서 보내라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곡괭이를 왼 손에 다시 힘을 주려다가 무춤 굳어졌다.

아무래도 내가 가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성심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명색이 관리위원장으로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을수 있는가.

고개를 돌려보니 뽕안 달빛속에 계획부원의 뒤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잠시 물끄러미 마을쪽을 바라보던 성식은 인차 생각을 달리하였다.

고맙다는 인사치레가 무슨 필요이라.

계획부원이 말하는 기색을 보면 래일 저녁이나 늦어서 모래 아침까지면 목재수송이 끝날 것이다.

그때가서 한상 푸짐히 차려 대접하자. 군농기계 작업소장도 꼭 청하리라. 모두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인가.

가만, 그러자면 집사람이 와얏텐데 그때까지 동생네 집에 간 그 사람이 오기나 할텐가.

어디건 가면 세월없이 영치밀이 질겨 남편에게서 드문히 편잔을 듣는 안해이다.

그나저나 고마운 그 사람들에게 상다리가 버그러지게 차려내려면 헌걸차고 손이 결싼 안해가 있어야 할텐데.

딸 순희는 학교일이 바쁜데다 더우거나 아직 그런 일엔 뜻병아리였다. 어떻게 한다?!

리합속에서도 할수 있지만 그건 성의가 아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불시에 시장기가 몰려오며 참기 어렵게 속이 쓰려났다.

그러고보니 낮에 밥을 설친 생각이 났다.

안해가 없는 집에 가기 싫었던것이다. 남처럼 사근사근하고 곱살긋고 살뜰한 녀자는 아니다.

그러나 젊어서부터도 안해가 없는 집을 불꺼진 화로처럼 쓸쓸스럽게 여겨오는것이 50을 넘긴 이 나이껏 그 생각은 여전하였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파낸 연재를 한곳에 모으랴 법석이는데 성식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담배갑박에 잡히는게 없다.

부지중 한숨을 지으며 손에 든 곡괭이를 휘두르는데 누군가를 찾는 소리가 아슴푸레 들려왔다.

녀자목소리이다.

찾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와진다. 펍 가까와졌을 때에야 딸 순희의 목소리라느것을 알았다.

성식은 엉거주춤 일어서며 《어-》 하고 바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쏘아지는 달빛이 뿌옇한 등성이우로 웬 그림자 하나가 뚝달려올라오는것이 보였다. 연방 한쪽팔을 저으며 가까와진 그 그림자는 달려온 그달음으로 《큰아버지!》하며 성식의 가슴팍에 안겨들었다. 큰아버지라니?!

성식은 놀라 그의 어깨를 움켜잡고 달빛을 향해 달려세웠다. 명현이었다.

성식은 자기가 어떻게 조카애를 일싸안았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혈육의 정이란 자석과 같아서 서로 끌어당기게만 되는 모양이다.

평소에 그토록 속을 썩여준 녀석이건만 진작 서로 마주하고보니 팔이 아프도록 그리안게부러 되는 것이다. 순희가 뒤따라 올라왔다.

그의 발치에 노란 털이 보르르한 강아지 한마리가 밥알처럼 묻어돌아간다.

사람들이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상글상글 웃는 순희의 손에는 크지 않은 보꾸레미가 들려있었다.

《아버진 낮에도 식사를 안하셨더군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순희가 모닥불앞의 평지를 끌라 보자기를 풀며 하는 말이였다. 안해가 간날로 돌아섰다는게 우선 놀라왔다.

《허허, 네 어머니가 철이 들었구나. 헌데 내가 여기 있는건 어떻게 알았니?》

《사무실로 해서 사방 찾아다니다 계획부원아저씨를 만났지요 뭐.》

풀린 보자기안에서 뜻밖에도 목이 긴 병 하나가 나왔다.

《이건… 뭐냐?》

순희가 고운 웃음을 짓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설 명한다.

《오늘이 명현이 생일이 아니냐요. 그 애가 아버지한테 요긴하게 할말이 있대요.》

《요긴하게 할말이라니?...》

고개를 수긋한 명현이 성식에게 다가서며 주뭇 주뭇 대답하였다.

《큰아버지, 전 학교를 졸업하고 인민군대에 나가길 결심하였습니다.》

《으응?!》

《오늘 있는 신체검사에서 합격됐어요.》

《잡자기 어찌된거냐? 어머니가 승낙하시드냐?》

《처음에는 아무 말씀 없으시더니 하루 지나 〈잘 생각했다.〉 하시더군요. 큰아버지, 물론 어머니 내가 없으면 무척 외로울거예요. 하지만...

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마지막눈빛을 잊지 못하겠어요. 동지들을 구원하고서 그렇게 안도의 숨을 내쉬며 평온한 빛을 띄우셨던 그 눈이 나를 바라보실 땐 그만 온통 시름과 걱정의 빛이었어요. 〈저 철없는게 언제 체구실을 할가.〉 하는 말을 읽는것만 같던 그 가슴아픈 날을 난 정말 잊을것 같지 못해요.》

성식은 그만 뜨거운것이 목구멍을 짹 메우는것 같았다.

《명현아!...》 성식은 그의 팔만을 으스러지게 꼭 잡았다. 순희도 옆에서 《명현아!》 하고 꼭 잡긴 목소리를 겨우 내뱉으며 명현의 팔소매만 자꾸 쓸어내렸다.

명현은 마음을 다잡는듯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말을 계속했다.

《그래서 난 인민군대에 탄원한거예요. 아버지장군님께서도 생전에 선군은 최대의 애국이라 말씀하셨잖나요. 군사복무를 잘해서 응석꾸러기 외아들이 아니라 조국의 장한 아들이 돼서 돌아올게요. 그러면... 아버지도 걱정을 놓으실거예요. 큰어머니두 오늘 오셔서 어머니걱정은 아예 말라고 하셨어요.》

명현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성식을 슬쩍 쳐다 보았다.

그 서술에 그 애의 벌려진 입술사이로 대문이가 조각거울처럼 반짝하고 보였다.

(녀석두, 꼭 제 아버지질 닮았다니까.)

성식에게 조카 명현이가 이렇게 잘나보기는 처음이었다.

이 애가 그새 아버지를 여의고 어른이 되였는가.

한생을 타일러도 사람구실 못할것 같던 조카애의 돌연한 성장은 성식을 너무도 기쁘게 하였다.

아니, 이 한해사이에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성장하였는가. 어른들도 아이들도...

성식은 새삼스러운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었다.

하루종일 전야에서 보내고도 스스로 저녁늦도록 부식토를 장만하던 농장원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른다. 비록 말은 없어도 그들의 가슴속에 하나와 같이 저런 마음들이 짝 차있기에 온 한해를 피약별과 비바람속에서 묵묵히 별판을 가꾸었고 오늘처럼 마음은 벌써 새봄에 두고 이 땅에 사심없는 노력을 바쳐가는것이 아닌가.

불시에 성식은 가슴뿌듯이 솟구치는 새힘을 느꼈다. 이 가슴후련함을 리당비서 김형근이와 나누고싶었다.

그러나 성식은 이 시각 리당비서와 세포비서들이 복합비료공장건설장에서 목재를 부리운다, 지붕을 씌운다 하며 화불들을 켜놓고 왈작 뿜고있는줄은 감감 모르고있었다.

우등불은 더 기세차게 타오르고있었다.

굴이며 소라가 껍질채로 익는 냄새가 달작지근하게 풍졌다.

성식은 소리쳐 사람들을 우등불가까이로 불렀다.

강로인을 데려오고 순희와 명현이도 마주앉았다.

안 오겠다는 강로인의 손자까지 데려다 둘러앉으

니 좌중의 분위기는 한층 화기로와졌다.

명현이가 한무릎을 꿇고앉아 강로인과 성식의 잔에 차례로 술을 부었다. 그렇게 봐서 그런지 행동거지가 여간 진중치 않다.

강로인이 잔을 쳐들었다.

성식이기도 훈훈한 마음으로 말없이 잔을 들었다.

밀굽까지 말갈게 들여다보이는 잔속에 달도 들고 별도 들고 하늘과 모닥불전체가 다 들어 가늘게 떨리는 손끝에서 흔들흔들 춤을 춘다.

《관리위원장, 우리 올해에 농사를 잘 짓구서 금수산태양궁전에 찾아가자구.》

폭 잠긴 강로인의 말이였다.

다들 숨엄한 표정이다.

성식은 뜨거운것이 그들먹이 차오르는것을 느끼며 사위를 둘러보았다.

산도 잠들고 바다도 잠들고 유독 잠들지 않은것은 인간세상인듯싶었다.

무엇을 하는지 맞은편 원대산기슭에서도 불빛이 번쩍이며 툭툭툭 프락프락소리가 들려온다.

성식은 후련한 마음으로 고개를 뒤로 힘껏 제켰다. 잔속의 모든것이 천만구슬처럼 부서져 반짝이며 일시에 쏟아져내렸다.

상 식

일생 변하지 않는 생명기록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일련의 생리적특성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 생명기록으로 불리우는 다음과 같은것들이다.

△지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있다.

설사 피부가 벗겨진다고 해도 새로 자라난 피부의 무늬는 달라지지 않는다.

△입술

입술도 지문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있다.

입술은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를뿐아니라 유전성을 가진다.

△이발

이발은 사람의 신분을 확정하는데서 특수한 역할을 한다.

이발은 인체에서 가장 굳은 부분일뿐아니라 이발에 의한 모든 흔적을 그대로 보존한다.

또한 때 사람의 웃이발과 아래이발배렬도 서로

다르다.

△머리카락

머리카락속의 미량원소함량은 오줌이나 혈청속의 함량보다 10여배나 된다. 따라서 머리카락속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의 동위원소함량과 그 구조상 특징을 분석하면 사람의 나이, 남녀별, 피부색, 민족별, 건강 및 영양상태, 식사특징, 습관, 기호, 직업이 인체에 미친 영향 등을 알수 있다.

△피

피형은 일정한 특이성을 가지면서도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일생동안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형을 리용하면 사람을 식별하고 혈통관계도 검사할수 있다.

△체취

체취란 사람의 몸냄새를 말한다.

체취는 피나 지문과 마찬가지로 사람에 따라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므로 일정한 장치를 리용하여 분석, 감정할수 있다.

병사시절 나의 세로위원장

류 민 호

나의 첫 세로위원장

전후시기 병사시절 그날로부터
머리에 흰서리 내린 오늘까지도
잊지 못하는 사람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
떠날수도 없는 사람

내 하는 일에
먼저 어깨를 들이밀어야 할 때
심장을 내대야 할 때
내 량심에 구령을 주며
나를 지켜보는 사람

언제부터였던가
나의 가슴에 그 모습이
그렇게도 깊이 새겨진것은
잊지 못해라 정녕 잊지 못해라

공병작업의 나날에
힘한 벼랑을 뚫으며
발과구멍을 뚫어야 할 때
나보다 한발 앞서 허리에 바줄을 맨 사람

분분초초 시간을 다투는 훈련길
행군종대가 멈춰선 도하장
얼음 낀 강물에 수중다리를 놓아야 할 때
선참 가슴치는 물속에 뛰여든 사람

평범한 날에는 눈에 띄이지 않았다
땅속에 묻힌 보석과도 같이...
하나 결사의 각오 의지없인
쉬이 나설수 없는 곳에서
묵묵히 몸 바치기에 습관된 사람

그 사람이였다
내 때로 고열에 시달릴 때
배개머리에 찾아와
수건을 적서 아픔을 덜어주던

내 때로 말 못할 괴롭을 남모르게
가슴속에 안고있을 때
다정한 어머니의 목소리로
그것을 씻은듯이 가시여주며
마음속 지팡이가 되어주던

바로 다름아닌 그였다
참된 인간의 성실한 땀과 헌신으로
뜨거운 혈연의 정과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준 아, 그 모습

그는 나의 병사시절
군사규정의 교범대로
존경담아 직속상관이라 부르던
나의 첫 세로위원장이었다!

밑 거름

아침기상 구령과 함께
기쁨에 넘친 직일병의 목소리
—재빛토끼가 열두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중대전우들 토끼사로 달려갔다

토끼사 없는 중대 있으면만
멋쟁이 토끼목장 못 꾸린 살림이야
초소생활 흥성일수 없으리
끼니마다 토끼료리 푸짐한 식탁 앞에 놓고

그것만이 아니여라
흰눈이 펄펄 내리는 겨울에도
중대자랑인 온실
부루 쑥갓 오이... 푸르싱싱한 남새
병실 뒤마당엔 콩넉거리 둥실

호뭇하게 바라보며
《가마마차 달린다》 노래절로

새힘이 솟는 혼련길에
일당백 용맹 내려치지 않았던가

못 잊어라
당의 뜻 받들어
중대부업 잘해 나라부담 덜고
초소살림 풍성하게 꽃피우자고
술선 부업장이 된 사람

버림받던 산기슭의 새 땅 찾아
잡판목의 뿌리도 들어내고
돌들도 취내며 거름도 듬뿍
봄 여름내 구슬땀 동이로 쏟더니

밤새 남모르게
새끼날이 재빛토끼를 안고
시중들며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도
경사로 웃고 떠드는 전우들속엔 없었다

휘둘러 찾아보니

병실담벽에 조용히 기대여
그는 쪽잠에 들어있었다
얼굴에 미소를 밝게 지으며

오, 그렇구나
쪽잠속에 있어도
중대의 전우들을 모두 불러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

당이 바라는 일이라면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바치는 마음 송풍기가 되고
이끄는 마음 기관차가 되던

비록 말소리는 크지 않아도
술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병사들의 심장을 울리는
우리 세포위원장동지
꽃피는 중대살림의 밑거름이 됨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었더라!

등 불

밤 2시 엄동설한에
우리는 선로순회길에서
앞뒤로 길이 막혔다
오도가도 못하게

전주번호 202
선로고장은 퇴치됐으나
종일 내린 눈사태로
초소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다

나와 함께 온 구대원 상등병도
킁킁한 얼굴
초소장도 답답하여
담배를 꺼내들었으나
성냥까지 폭 젖었다

이때 선로에 련결한 전화종이 울렸다
낮익은 지휘관의 목소리
—기다리라
세포위원장이 간다!

순간
깊은 어둠의 바다에서
표류하던 작은 배가
구원의 등불을 만난듯
가슴에 들뛰는 안도의 숨소리...

눈사태를 헤치고헤치며
힘한 령을 넘고넘으며
기다리는 전우들을 찾아
그는 왔다

어떻게 달려왔는가
잡판목에 굵히워 피내배인 얼굴
나무옹이에 걸려 찢어진 군복자락
그 모습이 다 말해주었다

자신이 겪은 고생 감추고
흔연히 입가에 띄우는 미소
—이 배낭속에 먹을것도 푸짐하니
어서 불을 피우자구!...
가슴울리는 그 말에
우리는 종시 눈물을 쏟고야말았다

누가 강요한 곳도 아닌 곳에
누가 정해준 자리도 아닌 곳에
당원의 높은 자각 고결한 량심이
그를 떠밀어 세워주었나니

사나운 눈사태속에서
캄캄한 어둠의 심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전우들을 구원한 그 마음은
참다운 동지애의 등불이었다!

깨우지 말자

머칠만에 통잠을 잤는가
꿀맛같은 통잠이다
규률에 엄격한 사관장도
이 아침만은 한시간이나
기상시간을 늦췄구나

열흘낮 열흘밤
넘고넘은 산은 얼마며
건너온 물길은 얼마인지
흔려길 천리를 돌고돌아
어제 밤에야 병실침대에 누워 잤구나

그런데 이 어인 일인가
이 아침 직일병의 기상구령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그는 일어날줄 모르니

—췌! 깨우지 마오!
규정밖에 모르는 사관장도
느슨히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의 앞을 막아서누나

좀더 자게 하자
강행군길에 쪽잠마저 잔적 없는
그는
세 포위원장

우등불앞에서
잠에 든 병사들이 추울세라

삭정이라도 덧놓으며
대원들의 신발도 말리워주며
행군의 긴긴날 잠도 모른 사람

신입병사의 배낭도 벗어메고
칼벼랑도 앞장서 오르고
깊은 강을 건널 때는
혜염서툰 대원들도 떠밀며

세뭇 네뭇을 하면서도
식사당번을 도와
쌀도 일고 칼장단도 올리며
중대의 만형 만누이가 된 사람

이 아침만은 깨우지 말자
그의 쌓인 피로 덜수만 있다면
우리 아꼈것이 무엇이라
마음놓고 푹 쉬게 하자

병사들 너나없이 뜨거운 생각
저런 세 포위원장동지와 함께라면
깊은 강 높은 령도 단숨에 넘으리
불비속의 사선도 웃으며 헤치리

아, 대오의 기수인
우리의 세 포위원장동지
온갖 시름 다 잊고 좀더 자게
휴식일 이 아침만은 깨우지 말자!

상 식

세계의 주요인종과 그 분포에 대하여

인종이란 살색, 머리카락, 골격구조 등 여러가지 겉모양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큰 집단을 말한다.

매개 인종들은 피줄과 언어, 지역의 공통성에 의하여 많은 민족들로 나누어진다.

세계에는 황인종(아시아대인종), 흑인종(아프리카대인종), 백인종(유럽대인종)이 있다.

• 황인종—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부아시아 나라들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나라들에 많이 살고 있으며 아메리카(인디언, 이누이트인)와 유럽에도 일부 살고있다. 세계인구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 흑인종—아프리카의 대부분지역과 오스트랄리아, 인디아, 태평양의 많은 섬들에 살고있다. 그리

고 아메리카에는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아프리카로부터 노예로 팔려간 흑인들이 살고있다.

흑인종은 세계인구의 10%이상을 차지한다.

흑인종은 크게 수단흑인(적도이북에 살고있는 흑인)과 반투흑인(적도이남에 살고있는 흑인)으로 나눈다.

• 백인종—주로 유럽과 남, 북아메리카, 서남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나라들에 살고있으며 인디아의 북부와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살고있다.

백인종은 크게 슬라브족, 게르만족, 라틴족으로 나눈다.

슬라브족은 유럽주의 동부와 서부에 주로 살고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게르만족계통의 앵글로색슨족들이 많이 살고있다.

《작가가 수필을 홀시하여서는 안된다. 수필을 아담하게 잘 쓰면 소설이나 시보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울릴수 있다. 작가라면 평생에 사람의 기억에 남는 좋은 수필을 적어도 몇편씩은 내놓아야 한다. 수필은 산문으로 씌여진 한편의 정교하고 아담한 서정시와 같은것으로 되여야 한다.》

김 정 일

수 필

우리의 행복을 두고

리 태 윤

아침마다 나를 꿈속에서 깨우는것은 밥지으며 부르는 안해의 나직한 노래소리다.

오늘의 이 행복을 그 누가 주었나
로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

사방은 고요에 잠겼다. 애들은 아직도 머리를 맞대고 평화롭게 풀무를 불고 아득한 하늘끝에서 들려오는듯 장작불 튀는 소리가 탁탁거린다. 새벽녘의 아늑한 가정적정서, 언제까지나 그 세계에 잠겨있고싶다.

허나 나는 일어나야 한다. 저녁에 물높이를 조절해놓고 들어온 물고들이 밤새 무사한지 근심스럽다.

《좀더 설겄 그랬어요.》

달게 하품을 하며 마루에 나서는 나에게 안해가 건네는 첫말이다. 나는 묵묵히 마루밧에서 신발만 더듬어 신을뿐이다. 늘 듣는 소리여서 이제는 대꾸하기조차 싱거워졌다.

창고에서 자루 긴 물고삽을 찾아들고 돌아섰을 때 안해는 벌써 마루위에 깨알이 동동 떠도는 콩국사발을 올려놓았다. 이것 역시 해마다 이맘때면 늘 보게 되는 우리 집의 《풍속》이다. 식전 논고물을 보러 나가는 남편을 위해 기울이는 안해의 이런 정성에 마흔고개를 넘어선 오늘까지 고뿔 한번 모르고 사는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콩국 한사발을 단숨에 들이키고 마을길에 나선다. 날뽕을무렵의 들판대기는 차다. 흰 연기 솟구치는 굴뚝들을 사열하듯 지나 날듯 한 걸음으로 대자연의 품에 뛰어드는 나의 가슴속에는 새삼스레 내 일터에 대한 긍지와 자부가 그들먹이 차오른다. ...

한배미 또 한배미... 직기를 순회하는 직포공마냥 논물관리공한테도 정해진 순회길이 있다. 이상없는 논고들을 돌아보며 마음내키는대로 물높이를 조절하는 나의 손발은 날개가 달린듯 하다.

내가 맡은 구간은 분조의 논면적 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절반 돌고났을 때 불그레 달아오른 동산마루에 아침해가 불끈 솟아오른다. 제일먼저 빛을 반겨 해사하게 웃는것은 푸른 잎의 이슬방울들이다. 령롱하게 반짝이는 그 빛에 채색되어 온 들이 샅시에 생기를 띠며 명랑해지는데싶다. 줍이 벌게 아지를 친 벼포기들은 산들바람에도 키를 솟구며 새실거리고 그사이로 목을 버쩍 솟군 물닭이란 놈은 의뭉스럽게 암놈을 부르느라 《똥-똥-》거린다. 그에 질세라 자기의 《고운》 목청도 합류하여야 한다는듯 짜악짜악 울어대는것은 샘터논에 사는 소발통만 한 왕개구리이리라.

거세게 기지개를 켜며 움쉴거리는 대지, 생의 희열로 약동하는 자연, 그속에 창대마냥 기다란 삽자루를 비껴잡고 우뚝 선 나는 참으로 만물의 령장이라는 뿌듯한 긍지를 느낀다. 이 벌이야말로 진정으로 근면하고 성실한 우리 농민들에 의하여 가꾸어지고있지 않는가.

물닭이며 벼포기며 개구리며 이제는 바람마저 이벌의 주인인 나와 낮익어졌다.

이쯤되면 나는 킁킁한 목구멍을 지지느라 독초한대를 두툼하게 말지 않고서는 못 견딘다. 삽자루를 깔고앉아 두발을 논물에 잠그고 눅눅하게 젖은 아침대기속에서 폐장깊이 들이켰던 담배연기를 코와 입으로 슬금슬금 내보내며 포전길끝에 잇닿은 마을을 이윽히 바라보느라하면 마치 이 아침의 광휘로움이 내 손끝에서 이루어진듯 흐뭇하기 그지없다.

김매는기계가 달려나온다. 하얀 비료포대를 실

은 소형트랙포트가 그뒤를 물었다. 벌이 끊기 시작한다. 걸음먼저 웃음소리를 앞세운 녀인들이 걸어 오는데 그뒤로 느낌이 따라선 사내들의 걸음걸이는 오리무리를 거느린 계사나마냥 장히 거드름스럽다. 청높은 목소리로 요즘 한창 유행인 새 노래를 뽑아 제끼는것은 아마도 앞에 선 어느 처녀인가를 홀리는 느티나무집 둘째의 소리리라.

《분이 아버지— 분이 엄마가 걱정해요. 아침식사 하시래요—》

처녀 하나가 콩알처럼 툭 튀어나오며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손끝에서 나뭇기는 머리수건이 유난히 불길처럼 빨갛다. 아닌게아니라 출출하다.

나는 논고바자에 걸린 검부레기를 슬금슬금 걸어내면서도 눈만은 논두렁을 따라 이쪽으로 다가오는 안해에게서 떼지 못한다. 이제 오면 또 지청구 일것이다. 농장일은 혼자서 다 하는가, 늘 밥심부름을 시킨다는등… 참 녀자들이란 정을 쥐도 저렇게 툭툭거려야 제맛인가.

따뜻한 기대속에 앞에만 정신을 파느라 나는 분조장이 다가오는것을 몰랐다.

《작황이 어드래?》

웅글은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니 분조장이 시물시물 웃으며 서있었다.

《또 그 소리, 분조장은 늘 첫 인사가 그저 그 소리지.》

그러자 분조장은 허리를 제끼며 청높이 웃었다. 뽕내고싶을만치 잘된 작황에 웃음이 헤퍼진 분조장을 보느라니 나 역시 웃음집이 흐물거렸다.

한바탕 웃고난 분조장은 오늘 해야 할 일을 뜨직뜨직 더놓았다. 네벌김매기, 비료치기, 두렁콩사리… 그것은 분조의 작업계획이었다. 나는 거기에 이리쿵저리쿵 자기 소견을 덧붙였다. 이를테면 두렁콩사리는 어디가 급하고 비료치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논물관리공의 《견세》란 이런것이다.

하늘에서는 7월의 폭양이 내려쬐이고 부그그 뚫어오르는 논물에서도 확확 열기가 풍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속에서 김을 매고 풀을 깎으며 비료를 뿌려야 한다. 보다 진지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터—여기에 불꽃튀는 건설장이나 용해장과 다른 농사일의 영웅성이 있는것이다.

기나긴 하루해가 누엿누엿 넘어가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올 때면 하루일을 마친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간다. 붉게 타는 노을, 거뭇한 산그림자, 반짝이며 미소짓는 집집의 창문들, 황소의 긴 영각소리가 들판에 흐르고 어둠을 불러내는 들의 《가수》들이 《안삼불》을 맞춘다. 그무렵 나는 나의 친근한 《가수》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며 유아등을 켜다. 그다음에야 논머리를 나선다. 그때면 마을의 창가마다에 파아란 형광등빛이 흐르고 숨박꼭질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골목에서 울린다.

불밝은 창문,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듣노라면 하루의 피곤이 씻은듯이 사라지고 또다시 온몸

에서 약동하는 청춘의 새힘이 솟는다.

나는 정다운 안해와 아이들이 기다릴 내 집 문턱을 넘어선다.

《아버지, 형이 2등했어요, 2등.》

언제 보나 나를 제일 반가와하는것은 인민반 2학년생인가 하는 막녕이다.

《오빠가 학과경연에서 2등했어요. 그래서 래일도에 간대요.》

누가 가로첼세라 둘째가 목청을 돋군다. 전국학과경연을 앞두고 군에서 예선을 한다더니 큰놈이 당선된 모양이다.

《거 이왕이면 1등을 하지 못하구.》

《원 욕심두. 2등두 크잖우, 중등반 5학년 수학문제가 나왔대던데.》

《그럼 그 애가 5학년인가?》

《쫓쫓, 장한 아버지 다 보우. 그 애가 지금 4학년 아니요.》

《허허허.》

나는 웃고만다. 사실 나는 셋뿐인 자식들의 학년을 삭갈리곤 한다. 그런들 어떠리. 애들은 무력무력 잘 자라고 공부 잘하는데야 누가 날더러 아버지 구실 못한다고 책망하던가.

저녁상에서 물러난 애들은 숙제를 한다고 책상에 마주앉고 나는 베개에 비스듬히 기대여 텔레비존화면을 바라본다. 화면에는 학교와 일터를 잃고 거리를 헤매는 자본주의나라 청소년들의 모습이 엇바뀌어 나타난다. 지하도바닥에 누워있는 거지, 보석으로 치장한 애완용개가 그옆을 지나간다. 껌을 질경거리며 한때의 소년들이 물켜서있다. 생의 목적도 희망도 의욕도 없는 그들의 눈빛은 공허하기 그지없다.

《야, 저 애들은 학교두 안 가나? 길바닥에서 어물거리구있구.》

텔레비존화면에 유심히 눈길을 주고있던 작은놈이 심드렁하게 뇌이는 소리다.

《자본주의사회의 거지애들이야.》

딸애가 되알지게 소리치자 작은놈은 짙끔해서 목을 움츠리면서도 제 할말을 다 한다.

《체, 저만 아는것처럼. 돈이 없어 학교에 못 간다는거 나도 알아.》

《너희들은 왜 또 으르렁거리니. 얌전하게 공부나 하지 않구.》

설것이를 끝낸 안해가 문턱을 넘어서며 하는 소리다.

《교양시간이야요, 계급교양.》

딸애의 소리다. 누이라고 이젠 말도 제법 씨떡게 할줄 안다.

《공부를 잘해야 대학에두 가구 박사두 될게 아니야요, 오빠처럼. 그렇지요, 엄마?》

《야, 형 빨리 박사됐으면 좋겠다. 난 그럼 박사네 동생이 될텐데.》

작은놈이 쭈르르 달려가 엄마 치마자락에 매달리

며 응석을 부린다. 저건 키만 엄부럭하게 크지 속은 아직 유치원아이다.

《엄마,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하지요?》 딸애가 두손으로 턱을 받친채 하는 소리다.

《그래, 행복하지.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있지 않니...》

나는 생각에 잠긴다. 남다른 만족만이 행복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일할 걱정, 살아갈 걱정 없고 맘놓고 애들 키우는 우리 집. 아니, 우리 분조, 우리 마을, 온 나라 어느 집을 가보나 우리 집과 조금도 다른없는 생활이다. 여럿이 똑같이 누리는 만족이어서 더구나 마음 편하고 즐거운 우리네 생활, 이것이 바로 우리 식의 사회주의적인 행복이다.

그렇다. 안해가 그것을 모를리 없다. 아침마다 밥지으며 부르는 노래만으로도 그는 너무나도 행복에 겨워있다. 그것이 공기처럼 몸에 익어서 그 존재자체를 망각할 때는 종종 있어도 오늘의 이 행복을 안겨주고 꽃피워주는 어머니당의 고마움에 보답하려는 마음이야 어데 가랴. 그래서 일육십삼은 나를 남달리 위하여 애쓰고 자기 역시 밤낮없이 뛰여

다니는것이 아닌가. 오늘도 좋지만 래일은 더 좋아지리라는 확신이 달리는 발걸음에 박차를 가하게 한다.

잠자리에 들며 나는 안해에게 부탁한다.

《여보, 아침일찍 깨워주오. 벼가 알설이를 시작했어.》

마음 폭 놓고 두발 쪽 펴수 있는 이런 밤이면 뒤동산의 소쩍새울음소리도 유난히 밝게 들려온다.

가뭇가뭇 잠이 실려온다.

래일 아침이면 안해는 늘 부르곤 하는 그 노래를 또다시 흥얼대다가 시계를 보고 놀라며 나를 깨우겠지.

잠결에 그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듯 하다.

...

세상에 두려운것 하나도 없네

산이라도 옮기고 바다라도 막으리

김일성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언제나 힘이 솟네 오직 한마음

주체80(1991). 7.

포전의 휴식참이야기

심 복 실

포전의 휴식참

농사일엔 박사라 하시더니

막내딸벌 되는 날더러 선생이라며

포전머리 학생되여 배움에 극성인 아바이

따끈한 고구마까지 슬며시 쥐여주며

차근차근 설명해달라 독촉이시네

겉싸기란 온 농장에 따를 사람 없는데도

이 봄의 잡도리가 여간 아닌 저 녀인

끝끝한 딸 셋을 군대에 보내고

달구지채가 휘도록 군량미 보내겠다고

끼니마저 잊고사는 봄순아머니

정말 이 봄엔 잠도 없는가봐

모판에 다들 나와서

울농사 잘 짓자고 버르는 분조원들

지난가을 토방에 쌀가마니 쌓아놓고

눈물흘리던 그 사연 쏟아놓네

그 많은 쌀과 현금분배를 그냥 받아야 옳은가

수령님 한평생 두렁길 걸으시며

농장마다 포전마다 기쁨지워주시고

허리펴고 농사지으라 기계도 보내주며

물걱정할세라 물길도 시원히 열어주셨지

살찐 땅에 이삭인들 살찌지 못할가

수령님 배워주신 주체농법에

장군님 가르쳐주신 종자혁명 두벌농사방침

우리 분조포전에 꽃피운 보람

집집의 처마아래 찾아들지 않았던가

토방에 그득그득 쌀가마니 쌓아놓고

겉산분배하는 날엔 장군님 그리워

다들 눈물 글썽 할말을 못했지

받아안은 분배뭇에 뜨거운 마음 없어

애국미를 나라에 바치였지

아, 포전머리 휴식참 논물소리도 정다운데

어떻게 하면 울농사를 더잘 지을가

박아바이 토양연구 끝날줄 모르고

봄전야에 풍년들었네 사랑의 이야기

자꾸만 자꾸만 마음을 덥혀주는

그 은정이 고마워 고맙기만 하여서...

단편소설과 작가의 독창적인 형상탐구

— 단편소설집 《새벽바다》를 평함 —

최언경

단편소설집 《새벽바다》(신용선 작)에는 11편의 단편소설이 실려있다.

이 소설들을 통해 본 사상에술적특징은 한마디로 다른 작가들과 구별되는, 다른 단편소설들과도 같지 않는 작가의 독창적인 형상탐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그 고유한 형상생리에 따라 수령 형상소설과 일반소설로 나누어 논하려고 한다.

1. 수령의 위대성형상과 이민위천

단편소설집 《새벽바다》중의 5편—《다래나 무지팽이》, 《마지막휴식》, 《우리 수령님》, 《새벽바다》, 《아름다운 추억》이 수령형상작품이다.

이 5편의 수령형상소설들은 하나와 같이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담담하고 잔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잔잔한 강물은 쉬임없이, 거침없이 흐르고흘러 수령의 위대성이라는 그 크나큰 바다의 거창함과 아름다움을 한껏 더해주고있다.

그 사상미학적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에 맞게 수령의 위인적품모에서 기본을 이루는 귀중한 종자를 튼튼히 틀어쥐고 시종 거기에 고운 꽃을 피우고 알찬 열매를 맺게 하려는 작가가 바친 고심어린 창작적사색과 독창적인 형상탐구에 있다.

이 단편소설들의 기본종자는 숭고한 인덕과 위대한 인덕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인덕이란 인민을 끝없이 믿고 사랑하는 덕망을 두고 이르는 말이며 인덕의 철학이란 인민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마땅한 도리로 여긴다는 뜻이다.

수령의 위대성에서 천출위인으로서의 인간적 위대성은 숭고한 인덕에 집약된다.

그 위대한 인덕의 철리가 이 세상 그 누구도 창조하지도 체현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한 이민위천이다.

이민위천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고 지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민위천〉, 인민을 하늘같이 여긴다는 이것이 나의 지론이고 좌우명이였다.》

위대한 이민위천이야말로 일찌기 인류사가 알지 못하는 가장 혁명적이며 현실적인 혁명철학이다.

한것은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이 그들자신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고 혁명의 담당자, 그 주인도 인민대중이라면 그 인민대중을 하늘처럼 여기는 사상이 바로 위대한 이민위천이기때문이다.

참으로 이민위천은 망망대해의 근원을 이루는 샘파도 같이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 나아가서는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모든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영원한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단편소설집에 수록된 수령형상소설들은 조선혁명과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처럼 거대한 운명적의의를 가지는 이민위천을 종자로 튼튼히 틀어쥐고 독창적인 사색과 형상탐구로 훌륭히 실현함으로써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참으로 격이 높고 철학적 깊이가 있게, 진실하고 감명깊게 인간학적으로 잘 형상할 수 있었다.

단편소설들은 무엇보다도 그 한편한편이 모두가 그 어떤 요란한 사건이나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나라 어디서나 볼수 있는 가장 평범한 생활속에서 로동자, 농민, 어로공, 방목공과 같은 이 나라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인간관계속에서 수령의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그 위대한 인간사랑, 인민사랑의 세계를 참으로 가식없이 진실하게 그려내고있다.

평범한 속에서 비범성, 위대성을 도출해낸것이야말로 수령형상의 성과를 담보하는 독창적인 사상미학적요인이다.

이름모를 갖가지 풀들이 발등을 물어버릴 정도로 자란 오솔길을 지나 저 멀리 산중턱에 자리잡고있는 한채의 자그마한 귀틀집, 1년 사시창철 누구도 선뜻 발길을 돌리지 않는 여기에서 아버지와 함께 염소 150마리, 양 100마리를 기르고있는 순박하고 아름다

운 방목공처녀 봄순이(《다래나무지팡이》).

이런 험한 곳에 다래나무지팡이를 짚고 찾아오시여 봄순에게 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물으심, 《봄순아, 깊은 산속에서 외로울 때가 많지?》

처녀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양과 염소들한테 정이 들어서 일없다고 아뢰었으나 고개를 저으시며 다시 하시는 수령님의 말씀, 《영화판에도 구경가고 명절날이면 동무들과 같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싶은 마음이 간절할거다. 그것을 모두 참고 견디겠지...》

이 눈물겨운 인정의 세계를 두고 작가는 10년세월을 하루와 같이 수령님을 보좌해온 책임부관 리준호의 속생각을 빌어 이렇게 말하고있다.

...수령님께서서는 보통인간의 상식으로써는 도저히 그 진가를 알거나 이해할수 없는 자신의 독특하고 크나큰 기쁨과 행복관을 가지고계시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을 베풀어주는 기쁨과 행복이며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도 선뜻 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시는 천품이 가져다드린 위인의 기쁨과 행복이었다....

이것이 바로 인덕의 철학, 위대한 이민위천인 것이다.

단편소설 《우리 수령님》에서도 수령님의 상대인물은 10여년세월 시험포전에서 수령님의 일손을 성실하게 도와드리고있는 박성근로인, 강동땅에 가시였을 때 등짐으로 물을 길어 강냉이모를 애써 기르고있던 처녀분조원들 그리고 평양산원에서 아들 세쌍둥이를 낳은 이름모를 풍산아주머니이다.

두달동안이나 비 한꼬치 떨어지지 않는 봄날씨를 두고 그렇게도 애를 태우시며 밤잠조차 이루지 못하시면서도 생신날에마저 성근로인과 함께 시험포전에서 일손을 잡으시는 수령님, 물지계를 지고 다락밭으로 오르던 처녀분조원들의 모습이 가슴에서 내려가지 않으시여 그들에게, 전국의 모든 농장원들에게 비웃과 사출장화를 마련해주도록 하신 아버지수령님, 세쌍둥이가 태어난것은 나라가 흥할 징조라 그리도 기뻐하시며 이름도 모를 풍산아주머니를 위해 생신날 향일의 너투사들이 삼가 올린 닭곰과 곰발통목을 보내주도록 하시는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이민위천의 좌우명은 그대로 우리 장군님의 한생의 좌우명이다.

단편소설 《새벽바다》에서 보는바와 같이 우리 장군님께 있어서 사무치게 정이 끌리시는것은 역시 이 나라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 그지없이 소박하고 진실한 우리 인민이다.

망망한 새벽바다, 설레이는 물결우에 떠있는 한 척의 자그마한 전마선을 보시고 주저없이 쪽배에 오르시는 우리 장군님.

이렇게 하여 그이께서 만나신것은 젊은 시절의 프랄선 영웅선장, 지금은 유치원아이들에게 국거리라도 마련해주려고 전마선을 타고 낚시질을 하는 환갑을 넘긴 김근혁로인이다.

바다속 진주를 찾길라도 하신듯 기꺼운 마음으로 로인과 그리도 다정히 이야기를 나누시는 장군님.

로인은 하루에 물고기를 백키로는 넉넉히 잡는다고 아뢰인다.

이런 사람을 대하시며 그이께서는 그의 심장속에 수천톤의 물고기와도 결코 바꿀수 없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샘줄기가 출렁이고있음을 확신하시며 이런 인민, 바다처럼 웅심깊은 참된 애국자앞에 머리를 숙여 절이라도 하고싶은 심정이 되시여 《고맙습니다. 영웅아바이, 아바이는 나에게 크나큰 기쁨과 힘을 주었습니다. 이 새벽바다를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신다.

한가슴에 받아안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위대성에 접한 근혁로인은 자기가 한생을 두고 이 세상에서 제일 넓고 깊은것은 오직 바다뿐이라고 생각해왔는데 그 바다라는것도 장군님의 크나큰 품속에 안겨 출렁이는 하나의 작은 세계라는것을 가슴벅차게 받아안는것이다.

이처럼 단편소설집의 수령형상소설의 모든 상대인물들은 누구라없이 평범한 사람들, 소박하고 진실한 인민들이다.

그러나 평범하다고 하여 그들의 격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인간의 격은 결코 직위의 높고낮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상정신세계의 높이에 의하여 규정되는것이다.

그들은 비록 이 나라의 바다와 방목지 그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평범한 보통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정신세계는 더없이 순결하고 고상하며 아름답다.

수령형상단편소설들에서 류달리 정겹게 안겨오는것은 또한 그 한편한편이 마치 한쪽의 아름다운 풍경화와도 같고 한편의 정교한 서정시와도 같은 정경묘사이다.

서정이 없는 문학은 향기없는 꽃과 같다.

단편소설들에서의 그윽한 정경묘사는 작품에 아름다운 서정미를 한껏 더해주고있으며 그것이 위인들의 숭고한 내면세계와 조화를 이루면서 그 위대한 인간의 세계, 이민위천의 세계를 펼쳐보이는데 커다란 형상적기여를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문가로 다가서시여 맞으시는 환희로운 봄날의 아침정경이다.

《이제는 태양이 퍼그나 높이 떠올라 정원의 나무잎사귀들과 잔디, 진달래와 살구꽃들이 불길에 휩싸인듯 타번지고있었다.

해빛은 강물우에도 낮추 비쳐 강줄기가 살아움직이는것 같았다.

노을빛이 사라지는 하늘가에선 봄을 기뻐하는 새들의 지저귀이 그칠줄 몰랐다. 창밖의 모든것, 나무잎사귀며 꽃송이며 강물은 우줄우줄 춤추고 사람마저 대지의 푸른 한끝으로 손저어 부르는듯싶었다.…」

매일 아침 여기 창문가에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실적마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새 세계가 탄생하는것만 같으시여 마냥 가슴이 부풀어오르시는 수령님이시였으나 산원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으신 이 아침엔 더욱 무량한 감개에 젖어들게 되시었다.

그이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다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고, 더우기 세쌍둥이가 태어난것은 나라의 큰 경사라고 하시며 이런 의미에서 풍산아주머니는 오늘 아침 자신께 큰 기쁨을 주었다고 하신다.

작가가 그랬듯이 봄날의 아침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보다 비할바없이 더 아름다운것은 인간의 행복,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는 위인의 그 한없는 세계이다.

단편소설 《아름다운 추억》에 펼쳐지고있는 여름밤의 정경이다.

《길옆에서 인기척에 놀란 개똥벌레들이 파아란 불을 달고 날아올랐다. 우짓던 풀벌레들도 울음을 그쳤다. 모든것이 어둠에 잠겨버린 사위는 한결 고요하였다. 이따금씩 바다쪽에서 불어오는 가벼운 바람결이 여름밤의 어렴풋하고 상냥스러운 속삭거림에 보탬을 주느라 나무잎사귀들을 흔들었다.

푸른 달빛아래 펼쳐진 강냉이숲은 한창 피기 시작한 개꼬리들을 한들쭉거리며 신선한 대기속에서 우줄우줄 춤을 추고있었다.

바닥없이 깊어만지는 생각속에서 그이께서는 가슴속에 젖어드는 여름밤의 신묘한 리듬과 알수 없는 음향에 귀를 강구시었다.

그것은 신록의 계절을 맞이한 비옥한 대지가 열매를 살찌우고 무르익히는 자연의 왕성한 맥박이었으며 자연의 다함없는 송가였다.

이제 머지않아 가을이 오면 둔덕아래 다락밭 강냉이숲은 팔뚝같은 이삭을, 해당화넙쿨은 빨간 열매를, 잎새무성한 나무아지숙에 보금자리를 튼 못새들은 알깨운 새끼들로 풍요하고 기름진 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할것이다.

좋은 계절, 비옥한 대지… 우리 사람들의 생활, 특히는 아이들의 생활에도 반드시 그런 계절, 그런 대지가 있어야 한다. 그것도 자연이 점지하고 살찌우는것보다 몇배, 몇수십배 풍요하고 비옥한 생활

의 계절과 생활의 대지여야 할것이다. 한점의 그늘도, 순간의 고통도, 티끌만 한 부러움도 있어서는 안될 그런 계절, 그런 대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안겨주어야 한다.…」

생활의 매 순간마다 무르익히고 굳혀오신 결심이였지만 이밤따라 그것은 류달리 그이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한것은 명절때면 아버지가 더욱 보고싶다는 《청년》호 기관장의 아들애의 목소리가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으신것이다.

불현듯 그이의 뇌리에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만지는 유년시절 생일날에 있었던 추억이 되새겨지시었다.

함박눈이 펄펄 내려쌓이는 밤 그이께서는 어머님과 함께 멀리 현지지도의 길에 계신 아버님을 기다리시었다.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새벽이 되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시었다.…」

얼마나 서운하셨던지.…」

만리 먼바다 고기잡이에 나가 생일날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그리는 아이의 섭섭한 마음을 자신의 추억에 담아 절절하게 받아안으신것이다.

그리하여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생일을 맞는 어로공의 아이들을 위해 손수 선물을 마련하시고 수산부문 어로공들이 아이들의 생일과 맞물려 휴양을 하고 휴가를 받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역시 하나의 여름밤 정경에도 온 나라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숭고한 인덕의 세계가 가슴뜨겁게 비껴있는것이다.

단편소설들에서 독자들의 초점을 모으게 하는것은 또한 풍부하고 진실하고 뜻이 깊은 인상적인 세부묘사이다.

단편소설들에는 주옥같은 세부들이 참으로 많다.

다래나무지팡이, 봄비, 한그릇의 강냉이밥… 그 작은 세부들에는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끼듯이 위인들의 숭고한 인덕의 세계가 참으로 가슴뜨겁게 어려있다.

어버이수령님의 생신날 검소하고 소박한 식탁우에 오른 한그릇의 강냉이밥을 대하여 항일의 녀투사들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데 있는가고 하며 눈물에 젖어있는데 우리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에서 싸울 때부터 나의 제일 큰 소원은 우리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고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을 쓰고 살게 하자는것이였소.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소원을 풀지 못했소.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루 세끼 흰쌀밥을 목으로 넘길수 있겠소.》라고 말씀하신다.

하시며 인민들이 자신을 《수령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일을 더 많이 하겠다는 결심을 하지 인민들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옷을 입을 생각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었다.

보통사람들도 생일날이면 흰쌀밥을 먹는데 우리 수령님의 이런 인민사랑의 세계를 두고 우리 어찌 감격에 목메이지 않을수 있겠는가.

감격에 겨워 눈물에 얼룩진 봄순이의 얼굴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주시며 이제 평양에 가면 텔레비전촬영가들을 보내줄테니 그때엔 울지 말고 곱게 웃으며 찍으라고 다정히 이리시는 아버지수령님.

그러시면서도 자신의 지평이를 보면 봄순이와 그 아버지가 지평이를 불안고 울것이라 하시며 그만 봄순이네 집 잣나무밑등에 세워둔채 그대로 온 다래나무지평이를 가져오라고 굳이 책임부판을 되돌려보내시는 수령님.

근혁로인의 청대로 그의 전마선에 옮겨타시어 로인이 권하는 가재미회를 보시며 이런 경우를 생각하여 술이라도 한병 가져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랴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시며 아버지장군님께서 그에게 기념으로 주신 푸른색보호안경...

참으로 단편소설들을 가득채우고있는 뜻깊은 세부들은 그 작은 하나로 바다보다 더 넓고 깊은 위인들의 숭고한 인간애, 인민사랑의 세계를 감명깊게 그리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경험은 작가가 수령의 위대성을 이루는 가장의 의깊은 종자를 튼튼하게 심어놓고 고심어린 창작적 사색과 독창적인 형상탐구로 그것을 형상으로 훌륭히 실현할 때 단편소설 그 하나하나로도 수령형상에서 높은 사상예술적성과를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2. 애국충정의 참된 전형창조

단편소설집 《새벽바다》에는 5편의 수령형상 작품과 함께 《세대를 이어》, 《나의 선생님》, 《해당화 피는 도래굴이》, 《밤길》, 《스승》, 《휴양소 5호실》등 6편의 일반소설들이 들어있다.

이 소설들은 단편소설의 형태적특성에 맞는 묘사문제, 작가의 실속있는 현실체험과 문학의 진실성문제 등 많은 미학적문제들을 시사해주고있으나 가장 중요한것은 참된 애국충정의 인간전형을 훌륭히 창조한것이다.

참된 애국충정의 인간전형창조는 인간학으로서의 문학의 본도인 동시에 수령과 인민의 관계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수령이 위대하여 인민이 위대하고 내리는 사랑이 있어 오르는 충정이 있는 법이다.

우리 인민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 만만시련을 이겨내며 일편단심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아들여온 인민이다.

단편소설집 《새벽바다》는 애국충정으로 특징지어지는 우리 인민의 참된 전형을 훌륭히 창조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은 수령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으며 수령에 의해서만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지켜지고 담보됩니다. 그렇기때문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것이자 수령에게 충실하는것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곧 애국심의 발현으로, 애국주의의 최고표현으로 됩니다.》

단편소설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애국충정의 참된 전형들이다.

매 농장, 매 농가에서 토끼를 기를데 대한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기 위하여 다섯개나 되는 토끼새끼가 든 상자를 이고 토끼목장으로부터 농장까지 40리나 되는 밤길을 걷는 월봉농장의 생기발랄한 처녀 혜정이, 방금 견습공생활을 마친 손자 철혁이를 로동자자격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기차까지 타고 수십리길을 가서 산골양수장의 양수기를 점검하고 수리해주는 양수기할아버지, 교육사업에 한생을 성실히 바쳐 교정에서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운명까지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실천하는 중학시절의 옛 담임선생 안국철...

이러한 애국충정의 전형들을 창조하면서 작가는 그 애국충정은 반드시 인간스스로의 량심의 정화로 되어야 함을 공감이가게 강조하고있다.

《작업복이나 입고 망치나 쥐었다구 그리고 제가 로동자라고 말한대구 해서 다 로동자로 되는것은 아니야. 진짜배기로동자는 그가 만들고 수리한 기계들이 말해줘...》

이것은 양수기할아버지가 손자 철혁에게 하는 말이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충정의 대를 변함없이 이어가기를 바라는 친혈육의 간곡한 당부라고 할 때 참으로 새 세대들을 위하여 심각한 교양적의의를 가진다고 해야 할것이다.

단편소설에 그려진 충정의 전형들은 또한 직접적인 성격충돌은 물론 첨예한 갈등속에 서있지는 않으나 자신의 실천적모범으로 상대인물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결함과 모자라는 충정을 두고 량심의 거울에 비쳐보게 하고있다.

이것은 새로운 혁명적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사람들에게 대한 충실성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미학적으로 볼 때에

는 갈등문제해결에서의 새로운 탐구라고 해야 할 것이다.

폐컨대 《밤길》에서 혜정이와 만난 군농촌경영위원회 위원장 김석민은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으며 어떤 경우든지 사업의 중심을 정확히 포착하고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뚜렷한 성과와 시범을 창조할 줄 아는 로숙하고 유능한 일꾼이다.

이러한 그였지만 아버지수령님께서 다녀가신 영광의 땅의 딸답게 수령님의 교시대로 토끼를 기르기 위해 기꺼이 밤길을 걷는 새벽이슬처럼 깨끗한 어린 처녀와 만났을 때 《본보기》를 마련하기 위해 눈비를 헤치며 조급하게 뛰어다니던 자기의 밤길을 괴롭게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편소설집 《새벽바다》는 또한 실속있는, 몸배인 체험만이 생활의 진실을 안아오며 그만큼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과 여운을 줄 수 있다는 귀중한 창작물리를 보여준다.

소설들에는 두메산골 외진 곳으로부터 드넓은 바다, 오붓한 한 가정과 교단, 지어 휴양소의 한 호실에 이르기까지 실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와 다양한 생활이 각이한 양상으로 펼쳐지고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자, 농민, 방목공, 교원, 과학자 등 각이한 직업의 평범한 사람들이 등장하고있다.

그러나 작가는 그 다양한 생활과 각이한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체험담이기라도 한듯, 그것이 자기 자서전의 한토막이기라도 한듯 전혀 어성버성하거나 어색하지 않게 그 진수를 파고 들어가 아주 자연스럽게, 매우 자신있게 형상을 펼쳐가고있다.

단편소설 《스승》에서 제자인 《나》가 중학교 시절의 옛 담임선생이었던 안국철선생, 이제는 머리에 백발을 날리며 지팡이에 의지하고 서있는 그를 보는 순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는 절대로 안되는 선생님의 모습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몇년동안을 잊으면서 살아왔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모습.

그런가하면 옛날 중학교시절에 자기가 배워준 제자이며 지금은 기계대학의 한다하는 교원, 학자가 된 《나》가 잡지에 발표한 논문을 두고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뻐하다가 뜻밖에도 그 논문이 남의 글을 본따고 모방해 쓴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분격으로 하여 《사람이 어찌면 그럴 수 있나?... 랑심을 속이다니!...》라는 외마디 말을 남기고 창살같은 비속으로 휘청거리며 걸어가던 옛 담임선생 안국철...

이러한 형상은 다년간의 교원경력을 가지고있는 필자로 하여금 내심의 감동을 금할 수 없게 하는 생활의 진실이다.

단편소설집 《새벽바다》에 대하여 끝으로 강조하고싶은것은 묘사문제이다.

단편소설은 기교를 떠나 단편소설의 예술성을 논할 수 없다.

앞에서도 본바와 같이 단편소설집의 소설들은 묘사에서도 자기 얼굴을 보여주고있다.

《게다가 바람까지 터져 하늘과 땅은 눈보라장막으로 짙은 안개속처럼 흐릿하였다.

하지만 절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어서 습습하고 부드러운 촉감이 완전한 그런 눈, 그런 바람, 그런 날씨였다.

대지는 겨울과 봄이 이어지는 계절의 한계점에서 비상이 들끓고있었다.》(《세대를 이어》)

이것은 사나운 겨울을 몰아내며 웃으며 찾아오는 따스한 봄의 서곡이다.

단편소설들에서 이러한 묘사는 인간형상과 밀착되고있는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같은 소설에서 굵은 거목의 참나무와 그 씨앗에서 움터나고 자란 어린 참나무에 대한 묘사에서 뚜렷하게 상징되고있다.

《철혁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거목이었다. 그것은 깨끗한 로동계급의 랑심에 뿌리를 박은 마음속의 아름다드리나무였다.

철혁은 미풍에 설레이는 거목의 푸른 잎새들의 속삭임속에서 웃으며 잠들었고 봄과 함께 새움이 트는 아지우에서 즐거운 새처럼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

단편소설들은 초상묘사, 심리묘사에서도 특기를 보이고있다.

《김석민은 걸음을 멈추고 혜정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다. 류행의 흔적도, 감미로운 향수나 분냄새도 감촉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심장에 세찬 박동과 뜨거운 열기를 확확 끼쳐주는 처녀였다.》(《밤길》)

여기서 독자들은 주인공의 그 얼굴외형이 아니라 아름다운 정신미를 읽게 된다.

같은 소설의 심각한 심리묘사의 한대목이다.

《그 고통이 가슴을 쥐어비틀수록 김석민은 오늘에야 드디어 깊은 잠에서 깨어난듯 한 느낌이 들었다. 동시에 자신이 걸어온 수많은 밤길들과 오늘 밤에 동행하게 된 나 어린 처녀의 밤길이 눈앞에 서로 엇갈리면서 괴로움을 더한층 휘저어놓았다.》

수년간(1981년부터 2008년까지의 작품이 수록되어있으니 만 27년간이다.)에 걸치는 작가의 고심 어린 창조물을 두고 길지도 않은 단문으로 평한다는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며 어찌 보면 외람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작품이 있으면 평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짙막한 글이 작가의 앞으로의 창작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강 계 이 웃

—강계—초산행 버스를 타고—

기 경 호

결모습부터가 미남이다.

은은한 쥐색갈바탕의 옆구리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글발을 듬직하게 두르고 햇빛에 대형차창을 번쩍이며 차사업소마당을 빠져나오는 버스를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씩 바라보곤 한다. 운행을 시작한지 근 1년이 되어오긴만 마치 처음이나 보는듯이 말이다.

《강계—초산》

목적지를 또렷이 밝힌 버스앞시창의 글발을 새삼스럽게, 또 뜨거움에 젖어 속으로 읽어보기도 하면서...

안은 또 어떤가.

폭신폭신했던 의자, 한겨울의 강추위가 감히 범접을 못하게 하는 온풍기의 훈훈한 열풍.

《아, 거 창문 좀 열지.》

덥다는 소리다. 배부른 투정...

《아니, 지금이 오이꽃 날아들 땐가 하지 않소?》

누군가의 악의없는 힐난에 가볍게 일어번지는 웃음의 파도, 잔파도...

나의 마음도 후덥게 달아오른다.

어찌 온풍기의 훈풍때문만이라.

들을수록 가슴후덥게 하는 이야기, 우리 시대의 이야기... 우리 제도의 고마움에 대한,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인민사랑에 대한...

《예구, 강계가 어디라구...》

어딘가 푸념비슷한 이 말.

이곳 초산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구처럼 굳어져버린 말이였다.

내가 처음으로 이 말을 들은것이 언제였던가.

그렇지. 그제 대학입학시험때였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다.

시험장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후에는 한학급 동창이라는 인연을 맺게 되었던 초산내기 고수머리 총각이 있었다.

합격자명단게시판앞에서 부모친척들에 에워싸여 기쁨을 나누는 수험생들과는 따로 떨어져 홀로 서있던 그.

입학시험에서 합격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어딘가 서운함을 감추지 못하던 그 표정이 무척 눈에 걸렸었다. 어머니랑 왜 함께 오지 못했느냐는 나의 물음에 채 끝을 가무리지 못하던 초산청년의 말.

《강계가 어디라구...》

그때 나의 뇌리에 인박한것이 초산이 멀긴 멀구나 하는 생각이였다.

격강이 천리라는 말도 있듯이 추포령을 위시하여 높은 령만도 여러개 넘어야 하는 수백리려행이 너무나 고달파 이곳 사람들은 어지간한 결심이 아니 고서는 강계행차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했다.

출가간 딸이 첫 손자를 보았다는 기별을 받고도, 군대에 나가는 막내아들이 첫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고싶으면서도 선뜻 용단을 내리지 못했었던 지난날의 이야기...

사람들은 흔히 생활상문제 하면 먹고 입고 쓰고 사는것만을 손꼽는다.

물론 옳다, 그것이 1차적요구이니까.

그러나 이 식의주문제의 개선도 교통운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더우기 교통을 떠나 문명을 론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교장 사람들은 도시문명도 추포령이 너무 높아 넘어오지 못한다고들 했다던지...

《자, 박수.》

누군가의 청높은 소리에 뒤이어 터져나오는 박수소리.

려행하는 손님들이 즐거우라고 차장처녀가 노래 한마디 하겠단다. 인물품고 책임성있는데다 봉사성 또한 높아 인민들의 평이 좋다고 한다. 게다가 노래 또한 명창이라니 무척 기대되였다.

《제가 먼저 부르고 그다음은 지명의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말 못하게 아예 오금을 박는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 장군님

어머니라 부릅니다 우리 장군님

...

청맑은 소리.

은은하고 절절한 서정가요의 선율이 끊어졌던 나의 생각을 다시 이어준다.

세월을 두고 어찌면 숙명으로만 여겼던 이 교장 인민들의 그 교통상불편, 생활상애로를 과연 어느분이 말끔히 가져주셨던가.

몹소 버스대수까지 계산해보시며 농촌버스화의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조국을 떠나면서

정 화 수 (총련)

조국이여
내 이제 날이 새면
그대 품을 떠나노라
구름길은 저 이국의 하늘아래로
다시 돌아가노라

그대 품에 안기여
길지 않은 나날이었어도
내 한생을 두고 느끼지 못한
그렇듯 뜨거운 마음을 안고가노라

그 몇번이나 내 조국을 찾아왔건만
어찌하여 불밝은 수도의 거리를
내 잠 못들고 걸었던가
푸른 벚포기들이 설레이는 논머리를
쉬이 떠날수 없었던가

내 무거운 마음 안고온 이 걸음
이제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노라
어려울수록 더 억세여지고
시련을 맞받아 붉은기 더 높이 들고

나날이 번창하는 나의 조국이여

뜨거운 걱정
깊어지는 생각
잠 못이룬 조국의 마지막밤
새벽창문을 열고
이 마음 시줄에 담아 남기노니

그대 품에 처음으로 안겼을 때
무릎 꿇고 절을 하던 이 아들
그대 심어준 신념으로
저 주체사상탑우에 꺼질줄 모르는
불길의 화광을 담아
밝아오는 새벽하늘에 줄줄이 새기노라

김정일장군님의 나라
내 조국보다 더 좋은것
세상에 없어야

주체89(2000)년

자애로운 그 영상이 안겨온다.

통학버스, 통학승용차, 통근렬차...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인민사랑의 전설을 펼쳐가
신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그 한생이 가슴에 젖
어온다.

그 숭고한 애민의 뜻을 이으시여 오늘날에는 자
강도내 산골군들에 사랑의 려객버스를 보내주신 우
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

모든 행복 꽃피우고 지켜주신 삶의 품
이 세상 제일 고마운 **김정일**장군님

어느덧 합창으로 변해진 노래.

가슴마다에 밀물쳐오르는 삶의 위대한 은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

이제는 이곳 사람들이 강계이웃이라고 스스로 없
이 말하고있다.

초산땅에 생겨난 새로운 말, 강계이웃!

나에겐 이 말이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우리 당의 웅
심깊고 변함없고 날로 더 뜨거워지는 인민사랑에
대한, 그 사랑이 현실로 꽃피나는 우리 시대에 대
한 열렬한 찬가로 안겨왔다.

더더욱 고조되는 노래소리.

희열과 행복에 벅찬 려행자들의 얼굴.

이런 고마운 제도를 위해 힘을 바치고 땀을 바치
며 심장을 불태워갈 맹세, 열의가 누구의 가슴엔들
소중히 깃들지 않으랴.

취재길에서 만났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인
첫 신년사 관철을 위한 진군길에서 첫걸음부터 남
다른 실적을 올리던 초산군내 일군들과 인민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오른다. 여기 버스안에도 낮익은
얼굴들이 눈에 띄운다.

아버이의 사랑을 신고, 그 불같은 보답의 열정
을 신고 버스는 어느덧 강계땅을 가까이하고있었
다. 작막령의 굽이굽이를 따라 내려갈수록 더더욱
가까와오는 서산거리 대통로며 크고작은 고층건물
들, 활기띤 사람들의 모습...

아, 이렇게 가까워지고있구나, 우리의 생활과
도시문명이.

이렇게 가까워지고있구나, 우리 인민들이 사회
주의문명국에서 온 세상이 부럽도록 잘살게 될 그
날이...

달려라, 사랑의 통마여!

자강땅 높고높은 령들과 더불어 불멸할
절세위인들의 인민사랑을 강성번영의 세월과 더불어
어 길이 전해가며...



내 고향의 작은 다리

로 정 법

1

성호네 집에서 얼마쯤 나가면 맑은 시내가 흘렀다. 언제나 노래하며 흘러가는 그 시내가에는 한사람씩 건느기 좋게 놓여진 돌다리가 있었다.

그 다리목에서 성호는 늘 한 처녀와 어졌다.

처녀는 제사공장에 다니는지 다리를 건너 이쪽으로 넘어왔고 성호는 반대로 처녀가 오던 방쪽길을 따라 자기가 일하는 자동차사업소로 가곤 하였다.

때는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개선연설을 받아안고 온 나라가 새 조국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기 시작하던 1945년 11월경이었다.

공장들에서는 아직 연기가 오르지 못했고 농촌에서는 두더지처럼 세상의 변천을 믿지 않는 살찐 지주들이 여전히 긴 대통을 내흔들며 농민들을 못살게 굴고있었으나 여기 맑은 시내가의 작은 돌다리로는 벌써 새생활에 나선 사람들의 활기있는 발걸음이 시작되고있었으니 처녀도 그가운데 한사람으로 짐작되었다.

아침이면 좁은 다리목은 건너가고 건너오는 출근자들로 흥성거렸다.

점잖은 축들은 서로 먼저 건너오라고 양보를 하였으나 장난이 심한 젊은 패들은 서로 먼저 건너가겠다고 밀치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었다.

그 사람들속에 가끔 가다 세루조끼에 금시계줄을 늘인 유지풍의 사나이와 모시두루마기를 입고 팔자걸음을 하는 시골량반들이 섞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면 《타도》라는 말을 아침인사말처럼 쉽게 번지며 다니던 어느 젊은 친구가 그들을 막무가내로 떠밀고 건너가서 약간의 소동이 일어나곤 하였다.

다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밝지 못했다.

대개가 컴컴한 색깔의 작업복에다 신문지에 뭉고

린 점심밥팩을 겨드랑이에 끼고있었고 촌에서 나무 팔러 들어오는 지게군들은 아직 짙신발이었다.

처녀도 마찬가지였다.

몇십전짜리 코고무신 한켄레가 다 큰 처녀를 울리던 악독한 지난 세월의 자취는 처녀의 몸에 아직 그대로 배여있었으니 늘 보아야 처녀는 군데군데 덧천을 대고 기운 물바랜 깡장치마에다 품이 좁아 보이는 흰 저고리를 입고 땀질자리를 감추지 못한 고무신을 신고다녔다.

처녀는 매일 아침 제일먼저 다리를 건너왔다. 보통사람들이 한창 조반상을 받고있을무렵이었다.

그때면 성호도 다리 부근에 가있곤 하였다.

오노라는 회사주임놈이 도망가며 마사버린 12대의 자동차가 그의 손을 기다리고있었다.

그 자동차들은 해방과 함께 나라의것으로 된 사업소의 총재산이었다. 그때까지도 성호는 탄폭한 운전사의 술심부름까지 들어주어야 했던 해방전 조수의 때를 벗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그 차들을 수리해볼수 있는것은 그와 다른 몇사람뿐이었다.

성호는 그들을 책임지고있었다. 그래 신새벽에 사업소로 나가고 밤늦어 돌아오곤 하였다. 아마 처녀도 자기와 비슷한 리유로 해서 새벽길에 나서는 것이라고 성호는 생각하였다. 처녀가 다닌다고 짐작되는 제사공장 역시 오래전부터 숨을 죽이고있었기에...

그래서 성호는 이른새벽마다 인적없는 호젓한 다리목에서 처녀를 만나게 되었고 말없이 길을 어졌다.

처녀는 늘쌍 뛰여다녔다. 원래 걸음새가 그렇게 보일 정도로 언제나 총총히 뛰는 자세였다.

해방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언제나 뛰는 처녀! 그래서 성호가 그를 눈여겨보

게 된것인지도 몰랐다.

성호는 운전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결눈을 팔지 않고 앞만 보는 버릇을 키워왔고 어느덧 그에 습관되어 이제는 길을 걸을 때에도 주위사람들에게 무관심하였다. 그런데도 처녀는 차앞으로 뛰어드는 그 어떤 장애물처럼 성호의 눈에 자주 걸려들곤 하였으니 그럴 때마다 성호는 그것이 무엇때문이었는가고 혼자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그늘에서 핀 꽃인듯 아련하고 양기없는 얼굴, 그 얼굴 어딘가에 늘썩 비껴드는 그 어떤 서글픔과 곱을 먹은듯 한 표정, 점심밥곽을 들지 못해서인지 허전해보이는 차림새...

왜 그런지 보면 불적마다 쓸쓸한 생각을 머금게 하는 처녀였다.

간혹 가다 처녀는 성호가 다리를 건너 방둑길을 한참 갔을 때에야 마주올적도 있었다. 그런 날이면 처녀는 자기가 늦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에 발개진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서 성호의 곁을 지나쳐서는 더 빨리 뛰어가는것이였다.

《늦지 않았습시다. 오늘은 내가 좀 일찍 집을 나섰는걸요.》

하지만 성호가 그런 말을 할 사이면 처녀는 벌써 저 멀리에 가있었다. 반대로 성호가 늦어지는 날도 있었는데 그때면 성호는 《오늘은 내가 늦었구만요.》하고 알은체를 하였다.

그래도 처녀한테서는 매일 이렇다할 응대가 없었으니 처녀는 그저 무엇에 쫓기우듯 한시바삐 성호의 곁에서 멀어지려고만 하였다.

다리목이 아닌 다른 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만나는 날은 드물었다.

두사람은 다섯시반경이면 시계처럼 다리의 량쪽에 나타나곤 하였는데 처녀는 먼저 다리로 건너오다가도 성호를 보면 얼른 멀찌감치 비켜서서 그가 먼저 건너오기를 기다려주었다.

언제 보아도 늘 그렇게 해주는 처녀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여 하루는 성호가 우정 다리 이쪽에 서서 그를 기다려준 일이 있었다.

처녀는 먼저 건너오려 하지 않았다. 성호 역시 어떻게나 그에게 양보하고싶은 마음이었다.

왜놈들이 마사버리고간 공장, 이제는 우리의것으로 된 공장을 살리기 위해 하루같이 새벽길에 나서는 처녀(성호는 그렇게 확신하고있었다.)에게 그런 행동으로써나마 리해의 뜻을 표시하고싶어서였다.

《어서 건너오시오.》

성호는 웃으며 처녀를 바라보았다.

처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처녀는 고무신의 땀자리를 감추듯 오른발을 왼쪽 신발 가장자리에 꼭 가져다붙이고 해가 방금 솟아 오르려고 하늘이 불기우리해지고있는 동쪽으로 돌아서서 《새벽부터 너자가 어떻게 남자들의 앞을

지를수가 있나요.》 하는 태도로 서있었다.

성호는 다시한번 웃으며 처녀를 재촉했다.

그러자 처녀는 잠자코 다리에서 물러섰다. 그리고는 자기를 보며 웃고있는 성호를 경계하는 눈길로 바라보더니 도망치듯 내기숨을 따라 아래쪽으로 종종걸음을 치기 시작하였다.

성호는 아연해서 그 모양을 바라보았다.

달구지들이 건너다니는 저 먼 아래쪽에서 처녀가 신발을 벗고 물을 건느기 시작했을 때 그것을 보는 성호의 심정이 어떠했으랴.

동지달도 다 가는 때라 첫새벽의 내물은 어릴듯 찰것이다. 하지만 처녀는 그보다도 성호가 따라올가 겁나는지 이쪽을 자주 바라보며 허둥지둥 물을 건너갔다. 그리고는 인차 성호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무엇이 그를 놀래웠는가. 인적이 없는 호젓한 강변에서 새벽마다 나타나서는 늘 뭐라고 말을 걸어오는 알지 못할 남자를 경계하는것인가.)

그러자 가슴아픈 한토막의 추억이 묵은 상처를 건드리듯 성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제사공장쪽에서 굶주린 늙은 야수의 울부짖음 같은 아침고동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스러져갈무렵인데 다리너머편에서 한 처녀가 엎어질듯 달려오고있었다.

성호는 처녀가 늦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다.

성호는 출근시간이 늦은 제사공장처녀들이 어떤 봉변을 당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그 공장 정문에는 생겨먹은 상판대기부러가 징글스럽기 짝이 없는 오십줄의 왜놈수위가 있었는데 늙은 짝하면 처녀들의 치마폭을 와락 거머잡아올리며 종아리를 치곤 했다.

언제인가 그런 치욕을 당한 한 처녀가 정문앞 버드나무에 목을 매고 죽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성호는 자기도 늦어 뛰던 길이었지만 처녀가 먼저 다리를 건너오도록 비켜섰다. 처녀는 사양하지 않고 허둥지둥 다리에 올라섰다.

얼음이 깔린 다리는 미끄러웠다. 낮에 녹았던 눈이 밤새 다리에 얼어붙은것이였다. 성호는 그런 다리 위에서 처녀가 너무 덤벼치는것 같아 가슴을 조이며 서있었다. 일은 바로 이때에 일어났다.

성호의 뒤를 따라오던 오노의 아들이 닝큼 다리에 올라서며 처녀를 막아선것이였다.

다리북판에서 늙은 무작정 처녀의 손목을 잡으며 그를 희롱하려 들었다. 성호도 어쩔 사이가 없이 처녀가 풍덩 물속에 뛰어들었다. 성호는 그 모양을 보지 말자고 눈을 짙 감아버렸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돌아보니 처녀는 방둑에 앉아 울고있었다. 성호는 다시 눈을 감았다.

재빛으로 흐린 하늘에서 찰라니이 홀날리던 추운 아침이었다. 역쪽에서 징용으로 끌려가는 아들을 쫓아가며 울부짖는 어머니의 통곡소리런듯 기적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다.

한참 가다 성호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신발 한짝을 벗어든 처녀가 내기슭을 오르내리고 있었다.

아마 다른 한짝을 잃어버린 모양이었다.

그 일이 있던 며칠후 성호는 내아래전에서 우연히 고삭은 버들뿌리에 걸려 얼어붙은 코고무신 한 짝을 보았다.

금방 사진은듯싶은 새 고무신이었는데 신코에는 바귀우지 말라고 흰실로 새겨놓은 +표식이 있었다. 빙하에 포위되어 오도가도 못하고 얼어붙은 쪽배처럼 얼음에 묻힌 그 고무신을 보고있으려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동태대加里인줄 알았는지 까치 한마리가 버들가지에 날아와앉아 그 고무신을 내려다보며 깍깍 거렸다.

그날부터 그 고무신은 제 짝을 찾아 다리엎, 눈에 잘 띄우는 돌우에 반듯하게 놓여있었다.

고무신은 한동안 지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며 그렇게 놓여있었다. 그러다가 없어져버렸는데 그 후 어느날 +표식을 한 그 고무신을 신은 처녀가 다시 다리를 건너오는것을 보았을 때 성호는 얼마나 기뻐던가.

그때부터 성호는 은연중 처녀의 보호자로 나선 자신을 보았었다.

이제 또다시 어느 놈이 그에게 집적거린다면 이번엔 무작정 개굴창에 처박으리라 베풀면서... 하지만 왜놈들이 망하자 베풀던 그 마음까지도 어느결에 사라져버렸다.

이튿날부터 처녀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자기를 피하여 어디 먼데로 돌아다니는것 같았다.

성호는 등지밀에 받침대를 고여주려다가 거기에 놀라 날아가버린 제비를 볼 때처럼 마음이 허전하였다.

언제 가면 가슴에 멍이 든 우리의 누나들이 허리를 쭉 펴고 길을 가도 저렇게 구석진데로가 아니라 복판으로 활보하게 될것인가?

보름만에야 처녀는 다시 다리에 나타났다.

오, 겁많은 《제비!》

그날부터 성호는 몰래몰래 모이를 뿌려놓으며 조심스런 날짐승을 자기의 보금자리로 불러들이는 심정으로 처녀를 대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번 놀란 제비는 도무지 결을 주려 하지 않았으니 성호가 한발자국 다가서기만 해도 벌써 날아오를 태세로 날개를 가다듬는것이였다.

그렇게 반년 남짓한 나날이 흘렀다.

그동안 사업소에서는 12대의 자동차에 모두 발등을 걸었다.

그날은 제일 심하게 마사졌던 성호의 자동차가 마저 살아나 시운전을 하던 날이였다.

성호는 운전기술을 배워준다면서 돈도 몇푼 안주고 자기를 종처럼 부려먹던 오노란 놈과 운전대를 한번 빌리재도 술병을 섬겨야 했던 주정뱅이운전사를 저주하면서 나라가 자기한테 맡겨준 자동차의 운전대를 잡고 사업소마당을 천천히 한고패 돌았다. 그리고는 정문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갈것인가? 어디로든 일있는가? 앞길은 저렇게 환히 열렸는데...

공장도 우리의것, 땅도 우리의것, 병원도 학교도 재판소도 우리의것이다.

《장군님의 부르심따라 모두다 민주주의의 새 조선 건설예로!》,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매진하자!》

성호는 자기의 집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다.

새벽에는 자기를 두드려깨워 일 늦겠다 재촉해주고 저녁이면 저가락소리가 덜렁거리는 밥곽을 받아주며 차가 살아나자면 멀었는가고 자기보다 더 애타게 오늘을 기다려온 어머니에게로.

제사공장앞을 지나려니 밝은 창으로 기대사이를 누벼가는 처녀들이 보였다.

흰 연기 피어오르는 공장굴뚝...

어제는 황철에서 첫 쇠물을 뽑고 홍남에서 비료를 낸다더니, 청진에서 기관차를 떠나보내고 어느로동자휴양소가 문을 열었다더니 오늘은 이 공장이 돌고있는것이였다.

수고했구나. 아침마다 만나는 처녀야, 숨결처럼 고르로이 들려오는 저 기대들의 동음속에 너의 땀도 스뚫음을 나는 믿는다.

성호는 정문옆에다 차를 세우고 공장경비원한테로 다가갔다. 왜 그런지 그와 담배라도 나누며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나누고싶어서였다.

수고했다는 성호의 인사에 경비원은 몹시도 반가와하였다.

《어제 오늘은 인사를 받을내기 정신이 다 땡합니다. ...》

성호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운전칸에 올랐다.

장거리앞을 지나는데 구멍 뚫린 법랑소랭이를 잔뜩 쌓아놓고 그것을 때느라 연물을 녹이고있던 외삼촌이 그를 알아보고서는 차앞을 막아섰다. 삼촌은 한다리밖에 없는 몸을 버둥거리며 무작정 운전칸으로 올라와앉았다.

《종구나. 어서 장마당을 한바퀴 빙 돌고 가거라. 오늘은 잃었던 한다리를 찾은것만 같구나. 나도 어제부터 일을 시작했다.》

성호는 그날 외삼촌과 어머니 그리고 동네조무래기들을 한차 가득 태우고 그들이 가자는데로 차를 몰았다. 그때로부터 한달이 지나 성호는 처음으로 생활비와 상금이 든 불룩한 돈봉투를 어머니한테 가져갔다.

어머니는 외삼촌어머니와 같이 상점으로 나가

여름양복 한벌과 흰 운동화 한켠레를 사가지고 들어왔다.

성호는 낡은 세상의 때를 벗어던지는 심정으로 리발과 목욕을 하고 새옷을 입었다.

어머니는 그가 벗어놓은 헌옷들을 수매소로 가져갔다.

성호는 오랜만에 잠을 푹 자고 느지막해서 출근길에 나섰다. 난생처음으로 새 양복에다 사치한 흰 운동화를 신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만 쳐다보는것 같아 쑥스러웠다. 하긴 그래서 더욱 날아갈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해방 한푼이 다가오고있는 맑게 개인 7월의 아침이었다. 밤새 내린 비로 불어난 시내물이 썩소리를 내며 흘러가고있는데 물따라 올라온 고기를 잡는지 반두를 든 한 로인이 내기슭을 한가하게 오르내리고있었다.

성호는 다리목으로 다가가며 오늘은 처녀를 못만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자기네가 만나던 시간은 다섯시반경이었기에...

개울건너에서 한 처녀가 다리로 다가오고있었다.

하늘색치마에다 잠자리날개같은 모시적삼을 입고 흰 코고무신을 신은 멋쟁이처녀였다.

그는 다리목으로 들어서다 성호를 보더니 얼른 한옆으로 비켜서서 그가 먼저 건너오기를 기다려주었다.

바로 그 처녀였다.

한창나이의 처녀로서는 차마 입고나서기 거북한 그런 옷차림으로 다니던 처녀, 그래서 항상 머리를 들지 못하고 다니던 처녀가 자기처럼 이전 세월의 때를 씻어던지고 새사람이 되어 나타난것이었다.

돌고있는 제사공장, 생활비와 상금이 함께 든 볼록한 돈봉투, 새옷을 입혀주며 눈굽을 적시는 어머니, 수매소로 가져가는 헌 고무신...

처녀를 보는 순간 성호의 눈앞을 화면처럼 스쳐간 광경이었다.

이때 역쪽에서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부터 정시로 운영하기 시작한 평양쪽으로 가는 아침차가 떠나는 소리였다.

성호는 매일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처녀와 만날수 있다는것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도 계속...

궤도우를 정시로 달리기 시작한 저 기관차처럼 우리의 생활도 이제는 제 길에 들어서서 힘찬 첫걸음을 내디디었기에...

《동무, 오늘은 아무래도 동무가 먼저 건너와야 할것 같소.》

성호는 건너편에 서있는 처녀에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아침 남녀평등권법령이 발표되었단 말

이요.》

성호가 아무리 말을 걸어도 늘 고개를 숙이고 응대를 안하던 처녀가 그 말에는 얼핏 머리를 들었다. 그리고는 순간적으로나마 성호를 바라보았는데 그때 처녀의 눈동자는 햇빛을 받은 거울처럼 반짝하고 빛을 뿜었다.

《자, 어서 건너오시오. 동무도 한번 뽀뽀하게 머리를 들구 건너와보란 말이요.》

그 말을 하자니 말하는 자신부터 목이 메어왔다. 그 순간에 그들의 눈길은 또다시 마주쳤다.

이번에는 처녀의 눈시울이 파르르 떨리는듯 했다. 처녀는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지만 왜 그런지 성호는 가슴이 얼얼하게 저려들을 느꼈다.

성호는 자기가 아무리 먼저 건너오라고 해도 처녀가 응하지 않으리라는것을 깨닫고는 다리에서 물러섰다. 그리고는 신발을 벗어두고 언제인가 처녀가 신을 벗고 물을 건넌던 다리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은 기어코 이 다리를 통채로 그에게 내주고싶어서였다.

성호의 생각을 알게 된 처녀가 화닥닥 놀라 다리우에 냉큼 올라서더니 머리를 푹 숙이고 종종걸음쳐 건너왔다.

그다음엔 《고마와요.》하는 인사 한마디를 남겨놓고 총총히 멀어져갔다.

성호는 처녀가 옆을 지날 때 그가 신은 흰 고무신을 자세히 보았다. 신코에는 +표식이 없었다. 옳구나. 처녀야, 이제는 거기다 그런 표식을 안해도 너의 그 고운 신발은 잃어지지 않으리니 어디가든 마음놓고 벗어놓거라.

성호는 구름을 타고 오르는 선녀와도 같이 하늘색치마폭을 날리며 흰 연기 피어오르는 공장쪽으로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처녀를 오래도록 지켜보며 서있었다.

성호는 처녀를 알기 시작하여 오늘 처음으로 말을 하는 그를 보았다.

2

그들은 아침철차가 출발기적을 울리는 7시반경이면 또다시 다리에서 길을 어졌다.

처녀는 여전히 다리 저편에서 성호에게 길을 내주곤 하였는데 그때면 성호는 군말없이 먼저 성큼성큼 건너갔다. 그대주는것을 처녀가 기뻐하는것 같았기에...

하지만 이따금씩 그런 처녀에게 《오늘은 아무래도 내가 신을 벗고 또 물을 건너알가 봅니다.》해서 처녀를 난처하게 만들어놓곤 하였다.

그러면 처녀는 고개를 돌리고 혼자 몰래 웃으며 한참씩 줌자르다가야 다리를 건너왔는데 건너와서는 《고마와요.》하는 인사를 남겨놓고 나눈듯 달

러가는것이였다.

낮에는 부끄러워 밤에만 피는 분꽃처럼 처녀가 혼자 방긋 웃는것을 볼 때마다 성호의 마음은 절로 즐거워났다. 그래서 성호는 그가 웃을수만 있다면 매일이라도 신을 벗고 물을 건느고싶은 심정 이였다.

하루는 처녀가 무슨 수첩을 정신없이 들여다보며 걸어오기에 슬그머니 비켜서서 길을 내주었는데 처녀는 다리를 다 건너와서야 성호를 알아보고 수첩을 감추며 당황해하였다.

성호는 처녀의 수첩에 《돌다리… 고향》하는 지금 한창 배우고들 있는 우리 글이 써여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처녀는 나날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어떤 날은 동무들과 깔깔 웃으며 걸어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민주청년행진곡》을 신나게 부르며 걸어오다가 자기를 보면 동무들의 등뒤로 살짝 숨어버렸는데 그런 처녀를 보기란 즐거운 일 이였다.

성호를 무엇보다 즐겁게 한것은 들가방을 살살 흔들며며 춤추듯 사뿐사뿐 걸어다니는 달라진 그의 걸음새였다.

언제나 쫓기우듯 총총히 뛰던 처녀, 그래서 이따금 성호는 처녀에게 《이제는 뛰지 않습니까?》하고 웃으며 말을 걸곤 하였다. 그러면 처녀는 《그런건 저한테 묻지 말구 저 돌다리에 물어보세요.》하듯 방긋 웃는것이였다.

성호는 오래동안 자리에 누웠다가 바깥출입을 시작한 누이동생을 볼 때처럼 나날이 달라져가는 처녀를 기쁜 마음으로 살피고있었다.

그런데 한번은 처녀가 오래동안 보이지 않은적이 있었다. 자기들이 만나지 못하는 날이란 명절날과 일요일 그리고 성호가 차를 가지고 먼거리출장을 나갈 때뿐이였는데 그가 오래동안 나타나지 않아 성호는 걱정하기 시작하였다.

그 나날의 다리목은 얼마나 허전했던가?... 막을 내린 극장무대처럼...

(그가 앓는것일가?)

하지만 무슨 근거로 해서인지 성호는 처녀가 앓을수 없다고 단정해버렸다.

성호는 별의별 걱정거리를 다 생각해내서는 그를 도와주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 자기를 괴롭혔다. 성호는 자기한테 아무런 도움도 청하지 않고 혼자 앓을 태우고있을 처녀를 원망했다.

몇년세월을 한길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왜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 못한단 말인가. 그의 요구라면 홍수난 물도 건느겠는데...

성호는 처녀가 휴가를 받은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신통한것이 못되였다. 장군님의 부르심따라 인민경제계획과제를 태달로 끝내자고 일터마다에서 증산경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이런 때에 처녀가 휴가를 받았을 리가 없을것 같았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오래도록 나타나지 않는가.

성호는 오늘이면 행여나, 래일이면 혹시나 하여 매일 출근시간만을 기다리다가는 다리목으로 나갔다. 그가 없는 다리목은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물때가 오른 돌다리아래로는 맑은 내물이 여전히 주절대며 흘러가고 개뚝의 실버들엔 오늘도 물새가 앉아 지저귀고있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성호를 위해 불러주는 노래가 아니였다.

이때에 와서야 성호는 그가 없는 돌다리는 앞으로도 꽃이 없는 화단처럼 허전할것이고 물이 없는 내가처럼 생기를 잃을것이며 텅 빈 제비둥지를 볼 때처럼 쓸쓸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성호는 처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어데 가서 알아보랴. 아직 이름도 모르고 직장도 딱히 어디인지 모르고있는 처녀를...

하여 근 한달이 지난 어느날 성호는 제사공장앞을 지나다가 차를 세우고 이제는 구면이 되어버린 공장장비원과 담배 한대를 나누었다.

경비원은 말동무가 없어 갑갑하던차에 그를 만나자 지루한 이야기거리를 찾아내가지고 성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얼핏 지나는 말로 한달전에 공장에서 혁신자로 소문난 한 처녀가 갑자기 배를 끌어안고 병원에 실려가 복막염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했는데 경과가 좋지 않아 지배인동무랑 모두 면회를 갔다왔다는 이야기를 하는것이였다.

그 말을 듣자 성호는 좀더 앉았다 가라고 잡아끄는 경비원의 손을 무례하게 뿌리쳐버리고 운전칸에 뛰어올랐다. 그러고는 무작정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퇴원했다는것이였다.

그날 밤 성호는 불길한 꿈을 꾸었다. 그러다가 후닥닥 깨어나니 출근시간이였다. 성호는 아침밥을 뜨는등마는등 하고 집을 나섰다.

실버들가지에서 까치가 유난스레 짹짹거렸다. 아침까치의 울음조차도 흥한 조짐으로 느껴지는 불안한 아침이였다. 하지만 다리 저쪽에 어제 중앙병원에 후송되였던 처녀가 이전처럼 먼저 건너오라고 자기를 기다려주는것을 보았을 때 성호의 심정이 어떠했으랴.

성호는 어데 갔다 이제 나타났는가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저 반갑다고 우짖는 까치의 울음조차도 내게는 어떻게 들렸는지 동무는 아는가고 기어코 말해주리라 속다짐하며 돌진하듯 다리를 건너갔다. 하지만 정작 그앞을 지나면서는 허가 쑥 들어가버리고말았다.

처녀가 그동안 얼마나 고와졌는지 그를 마주보기조차 두려워났기때문이였다.

젖살이 오르듯 얼굴에 뽀얗게 살이 오르고 갓 지

어입은 저고리에 품이 좁아보일 정도로 가슴노리가 팽팽해졌는데 사람이 보름동안에 이렇게 달라질까 생각되게 처녀는 다시한번 새 사람으로 되어 눈앞에 서있었다.

성호는 자기가 여직껏 손아래 누이처럼 오직 위해주려는 마음 하나로만 대해오던 처녀에 대하여 처음으로 되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오래간만입니다.》 하고는 얼른 그옆을 지나쳤다.

사업소에 가니 정문에서 성호를 기다리고있던 작업반장이 휴양권을 쥐여주며 년간계획완수자들에게 먼저 차례지는것이니 최동무와 같이 차로 당장 금강산으로 떠나라고 하였다.

하지만 사업소적인 계획이 이달이나, 래달이나 하고 다투고있는 때에 자기 혼자 휴양을 갈수는 없었다. 그래 후에 가겠다고 우기고있는데 때마침 정문에 들어서던 사업소지배인이 어서 차비를 해가지고 떠나라고 하면서 며칠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금 금강산경치가 제일 좋은 때인데 로동자동무들을 많이 보내주라고 하시였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휴양소로 떠나던 그날의 역두!

떠날 준비를 해주면서, 역으로 따라나오면서, 헤어지던 그 순간까지도 계속 울기만 하던 어머니.

《누이, 오늘같은 날에 왜 자꾸 그러시우.》

그날엔 정용에 끌려갔다 한다리를 잃고 돌아온 외삼촌도 다림팔이 쪽 간 새 양복바지를 차려입고 역으로 나왔다.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삼촌...》

《오...》

아, 그렇게 기쁜 날에 자기는 왜 울었던가. 왜 바래주러 나온 이 웃어른들한테 깃듯한 인사 한마디 변변히 못하고 차칸으로 뛰어들어왔던가.

기적소리란 서글픈것이라고만 여겨왔던 역두여!

부둥켜안은 가슴들위로 사정없이 굴러가던 정용, 이민의 기관차여.

고마와라, 우리 주인된 내 나라여!

안녕히 계시라, 눈물이 헤퍼진 어머니여! 삼촌이여, 기다려다오, 하루 떨어져도 그리워지는 출근길이여, 정든 둘다리여!

성호는 휴양소에 보관된 사진첩에서 먼저기에 왔다가 그 처녀를 보았다.

처녀는 아슬한 구름다리위에 다리를 드리우고있어서 단풍이 질은 팔찌기를 내려다보며 노래를 부르고있었다. 사진밑에는 《년간계획을 넘쳐한 기쁨》이라는 글귀가 써여있었다.

그 사진을 보고서야 성호는 처녀가 그렇게 통통하게 살이 찌고 고와진 까닭을 알게 되었다.

결국 처녀는 자기가 먹은 살이 내리게 그를 걱정하고있던 사이에 일만경치가 내려다보이는 구름

다리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며 랄랄 노래를 부른것이었다.

성호는 처녀처럼 몸무게가 세키로나 불어가지고 휴양에서 돌아왔다.

처녀가 보름, 자기가 보름, 한달을 헤어졌던 그들은 잃어버린 그 한달을 벌충하는 심정으로 또다시 매일아침 다리목으로 줄달음치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다리에서 만나는 시간은 다시 한시간가량 앞당겨졌다. 약속은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되는것을 자연스러운것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그때는 온 나라가 년간계획을 오늘 래일로 바라보던 그런 시기였기에...

이전에도 그랬던것처럼 그들을 똑같은 시간에 한 곳에서 만날수 있게 해준것은 그들이 실려 살던 세월이었다.

세월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때는 신새벽에, 어떤 때는 7시반에, 어떤 때는 일요일에 그들스스로 다리목에 나서도록 심장의 문을 두드려준것이 아니었던가.

성호는 다시 총총히 뛰군 하는 처녀를 보았다.

《아니, 또 뛰기 시작했습니까?》

물어선 무엇하랴. 지금에 와서 처녀의 뛰는 걸음새가 더 아름다운데야...

...그날은 성호를 위해 마련된 날이었다. 그날 성호가 출근길에 나서니 어느때에는 그저 눈인사로 지나치던 사람들까지 그에게 《축하합니다.》, 《수고맏습니다.》. 신문에 사진이 났더구만요.》 하고 인사를 하여왔다. 학교로 가던 아이들까지 꾸벅꾸벅 절을 하였다. 뭐라고 소곤거리며 마주오다 자기옆을 지나쳐서는 새때처럼 흩어지며 까르르 웃던 처녀들... 둘다리에 이르니 가을하늘이 비끼는 맑은 물위로 단풍잎이 떠내려왔다.

처음엔 한두잎 떠내려오기에 무심히 보았다. 하지만 그뒤로 잇달리여 내려오는 빨간색, 노란색, 타는 불색, 분홍색, 하늘색의 아름다운 잎새들을 보자 성호는 그 어떤 황홀한 심정으로 하여 가슴이 툭툭 뛰기 시작하였다. 금강산에서만 볼수 있었던 황홀한 단풍잎들이었다. 그것들은 흐르는 물결에 실려 서로 부딪치고 굽닐며 끊임없이 떠내려왔다.

성호는 이루 형언할수 없는 행복한 마음으로 꽃잎들이 려달리여 내려오는 개웃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시야에 미쳐오는것은 땡기오리처럼 사라져간 시내물과 그우에 펼쳐진 가없는 가을하늘뿐이었다. 저 하늘밑, 푸른 땡기오리가 시작되는 시내가 둔덕에 빨간 기와를 엮은 처녀네 집이 있을거라고 성호는 생각했다.

이른새벽 처녀는 나물버주기안에다 몰래 감추어가지고나온 단풍잎을 누가 볼세라 조심조심 물에 띄운다. 한잎 또 한잎... 밭길에 묻어나온 강아지가 떠내려가는 단풍잎을 따라가며 왈왈 짖

는다.

성호는 자기한테 보내오는 처녀의 마음인듯싶은 타는 불색의 단풍잎 하나를 건져내어 수첩갈피에 고이 간직하였다.

그후 어느날 성호는 뜻밖에도 차를 가지고 신의주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처녀를 만난적이 있었다.

마침 점심무렵이어서 성호가 차를 세워놓고 역전국수집으로 들어가는데 방금 차에서 내린듯 한한 처녀가 마주오며 《아이, 어떻게 오셨나요?》하며 반가와하였다.

타향에 와서 한고향처녀를 만나자 성호도 몹시 반가웠다.

처녀는 중앙민청에서 조직한 경험발표회에 온 것이었는데 그날 성호는 국수그릇을 마주하고 처음으로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제까지만 하여도 서로가 인차 피하군 하던 사이였지만 타향에서 만났다는 사정이 그들의 사이를 스스럼없이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고향의 돌다리로 돌아와서는 또다시 이전날의 관계로 되돌아간듯싶었다. 다만 달라졌다면 처녀가 이전보다도 자기를 더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처녀가 거울을 정신없이 들여다보며 걸어오다가 성호를 보고는 깜짝 놀라 거울을 그만 내물속에 떨어뜨렸다.

성호는 처녀의 아름다움이 당장 물에 씻겨내려가는것만 같은 아찔한 생각에 신발도 벗을 사이없이 내물에 퐁당 뛰어들었다. 하지만 성호가 거울을 잡아쥐었을 때에는 처녀가 벌써 봄아지랑이처럼 저 멀리에서 가물거리고있었는데 거기로부터 깔깔거리는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성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거울에는 성호 자기가 아니라 얼굴에 흐르는 물기로 하여 해초와 같이 더욱 싱싱해보이는 처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처녀는 방금 머리를 감은듯 빈침을 뽑아 입술에 물더니 고개를 뒤로 젖혀 살때살때 흔들었다.

그리고는 칠칠하게 드리우는 머리태를 두손으로 꼭 모아잡으며 《오, 내 아름다움의 보호자이시여.》 하고 수줍게 웃는 것이었다.

성호는 매일 아침에 주리라고 생각하며 거울을 간직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받는 광경을 그려보았다. 그 광경은 비뚤은 뒤의 무지개처럼 황홀하였다. 그래 매일이 기다려지였다. 하지만 아침게도 매일은 일요일이었다. 성호는 매일이 매우 지루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다행하게도 일요일날 성호네 온 가족은 외삼촌의 발기로 즐거운 바다가놀이를 떠났다.

기차로 두 역만 가면 좋은 바다가였다.

외삼촌은 그날도 다림발이 선 새 양복바지를 입

었는데 의족을 얼마나 잘했는지 성한 사람같았다. 하지만 모처럼 마련되었던 바다가놀이는 중도에서 호지부지되고말았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거기까지 날아든 것이었다.

성호는 허겁지겁 자기를 따라서는 어머니를 외삼촌과 함께 저녁차를 타고오라고 사정하고나서 두정거장사이를 내쳐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로부터 두시간후에는 그가 벌써 먼거리출장에 갈 때면 늘 가지고다니던 배낭에다 식량과 소금 그리고 어머니가 따라오면서 꼭 가지고가라고 당부하던 내복을 꿰저지고 다리목에 가있었다. 그 시각에 성호는 자기와 비슷한 차림으로 마주 달려오는 그 처녀를 보았다.

성호는 래일 가야 만날수 있다고 생각했던 처녀와 이렇게 만난것을 놀랍게 여기지는 않았다.

서로 약속은 없었지만 이전에도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않았던가.

하지만 여직껏은 일요일의 이런 시간에, 이런 차림새로 이렇게 허둥지둥 뛰어오다 만난적은 없었던것, 어쩌면 노래처럼 자기 박자에 맞추어 흘러가던 우리 생활의 선물이, 그 리듬이 악보상에는 없는 징소리로 하여 무참히 파괴되어버렸다는 생각이 파편처럼 가슴에 박혀왔다.

그것은 처녀의 행동거지에서부터 느껴졌는데 어느때 같으면 건너편에서 자기를 기다려주었을 처녀가 앞을 살피지도 않고 정신없이 다리를 먼저 건너왔다. 건너와서야 기다리고 서있는 성호를 알아보고 흠칫 굳어졌다.

자기를 바라보는 처녀의 그 눈, 그 얼굴, 그 몸가짐... 고속도로 돌아가다 순간적으로 정지되면서 확대되어 들어오는 영화필름의 한 토막처럼 하많은 뜻을 담고 자기를 바라보는 처녀의 얼굴이 성호의 눈앞으로 확 다가들었다.

성호는 하루사이에 처녀가 세상풍파를 다 겪은 사람처럼 어른스러워보이기도 하고 어쩌면 폭 늙어버린것 같기도 하여 가슴이 막 답답해왔다.

성호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 하긴 처녀가 먼저 자리를 피한것인지도 몰랐다.

성호는 얼마 못 가서 우뚝 멎어섰다. 이 길로 입대하자고 나선 몸으로서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날지 모르는 처녀의 집주소도 아직 모르고있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리하여 성호가 서로 주소나 알아두자고, 나는 어디에 가든 아침마다 동무와 만나던 이 돌다리를 잊지 않을것이니 우리 기어이 출근길에서 다시 만나자고 가슴가득한 말이라도 하고 헤어지자고 돌아서니 그때는 처녀가 벌써 하나의 점으로 되어 멀어지고있었다.

아, 주변의 하늘은 여전히 맑은 그대로이고 변고의 징조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가슴은 왜 벌써 이렇게 답답해나고 안타까와지는걸까.

우리는 세포등판에서 다시 만났다 외 1편

리 경 체

희천에서 헤어졌던 우리
세포등판에서 다시 만났구나
전우여 병사시절 전우여

여전하구나
세포바람 휘어잡으며
멋쟁이등판으로 펼쳐가는 저 모습은
희천발전소언제를
단숨에 일떠세우던 그 모습

월참이면 우등불 피워놓고
군민이 어울려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세포등판에 전변의 새봄을 앞당겨올
황홀한 래일을 펼치며

아득히 펼쳐진 무연한 등판으로
구름처럼 양떼 염소떼 흐르고
아름다운 선경마을과
멋쟁이가공공장들
그 주인들 다름아닌 우리들 아니나

전우여 너와 나 굳게 잡자
완공된 희천발전소에
아버이장군님을 모시지 못하여 가슴을 치던
그날의 맹세로 억세어진 손과 손들을

아, 우리는 다시 만났다
희천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시며
우리를 자주 찾아주시던 아버지장군님
세포등판에서 만나자고 하시며 오실것만 같아

아버이장군님 모시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세포등판에 오실것만 같아
일하다가도 문득 바라보는 평양의 하늘

희천의 언제우에서 평양하늘 우러러
만세를 부르던 그날 그 모습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우러러
승리의 보고를 드릴 그날을 위하여
전선에서 우리 삶 빛내여가자

병사와 풀 한포기

한낮의 봄소나기에
흙이 씻겨버렸는가
길가에 드러난 풀뿌리
조심히 한줌한줌 흙을 덮어주는 병사

어디 가나 흔한 풀이어서
스치여 지나칠수 있건만
목숨으로 지켜선 전호가의 풀처럼
한가슴에 품어안은 병사의 마음

이 풀 한포기
천포기 만포기로 펼쳐지는 곳에
구름처럼 집짐승떼 흐르고
락원의 동산이 펼쳐지리니

병사와 함께 풀뿌리를 덮어주며
누구나 가슴속에 새겨안았네
세포등판에 펼쳐질 휘황한 래일이
그 한포기에서도 시작되고있음을

성호는 담배를 찾았다. 담배는 없고 손에 거울이 잡혔다. 래일 아침 처녀에게 돌려주자던 거울이었다. 그러자 래일은 아직 앞에 있다는 생각이 성호의 아픈 가슴을 어루쓸었다.

처녀야, 우리 잘있으라는 인사 한마디도 나누지 못하고 이렇게 헤어졌다고 서운해 말자,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 우리 못다한 이야기를 보물처럼 간직하자.

신의주에서 나와 만나던 그날이 생각한다. 그때 우리를 것처럼 친근하게 만들었던것이 과연 무엇이었던가.

이제 만일 우리가 그 어디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조국이라는 크나큰 감정에 잡기게 될것이니 아껴두자, 그날 우리가 하게 될 말을...

성호는 처녀와 자기와 둘다리가 그대로 비껴있는 거울을 품속에 고이 간직한채 전선으로 떠났다.

며칠후 처녀도 둘다리를 건너 전선으로 떠나갔다. 바로 이런 젊은이들이 미국놈들과 싸웠다.

주체76(1987).

인간사랑의 계단에 서서

조 광 원

그 작은 가슴에

벌써 그 며칠째
밤을 밝혀가며 그는 앉아있다
내 침상곁에
마치 나의 소생에
자신의 운명마저 달려있는듯

누구나?
혼미한 의식속에도
어렴풋이 보이는 땀뚝은 하얀 이마
나의 이마에 와닿는 살뜰한 손길

동생이로구나
귀여운 누이동생
어릴적 이 오빠를 따라다니며
웃음도 눈물도 해줬던 그 애
한시도 떨어질줄 몰랐던 나의 동생

아, 아니다
그는 지금 군복을 입고

조국의 방선을 지키고있거늘
그러면 스스로없는 이 손길은 나의 안해?

아니 그것은 더욱 아니다
하얀 위생복 애티나는 얼굴
애인이 있을지도 모를 그대에게
순간이나마 미안한 마음
어망결에도 얼굴 붉어지는데

귀한 자식 돌보듯
어머니손길로 정성을 쏟는 그대는
아, 아직은 이름도 익히지 못한
아릿다운 간호원처녀

용서해다오 그대여
허나 나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거니
그대는 나의 동생 나의 어머니
남이라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그 작은 가슴에
어머니 조국의 숨결을 안았구나

처녀의 손에 풀잎사귀 하나

이른봄의 해살을 안고들어서는
간호원처녀의 손에
정히 들려있네
싱싱한 풀잎사귀
—밖엔 벌써 풀잎이 이렇게 자랐어요

확 풍겨오는 싱긋한 풀냄새
취한듯 말아보는 이 가슴에
안겨오네 봄의 훈향
차오르는 삶의 희열

밖에는 자연의 봄
이 몸엔 소생의 봄
나에겐 생각되여라
화창한 이 봄 또한
나를 위해 네가 불러온것 아닌지

처녀야 네 손엔 풀잎 하나여도
그 마음엔 있구나
못다 가져온 새봄의 파아란 등판이
아, 소생의 언덕으로 이 몸을 이끄는
처녀와 봄과 풀잎사귀 하나...

작은 약봉지

한생토록 세운 산갈은 창조물들이
이젠 자기 나이만큼은 된다고

금지넘쳐 말하는 우리 호실 건설자 영웅아바이
해놓은 일에 받들려

그 모습 크게만 보이더니

매일 받은 약봉지들을 차곡차곡 모아
간호원의 손에 쥐여주네
자기 약은 그것으로 다시 싸라고...

누구나 버리는 작은 종이에마저
소중한것을 담을줄 아는 영웅

혜택은 우리 함께 받았는데
고마운 나라를 받드는 마음
왜 이리도 다를까

아, 작은 약봉지
내 더는 가볍게 들수 없구나
영웅이 세워온 창조물들의
그 거창한 무게처럼!

나의 산보길

록음우거진 산보길
나무의 모양도 천만가지 모습이요
들쭉날쭉 바위들은
그렇게 수천년을 소곤거릴듯
맞대인 이마 서로 뻗줄 모르고

숲속의 오솔길은
숨었다 나타났다 숨박꼭질 하는듯
내사 이 동산의 주인인듯 한데
마주선 표말이 이 가슴을 울린다
산보길 500M 1회 혈당 10만단위

신묘한 자연의 조화인가 했더니
여기에도 뜨거운 정성 걸음마다 깔렸구나
이 산보길의 구간도
낮과 밤을 이어가는
치료전투속에서 뛰어졌단 말인가

내 미처 몰랐어라
내 어깨를 쓰다듬는 나무가지들에
앉았다 가라고 저저마다 반기는 바위들에

완패의 날로 이 몸을 떠미는
의사들의 진정이 어려있음을

여기선 팔목에 스치는 잎새들도
다정하게 나의 맥 짚어보고
이마에 와닿는 바람결도
살뜰히 나의 체온 재여보는가

하루해는 서산에 앉아 땀을 들이고
아지우에 노닐던 못새들도
둥지에 찾아들며 깃을 접는데
나는 선듯 내려가지 못한다

내 어찌 다 알랴
이 길우에 얼마나 많은
소생의 자옥들이 찍히었는지
허나 내 이것만은 안다
내 삶의 걸음마 여기서 익힌
그런 인생앞엔 하나의 헛자옥도 있을수
없음을...

내 알고싶은것은

완패의 날이 다가와
내 가슴에 어느덧 삶이 약동하고
안해의 걸음에도 나태가 돌렸는데
아직도 담당의사의 지극한 눈길은
나의 신상을 떠날줄 모른다

담가에 실려온 그날부터
자기의 생을 아낌없이 덜어
나의 소생을 앞당겨온 그대의 눈빛
내 생명의 먼 앞날까지 더듬고있다

강가에 아이를 내놓은 어머니의 마음인가
좀처럼 떨어질줄 모르는 그대의 근심
하루운동량과 생활준치 필요한 약재
잠들고 깨야 할 시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누나

허나 나는
그보다 먼저 알고싶다
의식을 잃었던 그 밤에조차
이 몸을 보살펴준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를 지켜 밤을 새운 누이같은 간호원이며

어머니가 되어준 간병원의 그 수고도

내 정녕 다 알고싶구나
이 몸에 흘러든 그 귀한 약물과
머리맡에 놓여지던 보약들...
련이은 수술과 치료전투로
나에게 바친 품이 그 얼마인지

어이 알라 의사선생인들
살려낸 생명은 수백수천이여도
자신들이 바치는 정성과
들인 품의 계산법을
이 땅에서는 배우지 못했으니...

내 정녕 알고싶어도
다 알수 없는 그 모든것

하나 그것을 알고조차 하지 않는
불효자식은 되지 않으려니

헤아리노라
자식에게 기울인 사랑에
보상을 바라는 어머니가 없듯이
바라는것 없이
주고 또 주기만 하는 조국의 사랑

작은 일 해놓고도 자부를 느끼던
그 밤들에 얼굴붉히며
내 다시 가슴에 새기나니
우리의 애국은
아, 어머니 조국앞에
내 한생을 깡그리 바치는것임을!

인간사랑의 계단에 서서

해빛은부신 퇴원의 이 아침
꽃속에 축복속에 한껏 받들려
한층두층 병원계단을 내려서는데
이 마음엔 층층이 쌓이는 생강

나의 퇴원이 이리도 경사인가 큰 경사
하얗게 펼쳐나선 의사며 간호원들
이날을 위해
그대들 지새운 밤은 그 얼마며
그런 아침을 가슴에 안고
초소로 달려간이들은 또 얼마던가

눈물겹구나
이런 벅찬 생의 환희를
나에게 안겨준 조국이여
부모형제가 아닌 이들모두를
피와 정을 나눈 한식술로 되게 해준
고마운 품이여

내 조국이 아니고서는 결코 쌓을수 없는
인간사랑의 이 계단
단 하나도 무심히 밟지 못하겠구나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로 받드시려
이 한층한층을 위하여 바쳐오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한평생이 어려와

이 몸은 계단을 내려서도
다 보여오누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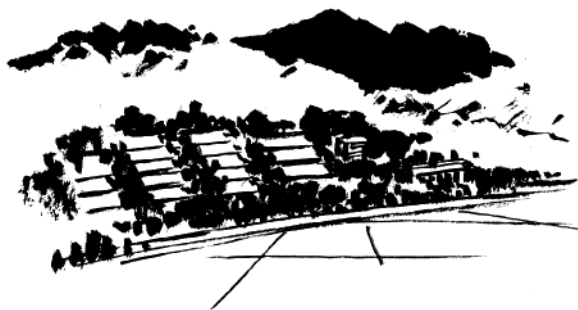
두메산골 이틈없는 생명을 위해서도
비행기가 날으는 내 조국의 푸른 하늘이
탄광과 농촌 집집의 문을 두드리며
인민의 건강을 찾아가 돌보는
이민위천의 드넓은 대지가!

우리 장군님
찬눈길 헤치시던 고난의 그날에
소중히 지키시고 높여주시여
더욱 따스해진 사랑의 계단

내 무슨 말을 더 하랴
고마운 우리 사회주의제도가
다시 안겨준 이 생명
목숨보다 소중한 조국을 위해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을 위해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칠
오직 그 한 생각뿐!

병원문을 열고 들어설 때에는
스스럼없이 밝고 올랐던 이 계단
아, 퇴원의 이날엔
퇴원의 이날엔 그 사랑의 계단이
천층만층 너무 높아
내 선듯 내려서지 못하겠구나!

—퇴원의 날에—



사랑으로 분할 해변

백 상 군

《동무의 고향도 저 사진처럼 아름답게 꾸렸지요?》

《그림!》

이것은 선경이와 명규가 도에서 열린 사진전시회에서 그림처럼 아름답게 꾸려진 어느 한 농촌 마을을 찍은 천연색대형사진을 보면서 주고받은 말이였다.

산기슭을 따라 조화롭게 지은 각이한 형태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아담한 모양의 탁아소와 유치원, 여러가지 색깔의 수지보트들이 떠있는 맑은 호수가, 마을앞에 펼쳐진 풍요한 전야 등 농장의 전경을 찍은 사진은 보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

명규가 선경이를 알게 된것은 지난해 겨울 도소재지 교외에 있는 농민휴양소에서였다.

도적으로 제일 산골로 소문난 천암군의 어느 한 농장에서 휴양온 선경은 첫눈에 명규의 마음을 틀어잡았다.

봄날에 활짝 핀 배꽃처럼 환한 얼굴에 군사복무때 체력소 굴뚝만큼이나 큰 대포를 다루어서인지 성격이 활달하고 서글서글한 선경은 활시위를 벗어난 화살처럼 다가서는 명규에게 예상외로 쉽게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었다.

그때의 명규의 환희로운 심정을 무슨 말로 표현하랴. 그런 경우를 두고 갑작인연에 천생연분이라고 하는지...

식은죽먹기보다 더 쉽게 이루어진 그들의 사랑

을 놓고 휴양생들은 사파나무에 배가 열린것만큼이나 희한해하였다.

일부 입심이 결속한측들은 선경이가 산골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별방총각을 붙잡았다고 이죽거렸지만 명규에게는 그 말이 노래소리처럼 아름답게만 들리였다.

지내보니 선경은 보통 열정적인 처녀가 아니였다. 농사와 꾸리기에서 앞선 단위들에서 온 농장원들을 찾아다니며 그 경험을 배우기 위해 노력하였고 새로 나온 농업과학기술도서들을 손에 쥐면 밤을 패며 읽었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휴양소에서는 도소재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사진전시회와 새로 꾸린 민속거리참관을 조직하였다.

등산가는 아이들처럼 들떠있는 휴양생들을 한명 한명 점검하던 소장이 선경의 이름을 부르다가 굳어지였다.

《유선경동무가 왜 안 보이오?》

명규와 선경의 사이를 알고있는 소장의 묻는듯한 눈길에 명규에게 날아들었다.

당황해진 명규는 얼굴을 붉히며 모르겠다는듯 설레설레 머리를 흔들었다. 하지만 마음 한귀퉁이로 불안의 그림자가 머리를 쳐들었다. 어제 저녁때까지만 하여도 식당에서 오손도손 식사를 하고 헤어졌는데 밤새 무슨 일이 있었을가. 혹시 감기에라도 걸린게 아닐가.

불안한 마음으로 황망히 돌아선 명규는 헤덤비며 선경이가 든 호실문을 두드리였다.

기척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전신을 휘감았다.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망연자실하여 맥빠진 걸음으로 회관으로 들어서던 명규는 그만 눈이 메꾸어졌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선경이가 나무잎 떨어지듯 조용히 회관으로 들어섰던 것이다.

휴양생들의 의혹과 호기심에 찬 눈길들이 조명처럼 선경에게 집중되었다.

먼길을 달려온듯 선경의 얼굴에서는 비지땀이 줄줄이 흘러내리었다.

선경은 의문부호를 풀지 못하고 쳐다보는 휴양생들앞에 네겹으로 접은 종이를 꺼내 펼쳐보이었다.

거기에는 호수가에 기둥을 박고 세운 3층짜리 덩치 큰 건물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대형객선을 방불케 하였다.

선경의 설명에 의하면 고리형순환체계에 의한 축산과 양어를 배합한 종합축사라는 것이었다.

《이건 어디에 건설한 축사요?》

누군가의 물음에 선경은 자랑하듯 응대하였다.

《저 문평군 읍농장에 건설한 것이예요.》

《문평군?!》

명규는 물론 휴양생들모두 놀랐다.

문평이면 도소재지에서 40여리 떨어진 곳이다. 그러니 밤새 왕복 80리길을 다녀왔다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이 물었다.

《동무네 농장엔 축산반이 없소?》

《있어요. 우리 농장 축산반도 그만하면 괜찮다고 했는데 그 농장에 비하면 과학기술적측면에서나 건물의 형식에서 뒤떨어진것 같아 다시 짓는 거예요.》

《동문 욕심이 여간 아니로구만. 축산반이 있으면 됐지 뭘 또 다시 짓는다는거요. 그걸 짓자면 술한 톨을 들여야 하겠는데… 자재, 로력…》

누군가의 걱정에도 선경은 혼연한 웃음을 지었다.

《아이참, 세상에 마음먹어 못할 일이 있어요? 내 고향을 더 아름답게 꾸리고 농장원들이 먹을 불수만 있다면 난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겠어요.》

꾸어온 보리자루마냥 한쪽에 우두커니 서서 선경을 지켜보는 명규는 연단에 나서서 결의를 다지듯 자신만만하게 장담을 하는 그 말에 도저히 공감하지 않았다.

지금처럼 모든것이 부족한 때에 욕망 하나만 가지고 헤엄비다가는 남의 웃음거리가 되기 십상이다.

생활에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금시 산이라도 허물것처럼 기세를 올리다가 이런저런 조건과 난관에 부딪치면 승산도 없는 일을 시작했다는니, 사람들만 고생시킨다느니 하는 비난의 화살에 꺼꾸러진 사람이 한둘이었던가. 더구나 별방보다 조건이 불리하다고 볼수 있는 선경이네 농장에서 그 방대한 건설을 어떻게 해낸단 말인가.

회관을 나선 휴양생들이 버스에 오르기 시작하였다.

선경의 결으로 다가선 명규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그 축사건설 말이요, 가능성여부를 잘 타산해보고 결심하오. 괜히 되지도 않을 일을 벌려놓았다가 사람들의 말밖에 오르지 말고…》

근심어린 명규의 꼭진한 당부에 선경은 마치 낮은 사람 대하듯 눈섭을 치켜올렸다.

《아이참,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마음먹어 못할 일이 있어요?》

선경의 고집스러운 말에 명규의 입에서는 어설픈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 처녀가 이렇게 고집불통이였는가.

명규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선경을 띄어보았다.

그 어떤 뽀족한 말로 선경의 고집을 꺾어놓고싶었지만 웬일인지 숫구치던 모든 생각이 허바닥에서 맴돌다가 흩어지고말았다. 언젠가는 내 말을 리해할 때가 있겠지.

그후 꿈같이 흘러간 휴양생활을 마친 명규와 선경은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

폭우가 억수로 쏟아졌다.

거대한 바위가 드르렁거리며 굴러가듯이 구름질은 하늘에선 퇴성이 울리었다. 늦장마비속에서 온통 흙탕으로 매닥질된 소형집차 한대가 진창판에서 헤어나오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있었다.

앙-앙 숨넘어가는 소리를 내지르며 모지름을 쓰는 차의 네바퀴를 물고 늘어진 진창은 누가 이기나 힘겨루기를 하듯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다.

산탄처럼 쏟아지는 비발에 얼굴이며 온몸을 두드려맞으며 명규와 외삼촌이 차꾸무니에 어깨를 들이밀고 젖먹은 힘까지 깡그리 뽑으며 힘을 쓰건만 차바퀴는 그냥 공회전을 하면서 심술을 부리듯 진탕만 뿌려던진다.

그 바람에 그들의 몰골은 진흙밭에서 금방 캐낸 고무마처럼 되고말았다.

《전달군같은것들! 길이 이 지경이 되도록 팔짱을 끼고있다니. 도대체 이 농장에 주인이 있긴 있어?...》

소연한 비소리만 아니었다면 외삼촌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욕이 아마 저 앞산을 뒤흔들었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선경이네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평시에 조카며느리는 제가 데려온다고 흰목을 뽑던 외삼촌은 명규가 멋쟁이처녀와 사랑을 약속했다는 누이의 말에 그만 메사해지고말았다.

대체 어떤 처녀길래 누이가 그렇듯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칭찬을 하는가.

호기심이 머리를 쳐들었다. 그 처녀가 보고 싶었다. 그래 이렇게 명규를 앞세우고 떠난 것이었다.

원래 계획은 털차로 가게 되어있었는데 군편의 사업소 수리공인 그의 친구인 운전사가 마침 그쪽으로 간다기에 차를 끌고왔는데 이런 고생을 할줄이야.

두사람이 힘을 쓸 때마다 약간씩 흔들거리던 차가 갑자기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났는지 움썰 움을 쓰더니 한치한치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하였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굴됁이 천장하듯 별별 기여가다싶이 굴러가는 차꼴무늬를 멀거니 쳐다보던 명규는 무심중 뒤를 돌아보다가 꼴살을 찡그리었다.

뽀얀 비말속에 형식이 낡은 살림집들과 작업반건물들이 색바랜 사진처럼 뿌옇게 안겨왔다.

마치 낯설은 고장을 보는듯싶었다.

저것이 과연 내 고향이란 말인가.

부지중 몇달전 휴양갔을 때 사진전시회장에서 선경이와 함께 본 천연색사진이 생각키웠다.

그 사진에 찍혀진 고장은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거기에 비하면 자기의 고향은 대비도 안되게 초라하다는 찡등감으로 무거운 한숨을 내쉬던 명규는 갑자기 누가 떠박지르기라도 한듯 흠칫 몸을 떨었다.

그때 선경이가 《동무네 고향도 저 사진처럼 아름답게 꾸렸겠지요?》하고 물었을 때 그렇다고 대답한 생각이 뇌리를 쳤던것이다.

아, 내 그날 무슨 정신에 그런 황당한 대답을 하였던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가슴이 후드득 떨리었다. 지금 선경이가 이 자리에 있다면 뭐라고 할텐가. 거짓말쟁이라고 타매할것이다.

명규는 선경이앞에 서있기라도 한듯 죄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

용케 진탕판을 빠져나온 차는 기본도로에 들어서자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며 질주하였다.

천둥소리도 멎고 비발도 아까보다는 가늘어진 듯싶었다.

잃은 시간을 보충하려는듯 손살같이 내달리는 차를 향해 길옆의 가로수들이 기겁하여 쫓기듯 뒤로 물러선다.

말뚝을 삼킨 사람모양 똑해서 앞창을 내다보던 외삼촌이 곁에 앉은 명규를 흘끔 쳐다보며 통명스레 입을 열었다.

《당장 길따기부터 해라. 그리구 작업반원들의 살림집들과 작업반건물도 때벗이를 하고... 너도 매일 신문과 텔레비존을 보겠지. 지금 모두 자기 고향과 일터를 남부럽지 않게 꾸리기 위해 떨쳐나선 걸...》

심드렁해서 앉아있는 명규는 외삼촌의 훈시가 귀에 거슬렸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하지만 무슨 일을 하재도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거예요. 그 술한 일을 하자면... 우리 힘으로는 어렵도 없어요.》

두덜거리는 명규에게 가시눈을 박는 외삼촌의 슬진 눈썹이 잠을 깬 누에처럼 꿈틀거리었다.

《뭐라구? 반장이라는게 한다는 소리가... 야! 다른 사람들은 뭐 조건이 좋고 자재가 흔해서 땀을 바치고 자기 한몫을 내대는줄 아느냐. 이제보니 반장은 고사하구... 아무 일도 못하겠다.》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후려치는 외삼촌의 도리깨질에 명규는 속에서 불꽃이 튀었으나 워낙 옥하면 칼날우에라도 올라설만큼 성격이 다급한 외삼촌을 더이상 노엽혔다간 무슨 벼락이 떨어질지 몰라 꼭 참았다.

하지만 속에서는 항변의 주먹이 황황 흥벽을 두드리었다.

말이면 다 하는줄 아는가. 세상에 자기 고향과 일터를 남부럽지 않게 꾸려보려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데 있겠는가. 하지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뻔대다고 아무리 욕망이 하늘에 닿아도 빈 주먹으로야 어쩔수 없지 않는가.

사실 명규도 자기 고향이 다른 고장에 비해 뒤떨어졌다는것을 모르는바가 아니었다. 그래 대답하게 때벗이를 해보려고 모지름을 써보았으나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다.

건설에서 기본인 세멘트를 해결하기 위해 작업

반에서 기른 살진 돼지들을 앞세우고 여기저기 도움을 받을만 한 곳을 찾아다녀보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 과정에 얻은 결론은 일이란 결코 욕망 하나만 가지고서는 해낼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외삼촌은 남의 고충을 알기나 하고 그런 욕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긴 번듯하게 꾸려진 읍에서 사는 그가 그걸 알수가 있는가. 더우기 나처럼 크나작으나 한개 단위를 책임지고있다면 그런 말을 막 하지 못할 것이다.

머리속에서 널뛰기를 하는 명규의 불만을 쓰다듬듯 운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허허! 임잔 너무하구만. 오늘같은 날에 꼭 그런 말을 해야겠나.》

운전사의 가벼운 핀잔에 외삼촌은 자신이 지나쳤음을 느낀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명규의 어깨를 툭 건드리었다.

《허허! 듣고보니 그렇구나. 명규야, 안됐다.》

호걸스럽게 웃으며 말하는 외삼촌을 마주보는 명규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던 불만이 붉은독듯 스프르 사라지었다.

×

비뿔은 하늘은 말짱 개이었다.

하늘은 마치 물에 한번 씻어내기라도 한듯 맑고 푸르렀고 깨끗이 목욕을 한 산천은 청신하였다.

천암읍을 통과하여 인차 차에서 내린 명규와 외삼촌은 선경이가 사는 천산리로 걸음을 옮기었다. 길옆에 세워져있는 친절환 이정표에는 《천산리 4km》라고 씌여져있었다.

하늘의 조화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조금전까지만 하여도 몸서리치도록 무섭게 폭우에 싸였던 대기가 지금은 숨쉬기조차 바쁘게 뜨거운 열을 내뿜는다.

땀방울을 피해 가로수들이 던지는 그늘을 밟으며 걷는 명규와 외삼촌의 얼굴에서는 몸의 땀구멍이 다 열린듯 끝없이 진땀이 흘렀다.

나무그늘속에 몸을 파묻은 매미들이 그들을 보기가 민망한듯, 쉬고가고라고 청하듯 야단스럽게 울어댔다.

《좀 쉬고 가자꾸나.》

헉헉 단김을 뿜으며 걸던 외삼촌이 김빠진 소리

를 하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지간히 지친 명규도 그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리기라도 한듯 걸음을 멈추었다.

손수건으로 얼굴이며 목덜미의 땀을 문지르던 외삼촌이 골살을 쥔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산골은 산골이로구나.》

그 말에 명규는 새삼스러운 눈길로 사방을 살피보았다.

보이는것은 앞에도 뒤에도 온통 산뿐이었는데 하늘을 치받으며 솟은 우중충한 산발들이 어깨를 걸고 위압하듯 두사람을 내려다보고있었다.

확실히 자기가 사는 고장파는 대비도 안되는 산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선경이가 휴양기간 자기 고향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가.

하긴 이런 산골에 무슨 자량이 있어서 고향소리를 하겠는가.

그동안 선경은 어떻게 지냈는지... 고리형순환체에 의한 양어와 축산을 배합한 축사건설은 제대로 돼가고있는지... 아마 애를 먹을것이다.

명규의 눈앞에 가능성여부도 타산해보지 않고 축사건설을 고집하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곤경에 처한 선경의 가궁한 모습이 일른거리었다.

그때 따끔한 말로 선경의 무모한 고집을 꺾지 못한것이 후회되었다.

《허허허! 그걸 보면 네 색시가 될 처녀가 크게 황재한셈이로구나!》

동에 닿지 않는 외삼촌의 말에 상념에서 깨어난 명규는 뜨아해서 반문하였다.

《그건 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런 한적한 산골에서 흰한 별방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으니 말이다.》

듣기에도 거북한 그 소리에 명규는 어이없는 웃음을 지었다.

《외삼촌두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왜, 내가 못할 말을 했니? 말은 바른대로 눈이 바로 배긴 처녀치고 누가 이런 산골에 일생을 묻겠다고 하겠느냐.》

《외삼촌은 정말 한심하군요.》

《허허허! 내가 락후하단 말이지.》

판골이 두드러진 외삼촌의 얼굴에 옅은 웃음이 스치었다.

그때였다.

별안간 그들의 등뒤에서 빵!— 하는 귀청을 때리는 소리가 나더니 이어 《어마나, 이걸 어찌나!》 하는 녀자의 절망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사람이 놀라서 돌아보니 웬 녀인이 울상이 되어 자전거 옆에 주저앉는것이 보였다. 그의 왼팔에는 《우편통신원》이라고 쓴 완장이 끼여있었다. 자전거뒤바퀴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는 녀인의 얼굴엔 금시 그늘이 덮여있다. 하기가 아직 같같이 먼데 자전거가 주저앉았으니 어찌 속상하지 않으랴.

측은한 눈길로 녀인을 지켜보던 외삼촌이 움쪽 몸을 일으키었다.

《내 아무래도 도와주어야 할가부다.》

스적스적 녀인쪽으로 다가선 외삼촌이 절절한 목소리로 말을 던지었다.

《허허허! 뒤바퀴가 주저앉았구만요. 내가 도와주리다.》

머리위에 떨어진 그 말에 체념한 사람처럼 앉아 있던 녀인이 고개를 번쩍 쳐들며 외삼촌을 올려다보았다.

순간 그의 눈가에 기쁨의 불꽃이 평곳 튀었다.

《그게 정말이에요?》

땅을 차고 일어난 녀인은 갑자기 어쭙은 표정을 지었다.

《고맙긴 한데...》

《팬찮수다. 내 이래봐두 한다하는 자전거수리 공이외다. 공구가 있으면 주시우.》

외삼촌의 진정에 감심한 녀인이 너무 좋아 어쩔바를 몰라하며 우편물이 들어있는 가방을 뒤적이었다.

자전거결에 무릎을 꿇고 앉은 외삼촌이 뒤바퀴를 쓸쓸 돌리며 주뿔주뿔 다가서는 명규에게 일렀다.

《잠깐이면 되니 좀 기다려라.》

《예.》

가방에서 꺼낸 공구주머니를 외삼촌에게 준 녀인은 명규를 띠여보더니 신문 한장을 뽑아 내밀었다.

《젊은인 그동안 이 신문을 보라구. 오늘 신문에 천산농장처녀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네.》

《고맙습니다.》

아까 앉았던 나무그늘아래로 걸음을 내짚으며 신문을 펼치던 명규는 생글생글 웃으며 자기를 뵈히 올려다보는 처녀를 보고 불에 덴듯 놀랐다.

영?! 이게 누군가.

천만뜻밖에도 선경이었다.

기뻐다. 반가웠다.

어떻게 되어 선경이가 신문에 났을가.

수채구멍으로 물 빨리워들어가듯 신문을 더듬는 명규의 두눈에 《애국은 헌신이다》라고 쓴 기사

목이 날아들었다.

×

병사시절 선경은 텔레비존으로 방영되는 《병사의 고향소식》시간을 제일 즐겨하였다.

선군시대의 선경으로 꾸러진 고향과 부모들의 일터가 소개될 때마다 기쁨과 공지에 넘쳐 환성을 올리는 동무들을 볼 때면 그들을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더구나 선경을 흥분시킨것은 새로 입대한 분대 전사의 고향을 찾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 감격과 기쁨에 울고웃는 사람들에게 군대에 나간 자식들이 몇이나 되는가 일일이 물어보시고 내가 찾아온것을 알면 초소에 있는 병사들이 기뻐할것이라고, 그래서 힘이 들어도 병사들의 고향을 다 찾아가보겠다고 하셨다는 말씀이었다.

아, 우리 고향도 언젠면 아버지장군님을 모시는 영광을 지닐가.

간절한 소원을 마음속에 산처럼 쌓으며 선경은 그날을 손꼽아기다려었다.

하지만 1년... 2년... 해를 넘기며 기다렸지만 선경의 고향소식은 끝내 방영되지 않았다. 하도 산 끝이어서 텔레비존촬영가들이 가지 못하는것이 아닐가. 애바르게 가슴을 태우는 의문을 풀지 못한채 제대된 선경을 맞아준 고향은 군대에 입대할 때와 거의나 달라진것이 없었다.

여기저기 볼품이 없이 널려져있는 형식이 낡은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은 텔레비존에서 본 전우들의 고향과는 대비할수 없게 초라하였다.

이런 고향을 아버지장군님께서 찾아주시기를 바랐고 텔레비존으로 방영되기를 기다렸다고 생각하니 선경은 억이 막히었다.

남들은 자기 고향, 자기 일터를 선군시대의 선경으로 꾸려놓고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릴 때 우리 고향 사람들은 도대체 뭘하고있었는가.

가슴속에서 고평치는 반발심을 안은 선경은 제대배낭을 벗기 바쁘게 관리일군들을 만났다. 그들중에는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아버지도 있었다.

설분을 토하듯 하는 선경의 말에 처음 그들은 눈섭들을 곤두세우다가 사리정연한 반격에 점차 기가 꺾이여 한숨으로 엮어진 구차한 변명들을 빨래줄처럼 늘어놓았다.

우리라고 왜 남들처럼 번듯하게 꾸릴 생각을 안했겠는가, 하지만 이부자리보고 발을 퍼했다고 일

이란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것인데 이 구석진 산골에 뭐가 있는가, 개인집 부뚜막 하나 보수하자고 해도 술한 자재와 품을 들여야 하는데 하물며 농장을 꾸리자면 얼마만 한 자재와 품을 들여야 하는지 상상해보라.

별의별 조건과 구실로 엮어진 우국지사들의 한숨에 선경은 몸이 다 부서지는것 같았다.

병사시절 무슨 일이든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혁명적군인정신을 체질화한 선경은 이런 때에 그들의 요새를 뚫고들어간다는것은 그 어떤 리성적인 설복으로도 불가능하다는것을 잘 알았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말도 길다고 하지 않는가.

자신의 실천으로 패배와 보수의 요새를 허물어버리리라 결심한 선경은 청년들을 발동하여 함께 일떠섰다. 우리가 기치가 되자, 피가 한동아리씩 끓고있는 우리가 앞장에서 고향을 희한하게 꾸러놓고 큰소리를 치자.

선경은 농산작업반에 배치되어 일을 하는 짬짬이 군건설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장군님께서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주신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도면을 그리었고 세멘트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해 석회석 원료를 찾아 주변산을 신발이 닳도록 빗질하였으며 설비를 해결하기 위해 기계공장정문을 부지런히 드나들었다.

그 나날에 복스럽던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눈에는 피발이 서고 자주 코피까지 쏟았다.

일부 사람들은 사서 고생하지 말라고 동정을 하였다.

그때마다 선경은 고집스럽게 머리를 흔들었다.

《그게 어떻게 고생이겠어요. 전 한번도 자신이 고생한다고 생각해본적이 없어요. 더우기 될수 있는가 없는가 타산해본적도 없구요. 내 고향을 선군시대의 선경으로 꾸리고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릴수만 있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밖에 몰라요.》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선경의 헌신과 청년들의 노력끝에 땅속깊이 숨어있던 석회암이 머리를 쳐들었고 기계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유휴자재를 수집하여 자그마한 세멘트소성로를 만들어주었다.

보수의 요새에 든든히 틀고앉아 승산없는 마라손경주를 하는것 같은 선경을 시큰둥한 눈길로 지켜보던 우국지사들이 그것을 보고 불판에 오른 개미들처럼 급해맞아 황급히 뛰쳐나왔다.

그들은 때가 늦긴 하였지만 우국은 애국이 아니며 진실로 애국을 하려면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고향과 일터를 뜨겁게 품어안고 한몸을 내대야 한다는것을 뼈에 새기게 되었다.

×

명규는 더이상 글을 읽을수가 없었다.

지난날 천산농장의 일부 일군들의 처신에서 꼭 자기를 보는것만 같아 얼굴이 뜨끔하였다.

선경이, 명규의 눈앞으로는 고향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안고 자기 고향을 남부럽지 않게 꾸려 아버지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자기 한몸을 초물처럼 깡그리 태운 처녀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가섰다.

그렇듯 장한 일을 하고도 자기앞에서 한번도 내색하지 않은 처녀.

추억의 물이랑은 휴양의 나날 양어와 축산을 배합한 종합축사를 건설하기 위해 밤새 80여리를 걸은 선경의 모습을 보고 다가왔다.

《아이참, 세상에 마음먹어 못할 일이 있어요? 내 고향을 더 아름답게 꾸리고 농장원들이 덕을 볼수만 있다면 난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겠어요.》

나는 그때 선경의 그 말을 주관적인 욕망과 고집으로 이해하고 남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지. 자신에 대한 환멸과 후회를 실은 추억의 배는 그만 사진전시회장에서 좌초되고말았다.

《동무의 고향도 저 사진처럼 아름답게 꾸렸겠지요?》

선경의 그 물음에는 명규 나도 선군시대의 애국자들과 같은, 자기 고향과 일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을 지닌 인간으로 보고싶었던 믿음과 기대가 담겨져있는것이 아니였는가.

그런데 나는 그런 인간들의 발뒤꿈치에도 못가면서 황당하게도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으니 이 얼마나 가소롭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가.

자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명규는 한시바삐 선경의 고향을 보고싶은 욕망을 누를길이 없었다.

×

천방지축 천산리로 걸음을 내짚는 명규의 온몸은 온통 물주머니가 되었지만 더운줄도 힘든줄도 몰랐다.

풀어놓은 땀기처럼 구불구불 뻗어간 산골길을 따라걸던 명규의 눈앞에 드디어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산기슭을 따라 조화롭게 지은 각이한 형태의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 동화세계를 방불케 하는 탁아소와 유치원, 맑은 호수가에 떠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수지보트들.

그 모든것들을 유심히 살펴보느라니 눈에 익은 고장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어디서 이처럼 아름답게 꾸린 고장을 보았던가. 재빨리 기억의 갈피를 헤집은 명규의 입에서는 가벼운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 그러니 그때...》

사진전시회장에서 본 그 사진이었다.

그 사진에는 찍혀지지 않았지만 저 앞 호수끝에 새로 일떠세운듯 한 대형려객선을 방불케 하는 3층 짜리 건물은 선경이가 문평에 가서 그려온 그 종합 축사일것이다.

그러니 선경은 자신의 결심을 실천으로 옮긴셈이다.

눈이 번쩍 뜨이었다. 보는것마다 친근하게 느껴졌다.

사진으로 보았을 때도 인상이 깊었었는데 실지 실물로 보니 더 아름답게 안겨왔다. 저 모든것들에 선경의 구슬땀이 스며여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났다.

허나 마음 한구석에는 저렇듯 아름다운 고향자랑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선경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머리를 쳐들었다.

왜 말을 하지 않았을가. 왜... 왜...

하긴 그때 사진에 찍힌 고장이 선경의 고향이라는걸 알았다면 난 어쩔번 하였는가. 아마 창피감으로 머리를 쳐들지 못하였을것이다. 혹시 선경이가 이미전에 초라하기 그지없는 내 고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있은것은 아닌지.

예측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제 선경이앞에 무슨 체면으로 나선단 말인가.

자가당착에 빠진 명규의 눈길이 저도 모르게 신문으로 옮겨졌다.

얼굴에 웃음꽃 함뿔 담은 선경이가 명규를 뵈히 올려다보며 이렇게 조소하는듯싶었다. 거짓말쟁이라고...

얼빠진 사람모양 선경을 마주보는 명규의 입가에는 쓴웃음이 스치었다. 온몸을 휘감는 수치감으로 숨이 가빠났다.

그때였다.

별안간 등뒤에서 《아니, 야! 너 이 삼촌을 뺑개치고 혼자 달아나면 어쩐다는거냐?》하는 외삼촌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잔등을 두드리었다.

명규는 놀란듯 돌아섰다.

민망한 눈길로 명규를 쳐다보는 외삼촌의 결에는 우편통신원녀인이 자전거손잡이를 잡고 서있었다.

그제서야 명규는 외삼촌을 뺑구어놓고 혼자 왔음을 깨닫고 당황해하였다.

《미안해요. 외삼촌, 내 그만...》

변명하듯 중얼거린 명규가 얼결에 손에 쥐고있는 신문을 내밀었다.

의외에도 외삼촌이 너그러운 웃음을 지어보였다.

《허허허! 내 네 심정을 다 안다. 오면서 통신원아주머니한테서 그 처녀에 대한 말을 다 들었다. 오늘신문도 보았고... 참 훌륭한 처녀더구나.》

《?!》

《아주머니, 내가 얼마나 주책머리없는 사람이가 보시우. 글썄 아까 우리 조카앞에서 그 처녀가 산골에서 별방에 나가 살게 되어 크게 황제한셈이라고 말했다가 락후하다는 말을 듣지 않았겠소, 허허허.》

《그래요, 호호호!》

제 흉에 떠서 어깨를 들썩이던 외삼촌이 서둘러됐다.

《자, 그럼 어서 가자꾸나. 지금쯤 처녀의 집에서 기다리겠는데...》

명규는 입가에 어설픈 웃음을 떠올리며 절레절레 머리를 흔들었다.

어리둥절해진 외삼촌의 눈이 멍들해졌다.

《왜 그러느냐?》

상심한 표정으로 외삼촌을 마주보던 명규가 짜내는듯 한 목소리로 겨우 말하였다.

《외삼촌, 돌아가자요.》

《돌아가다니?》

성급하게 반문하는 외삼촌의 목소리는 짜증에 가까웠다.

《사실... 난 선경동무에게...》

피로운듯 길게 한숨을 내뿜은 명규는 사진전시회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토설하였다.

《그런데 내 무슨 체면에 이제 그 동무앞에 나타나겠어요.》

신중해서 듣던 외삼촌이 랑패한 표정으로 탄식하듯 중얼거렸다.

《세상에 그런 황당한 거짓말을 한단 말이나. 너 틀러먹었구나. 그거야 너무하지... 헛참...》

크게 실망한듯 소래썩은 모양을 하고 머리를 흔드는 외삼촌을 보며 통신원녀인이 눈을 찡긐하였다.

《아이, 뭘 그렇게 심중해서 그러세요. 사랑에 빠지면 눈귀가 막히고 없던 담도 생긴다지 않아요. 우리 사위도 맨처음 우리 딸에게 반해 돌아갈 땐 별의별 허풍을 다 칩니다. 손톱눈만 한걸 가지고도 수박만큼이나 크게 과장하면서 말이에요.》

녀인이 얼마나 말을 재미있게 하는지 긴장해있던 명규의 입이 저절로 벌어졌다.

나이로 봐선 도대체 사위가 있을것 같지 않은 녀인이 일부러 자신의 마음을 농쳐주려는것이 험등하게 알리었다.

명규는 그가 고마왔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뒤집을 지고 몇걸음 왔다갔다하던 외삼촌이 결심이 선듯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왔다가 아쉽긴 하지만...》

네 결심이 그렇다니 나도 어쩔수가 없구나. 돌아가자. 참, 아주머니 보기엔 우리 조카 결심이 어땡소?》

《아이구! 그걸 내가 어떻게...》

기급하여 한걸 뒤편 녀인은 마치도 그들의 중대사를 판가름하는 재판관이기라도 한듯 엄숙하게 자기 의향을 내비치었다.

《나도 아쉽긴 하지만... 처녀앞에 부끄럽지 않게 나서려는 조카의 결심이 옳다고 봅니다. 사람은 언제나 떳떳해야지요.》

마지막말에 력점을 찍는 녀인의 말에 오그라들었던 명규의 마음이 활 열리는듯싶었다.

옳다, 사람은 언제나 떳떳해야 한다.

순간순간을 나는 조국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는가라는 심장의 물음을 제기하고 애국의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쳐 오늘의 벽찬 시대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좋은 말을 해주어 고맙습니다.》

녀인은 의미있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그들의 눈앞으로 한쪽의 그림자도 같은 선경의 고향땅이 유정하게 안겨왔다.

그 모든것을 안고가려는듯 이윽도록 지켜보는 명규의 가슴속에서는 심장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선경이, 난 오늘에야 비로소 애국은 말로 하는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 내대는것으로 되여야 한다는것을 알았소. 내 이제 돌아가면 고향을 남보란듯이 꾸러놓고 동무앞에 떳떳이 나서겠소. 믿

어주요.》

×

그로부터 며칠후.

명규네 작업반에 난데없이 세멘트를 가득 실은 화물자동차 한대가 들이닥치었다. 영문을 몰라하는 명규앞에 하늘에서 내려온듯 선경이가 생글생글 웃으며 나타났다.

명규는 깜짝 놀랐다.

《?!》

《우편통신원아주머니를 통해 다 들었어요. 집문앞에까지 왔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법이 어데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물론 농장사람들이 얼마나 섭섭해한줄 아세요.》

진정으로 섭섭해하는 선경을 보는 명규는 맨발로 화로불을 밟은 사람모양 급해맞아하며 중언부언하였다.

《미안하오... 사실은...》

《호호호! 그만하세요. 그날 우리 관리위원장동지가 동무보고 뭐라고 한줄 아세요.》

선경은 짐짓 뒤집까지 지며 관리위원장의 흉내를 내며 말을 이었다.

《허, 거 듣고보니 선경이 서방될 친구가 맹물은 아니로구만. 팬찮아, 사내대장부가 자존심이 그쵸해야지 하시며 동무네 농장을 꾸리는데 필요한 세멘트를 보내주자고 하시지 않겠어요. 뭐 내가 시집갈 레장감이라나요.》

《?!》

감심하여 세멘트차를 보는 명규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번글거렸다.

《이거... 뭐라고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배꽃처럼 환한 얼굴에 웃음을 함뱉 떠올렸던 선경은 갑자기 새초롬해지며 명규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동무의 고향도 우리 고향처럼 아름답게 꾸릴 수 있어요?》

순간 명규의 뇌리에는 사진전시회장이 떠올랐다.

그때는 사랑이라는 달콤한 향기에 취해 아무 생각없이 대답을 하는 실수를 하였다면 오늘에야 왜 자신만만한 대답을 못하랴.

《그럼!》

배심있게 대답을 하는 명규를 보는 선경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찰랑거리었다.

당과 수령, 조국과 결부된 인간의 운명문제를 제기한 시인 김상오의 작품들

최 남 순

이 강산의 따뜻한 봄빛은 우리에게 참다운 삶을
안겨주신 우리 수령님에 대하여, 우리 운명을 지켜
주고 꽃피워주는 당과 조국에 대하여 하많은 생각
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자기의 작품들에 당과 수령, 조국과 결부
된 인간의 운명문제를 제기하고 열렬히 토로한 수
많은 선배시인들도 다시 추억하게 한다.

그들중에는 시인 김상오도 있다.

김상오는 자기의 작품들에서 레사롭고 평범한 생
활을 노래하면서도 반드시 심오하고 예리한 인간의
운명문제, 사회정치적문제를 제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은 예술적화폭을 통하여 인간의 운명문제
에 해답을 주는 생활의 철학이다.》

김상오의 시작품들이 철학적무게를 가지는 가장
주되는 원인은 매 작품들에 우리 시대 인간들의 운
명문제를 깊이있게 제기하였기때문이다.

사실상 당과 수령, 조국과 떨어진 우리 시대 인
간의 운명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로동당시대, 선
군시대에 와서 우리 문학은 이때까지의 인류문학이
대상하지 못하였던 전혀 새로운 세계, 온 사회가
수령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위
대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 시대의 현실은 문학작품들에 당과
수령, 조국과 결부된 인간문제를 심오하게 제기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한다.

무엇보다 김상오는 당과 수령과 결부된 인간의
운명문제중에서도 정치적생명에 관한 문제를 심각
하게 제기하였다.

그는 자기의 산체험을 통하여 인간에게 있어서 정치
적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뼈저리게 느낀 작가이다.

시인은 여러 시들에서 자신에게 정치적생명을 안
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 다함
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절세위인들께서 안겨주신 정
치적생명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은정이라
고 노래하였다.

...

아

어찌리오! 나는 비로소 깨달았노니
사랑의 언어가
그토록 무력한것을
그토록 빈약한것을

깨달았노니

그이께서 주신 나의 삶과
또 천백의 후대의 삶을
고스란히 모아드려도 갚을길 없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정이 있다는것을

(시 《그날 그 순간》중에서)

무릇 어머니는 자식에게 생명을 준 그것만으로
도 위대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나라 천만전사들이 받아안은 정치적
생명이 바로 자기의 삶과 후대들의 삶을 다 바쳐도
갚을길 없는 위대한 사랑이고 은정이라는것을 노래
한 여기에 시의 철학적무게가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시인 김상오는 당과 수령과 결부된 인
간의 운명문제중에서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여나가는 인간의 참된 삶의 문제를 뚜렷이
제기하였다.

시인은 시 《감사》에서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는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어떻게 보
답하여야 하는가를 이렇게 노래하였다.

...

저는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말 아닌 높이 뛰는 심장만이
그러한 뜨거움을 지닐수 있다는것을

당이 준 심장
당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을 받아
그 뜨거운 피로 뛰는 심장만이
이 뜨거운 감사의 정을
지닐수 있다는것을

당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당의 아픔으로 아파하는
붉은 심장
영원히 수령님과 당만을 따를
뜨겁고 순결한 심장
그 심장속에만 그 말이 있다는것을

...

시인은 당과 수령의 사랑과 믿음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에 관한 문제, 즉 삶의 자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당의 기쁨으로 기뻐하고/당의 아픔으로 아파하는/붉은 심장》을 지닌 인간만이 우리 시대 참된 인간이며 참되게 살수 있는 자격을 지닌 인간이라는것이다.

이러한 철학적문제들은 시 《저의 가장 귀중한 곳에》, 《땅위의 별들》 등에서 보다 구체적인 화폭으로 해명되었다.

또한 시 《아이들에게》에서는 당과 수령과 결부된 인간의 삶에 관한 문제를 민족의 미래와 결부된 문제로 깊이있게 심화시키었다.

생각지 말라 나의 아이들아 결코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이 타고난것이라고는
그 어느 행운의 별밑에 너희들이 태어나
스스로 찬란한 삶이 시작되었다고는

잊지 말라 아이들아 어느때이고
너희들에게와 또 너희들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에게 고귀한 생명과 행복한 삶을 주신
진실로 자애로운 아버지가 계신다는것을

가거라 머리를 들고 너희들의 노래를 부르며...
진리를 찾으라
행복을 원하라
미래를 바라보라
허나 너희들의 진리 너희들의 행복
너희들의 미래가
다름아닌 바로 그분이심을 알라

...

시는 당과 수령과 결부된 우리 인민의 오늘의 삶에 관한 문제뿐아니라 후손만대의 끝없는 미래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것으로 하여 철학적무게를 가진다.

수령과 결부된 인간의 삶만이 영원하며 수령을 모신 민족의 미래만이 아름답다. 우리 미래의 생사 존망, 그 영원함은 오로지 수령에 의하여 담보된다는것을 열렬히 주장한 여기에 시의 심오성이 있는것이다.

다음으로 시인 김상오는 당과 수령과 결부된 인간의 운명문제중에서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는 인민의 궁지에 관한 문제도 뚜렷이 제기하였다.

위대한 당, 위대한 수령을 모신 크나큰 삶의 궁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작품들로서는 시 《영원한 전사의 노래》, 《열다섯해》, 《당에 드리는 노래》, 《우리 당》, 《아름다운 기슭》 등을 들 수 있다.

시 《영원한 전사의 노래》에서는 수령님의 전사로 사는 그것이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이고 궁지며 존엄이라는데 대하여 절절히 노래하였다. 이 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전사의 궁지문제가 삶의 행복에 관한 문제와 밀접히 결부된것으로 하여 특색있다.

서정적주인공—시인은 수령을 모시지 못했던 인민의 슬픔을 겪은 체험자이다.

《몹시 슬프던 그때/꽃을 보아도 슬프고/나는 새를 보아도 슬프고/떠가는 흰구름을 보아도 눈물이 날 때》를 체험하여본 그는 위대한 수령이야말로 《삶의 시원이며 미래 그 모든 의미》라는것을 열렬히 토로하였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을 모신 행복의 높이, 행복의 무게는 그대로 존엄높은 삶의 높이이고 무게라고 시인은 토로하였다.

이처럼 시에서는 인간의 행복과 슬픔에 관한 문제를 혁명적수령관의 견지에서 제기하고 민족의 행복한 오늘과 불행하였던 어제와의 대조속에서 깊이 있게 해명하였다.

또한 시 《열다섯해》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영광의 세월을 주름잡는 조국의 역사를 아름답고 환희로운 화폭속에 펼쳐보이면서 수령의 원대한 리상과 꿈은 곧 인민의 행복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리상의 세계에 대하여, 그 세계를 자기자신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진리로 믿는 인민의 행복에 대하여 환희에 넘쳐 노래하였다.

시에서는 계속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리상하

시고 념원하시는 그 모든것을 절대적인 삶의 목표로 삼고 투쟁하여나갈 인민의 굳건한 맹세를 토로 하였다.

하여 시의 제목은 《열다섯해》이나 다만 그 열다섯해만을 노래한것이 아니라 수령의 위대한 리상에 의하여,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실천하는 인민의 무한한 힘에 의하여 더욱더 아름다와질 무궁한 조국의 세월을 노래하였다.

이처럼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그 문제에서 산생되는 여러가지 의미를 깊이있게 파고들어 보다 심각하고 철학적인 문제로 돌진하는 여기에 시인 김상오의 인간문제제기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작품들에서 시인은 하나의 문제점에서보다 깊은 의미, 새로운 의미를 도출해내곤 하였다.

제기하는 인간문제가 깊이있으면서도 보다 많은 의미를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그의 시는 남달리 철학적무게가 있는 작품으로 평가되는것이다.

당과 수령과 결부된 인간의 운명문제를 제기한 시인 김상오의 작품을 판통할수 있는 철학적인 문제는 한마디로 당과 수령이 없으면 나도 없고 우리도 없으며 오늘도 없고 래일도 없다는것이다.

《나》로 표현되는 인민의 모든 삶도 어제와 오늘, 래일을 다 안은 이 땅의 무궁한 세월도 오로지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만 존재한다는것이 당과 수령에 대한 김상오의 작품들에서 내세운 총적인 주제였다.

다음으로 시인 김상오의 작품들에서 조국과 결부된 인간의 운명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서정시 《나의 조국》이 조국애를 노래한 작품들중의 거봉이라면 아래의 조국애주제의 작품들은 그 거봉을 받들고있는 작은 산줄기라고 할 수 있다.

당과 수령과 결부된 인간의 운명문제를 취급한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볼 때 보다 정론적이였다면 조국애의 작품들은 보다 생활적이고 구체적인 시적정황을 안고있는것이 특징이였다.

시인은 우선 인간의 구체적인 생활속에 깊이 뿌리내린 조국의 의미를 깊이있게 파고들었다.

시 《고백》을 보자!

시인은 《불빛이 안개처럼 퍼져내리는/호젓한 강기슭》을 걷는다. 강반에는 청춘남녀들의 사랑의 속삭임이 가득찼다.

시인은 아름다운 청춘들의 삶을 축복하며 걸음을 옮긴다. 시인은 강물과 불빛과 그 모든것이 정

답고 아름답기에 끝없이 걷는것이다.

시인은 고백한다.

《그대없인 살수 없구나 평양아! 그대없인 살수 없구나 어머니—조국아!》하고 시 《청춘》에서도 역시 시인은 또다시 고백한다.

...

고백하노니

나는 그대들을 사랑했노라

그 젊음 그 아름다움 그 발랄함은

그리고 금빛노을처럼 찬란한 그 미래를

나는 사랑했노라 그대들을 조국처럼

그렇다 조국처럼

조국의 딸들인 그대들을 사랑했노라!

두 시에서 하나로 주장하고자 하는 문제는 사랑과 조국, 인생과 조국에 관한 문제이다.

시인의 심장속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짙차있었다. 무한한 주위세계에도 조국이 있고 시인의 심장속에도 조국이 있다.

구체적인 생활을 노래하면서도 바로 이러한 철학적문제를 판통시켜나간것으로 하여 김상오의 조국에 대한 시들은 웅당한 격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또한 조국과 결부된 인간의 운명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시인이 적극적으로 내세운 문제는 조국의 래일에 대한 문제였다.

결론을 앞세운다면 조국은 인간의 오늘의 삶일뿐 아니라 래일의 삶이기도 하다는것이다.

이것은 조국은 단순히 태를 묻고 나서자란 고향산천이 아니라 인민의 참된 삶이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이 영원히 담보되는 곳이라는 주체적인 조국관에서 시작된 철학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반영한 작품들로서는 시 《꽃밭》, 《첫인사》, 《거리를 걸으며》, 《새벽》, 《참된 삶이 탄생하는 집》 등과 같은 시가 있다.

이처럼 김상오의 조국주제작품들에서는 조국 그 자체가 바로 오늘의 참된 삶이고 래일의 담보라는 철학적문제를 제기하고 수령에 의하여 꽃피나는 조국은 운명의 모든것임을 다시한번 확신케 한다.

김상오의 시작품들은 오늘도 우리 시인들에게 이렇게 웨치고있다.

시인들이여!

아름답고 정다운 그 모든 생활들을 다 노래하라! 그 모든 아름답고 정다운 생활을 안겨주신 우리수령, 우리 당, 우리 조국을 진정바쳐 노래하라!고.

《김정일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뜨겁게 덥혀주는
참다운 애국주의입니다.》

김 정 은

기 행

천마산탐승기

리 성 덕

천마산은 그 이름이 박연폭포와 함께 알려진 산이다.

천마산과 성거산의 두 산줄기가 박연폭포를 감싸안으면서 높이 솟아있는데 천마산은 이 두 산줄기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다. 뿐만아니라 강원도 두류산에서 발원하여 송악산에서 마감짓는 아호비령 산줄기중에서도 백년산(1 341m), 천을봉(1 216m) 다음가는 봉(762m)으로서 개성일대에서는 제일 높고 험준한 산이다.

옛 지리책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개성지방의 지방지인 《송경지》에는 천마산을 두고 여러 산봉우리들이 삐죽삐죽 하늘에 꽂혀있는듯 한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 푸른빛이 엉켜돈다고 하여 천마산이라고 부른다고 써여있었다.

글로 쓸 때는 천마산(하늘 천, 갈 마, 뫼 산)으로 쓰는데 산이 하도 높아 오가는 구름이 산봉우리에 걸리면서 하늘을 갈아낸다는 뜻으로 그렇게 부르는것이다.

우리가 잘 알려져있지 않은 천마산탐승길에 오르게 된것은 이 나라의 푸른 산, 푸른 들에 어려있는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발자취를 온 심혼에 깊이깊이 새기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아주 우연한 계기에 맞다들려 발휘된 작가적인 의무감에서라고 해야 할것이다.

우리들은 지난해 박연 관음사관리원 리동환동무로부터 천마산꼭대기에 있는 집채같이 큰 바위에 한시 한수가 새겨져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들었다.

아홉줄로 된 그 한시를 그가 한획한획 그리다싶이하여 정성껏 베껴가지고온것도 보았는데 글자획이 분명하지 않은것도 있고 낯선 글자도 더러 보였지만 천마산의 풍경을 읊조린 시가 틀림없었다.

천마산의 풍경을 노래한 한시!

옛적에 천마산을 노래한 한시유적이 나타나다

니?!

지난해에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맞으면서 박연전설을 책으로 집필편집하여 세상에 내놓았다.

그때 천마산의 전설을 취재집필하면서도 우리는 이 산정에 석각한시가 있다는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랬던탓에 그 내용을 전설에 반영하지 못한것은 더 말할것도 없고 한시에 형상된 천마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에 대하여서도 잘 그려내지 못하였었다. 이러한 불미한 점들을 하루빨리 가시고 더 큰 새 걸음을 내디디기 위하여 우리는 천마산탐승을 하루도 미룰수 없었다.

그리하여 지난해 10월 우리 일행 여섯명(리성덕, 전철호, 김현우, 변희철, 김정민, 엄창도)은 배낭을 짊어지고 등산길을 떠났다.

박연폭포 못가에서 점심을 치른 후 관음사에서 집을 풀었으며 기다리고있던 리동환동무와도 상봉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찌기 걸음빠른 리동환동무의 안내를 받으면서 탐승의 길에 올랐다.

관음사에서 대흥사까지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은정어린 말씀에 따라 새로 건설한 유람도로를 따라 걷고 대흥사 앞마당의 운동장처럼 넓게 펼쳐진 너럭바위를 지나면서부터는 너렁청한 대흥사의 옛터를 가로질러 수목이 울창한 산비탈에 붙어섰다.

오솔길 양옆에 우거진 풀숲에 구슬처럼 맺힌 아침이슬을 지팡이로 툭툭 쳐 떨구면서 리동환동무가 앞장서서 걸어갔다.

한동안은 그리 어렵지 않게 따라걸었고 산길도 그리 가파롭지 않아서 힘든줄 몰랐다.

점차 서쪽으로 굽어드는 오솔길을 따라 걸으니 키높이 자란 도토리나무들이 무성해지면서 하늘을 가리우고있었다.

오솔길우에 덮인 락엽우에는 반들반들 윤기도는

손가락 한마디만큼씩이나 굵은 도토리알들이 한벌씩 깔려있었다. 그런 곳에는 도토리를 주어먹으려고 메뚜기들이 무리지어 나와 주둥이로 발을 갈듯이 땅을 두들겨놓은 흔적들이 자주 보이였다.

하지만 우리에겐 그 욕심나는 도토리를 주을 겨를이 없었다. 영글대로 영글 도토리알들이 밟히어 발이 쪽쪽 미끄러질 때도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어서 바위에 새겨져있다는 한시를 보고싶은 마음뿐이었다.

개울옆 평퍼짐한 공지에 있는 한 틈막자리에서 우리들은 다리쉬를 하고있는 두명의 길손들을 만났다.

《우리도 쉬어갑시다!》

일행중 제일 뒤쪽에서 따라오던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너그럽게 대답하였다.

《예, 그럼시다. 었어진김에 쉬어간다구 길손들을 만난김에 쉬어갑시다.》

이렇게 되어 우리들은 누운 진대나무에도 걸터앉고 길옆 잔디우에도 퍼터버리고앉아 땀을 들이기 시작하였다.

서로 통성명을 하고보니 대흥사로 간다는 그들은 개성시 삼거리협동농장 조림분조원들이었는데 삼거리쪽에서 아침결에 떠나서 금방 천마산을 넘어 대흥골로 내려서는 참이라고 하였다.

천마산을 넘다니?! 우리는 놀라운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아직 아득한 천마산아래어름에서 머물거리고있는데 그들은 벌써 산을 넘었다는것이다.

우리들의 놀라는 표정을 보고 그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인상으로 제격 대답하였다.

《우리 조림분조원들은 흔히 천마산을 제집 문턱 넘나들듯 한답니다.》

《흔히요?》

나이가 쇠가까이 됨직한 분조장이 사람좋은 웃음을 빙그레 띠었다.

《조림작업이라는게 그저 그래보여두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랍니다. 나라의 산림자원을 가꾸는 일이니까요. 박연에서 송이버섯이 많이 난다기에 대흥사에 찾아가서 알아보고 우리네 조림담당구역인 천마산에다 퍼뜨려볼가 합니다.》

《네— 그것참 대단한 일을 하시는군요.》

《허허, 대단하기야 무슨... 우리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주의를 본받아 실천에 옮기려할뿐이지요.》

《!》

《작가선생님들도 한시를 보러 간다고들 했는데 그것두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주의를 받드는 일이겠지요? 모르는 소견에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허허... 모르는 소견이 아니지요. 우리들모두

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그 한마음인걸요.》

《웁습니다. 다 한마음이란 그 말이 참말 좋군요.》

즐거운 마음으로 한동안 휴식하고난 우리는 다시금 길을 떠났다.

해는 푸른 가을하늘우로 높이 떠서 빛나고있었다.

시계를 보니 어느덧 열한시가 훨씬 넘었다.

갈길은 아직도 멀다. 걸음을 다그쳐야 하였다.

맨 앞장에서 길을 헤치는 리동환동무는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힘들지 않게 오르고있는듯 한데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헉헉 가쁜숨을 몰아쉰다.

저 앞쪽 고개를 넘어서 좀더 가면 대흥산성 소서문이 나지고 여기서 서쪽으로 꺾이여 매우 가파로운 산 하나를 넘으면 곧바로 천마산정점으로 오르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들은 등산의 마지막고비에 이르렀다는것을 깨닫고 힘을 다하여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이제부터는 길이 따로 없었다. 발디딜 곳을 찾은 다음 나무초리를 휘여잡으면서 툭아올랐다. 눈앞에는 거뭇거뭇한 산마루와 그우에 걸린 텅빈 하늘만이 보일뿐이었다.

눈길이 닿는 이 근방에는 저 산마루보다 높은 산이 없다는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자, 이 손을 잡으시오. 다 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리동환동무의 힘을 내라고 부추겨주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잠시후 앞장에서 오르던 김현우선생이 《어이쿠! 만세다!》하고 환성을 내질렀다.

우리는 이렇게 한사람 한사람 이끌림을 받으면서 산마루에 첫 발자국을 내질렀다.

잡판목이 무성하게 우거진 산마루우에는 좁은 길이 나있었다. 우리는 그 오솔길 좌우켠에 아무렇게나 쓰러져 다리를 뻗고 반쯤 눕거나 앉아서 나무그늘사이로 파랗게 들린 하늘을 쳐다보았다.

한낮이 지난 해님이 푸른 하늘우에서 내려다보며 빙그레 웃고있었다.

자, 이제는 어느쪽으로 가야 할지...

리동환동무의 말에 의하면 정점으로 오르자면 오솔길을 따라 얼마간 더 올라야 하고 한시가 새겨진 바위쪽으로 가자면 마루를 넘어 다시 서쪽으로 얼마간 내려가야 한다는것이였다.

우리는 한시가 새겨진 바위쪽으로 먼저 가기로 결정하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떠엄떠엄 시켜먼 큰 바위돌들이 박혀있는 경사 급한 길을 따라 200m쯤 내려가자 평퍼짐한 공지가

나지였다. 그 공지의 서북쪽벼랑에 면한 곳에 높이가 두어길 잘되고 길이가 대어섯발 실히 되는 큰 바위 몇개가 뽕달려 솟아있는것이 보이였다.

여기라는 생각이 떠오르는것과 함께 웬일인지 가슴이 울렁거려였다.

드디어 변희철동무의 기쁨에 뜬 환성이 들려왔다. 《아, 드디어 왔구나! 만세!》

잠시후 우리들은 바위앞쪽에 주련이 모여섰다.

흰 화강석바위는 큰 메주덩이 두어개를 잇대여 빚어놓은듯 한 길죽하고 두툼한 모양인데 약간 앞쪽으로 숙여진 그 앞면이 비교적 반듯하였다.

그 반듯한 바위앞면에 왼쪽으로 좀 치우쳐서 아홉줄의 한자가 내리방향으로 새겨져있었다. 바위면이 앞으로 약간 숙여져있었기에 물때나 이끼가 끼지 않아서 글자획과 바위색같이 비슷한것이 글자가 명료하게 안겨오지 않았다.

누군가가 바위아래 바닥에 피워놓았던 모닥불자리에서 숯꼬투리들을 주어들고 글자획을 하나하나 덧그어나갔다. 그러자 글자가 썩 잘 안겨왔다.

서체는 흔히 보는 행서체이고 글씨는 그리 세련되어보이지는 않았으나 글자마다 획이 또박또박하고 정확하였다.

한줄에 7자씩인 7언절구시체인데 아홉줄에 모두 63자의 글자가 새겨져있었다.

글제목은 따로 없고 마지막줄 일곱자는 《을미모춘 묵남제》(을미년 늦은 봄 묵남 지음)이라고 글쓴 년대와 쓴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있었다.

획이 분명하지 못한 글자와 해독하기 어려운 글자도 몇자 보이였으나 우선 사진으로 찍어놓고 뜻을 후에 천천히 번역해석하기로 하였다.

시계를 보니 낮 2시가 가까와오고있었다.

안내를 맡은 리동환동무가 바위아래쪽에 샘물이 있다고 하였다. 가보니 공지 한쪽구석에 있는 바위 째에서 샘물이 솟아나와 기와 두장너비만 한 확에 고여 찰랑이고있었다.

누군가가 날아드는 락엽과 먼지를 막으려고 널쭉 두개를 이어서 뚜껑을 해덮은것이 보이였다. 우리들은 목도 말랐지만 이 높은 산마루에서 샘이 솟는것이 너무도 신기하여 연방 감탄하면서 한웅큼씩 떠들고 물맛을 보았다. 그 물맛이 어찌 시원하고 단지 가슴이 썩하니 열리였다.

샘물웃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건너간 바위너설 위에 앉아 무엇인가 하고있던 김현우선생이 그 바위앞면에 새겨진 천(샘 천)자를 발견하였다.

《그아래쪽을 더 파보십시오.》

나는 넓적한 청석조각을 그의 손에 쥐여주었다.

바람에 날려와 쌓인 흙과 락엽을 파내리자 새겨진 글자가 또 하나 나타났다. 령(신령스러운 령)자

였다.

《아하, 령천이라, 신령스러운 샘물이라는 뜻이구만!》

《자, 령천샘물도 찾아냈겠다, 점심시간도 지났겠다, 목적했던바도 이루었겠다, 이제 점심을 못먹을 리유가 없지요. 어떻습니까?》

우스개 절반, 진담 절반의 요청이였다.

《아무렴, 금강산도 식후경이랴는데 모두들 점심을 드시다.》

이리하여 우리는 유쾌한 기분으로 바위앞에 둥그렇게 모여앉아 싸들고온 점심보자기들을 풀었다.

음식을 달게 들면서 우리들이 하는 생각과 화제는 한뼘으로만 흘렀다.

깨여진 기와조각들이 널려져있고 벼랑진 곳에 석축을 쌓았던 흔적이 뚜렷한것으로 보아 이 공지에는 크지 않은 암자나 작은 절간이 자리잡고있었을 것이며 승려들은 령천샘물로 밥을 지어먹고 이 샘물을 마시면서 념불도 외웠을것이라는것, 그리고 바위앞면 오른쪽 치우친 곳에 불상을 앉혔거나 제물을 놓아두던 곳으로 보이는 정으로 다듬어놓은 움푹하게 패인 단이 있는것으로 보아 이 바위앞에서 중들의 불공드리는 의식들이 자주 벌어졌을것이라는것 등 론의가 활발히 벌어졌다. 우리는 또한 묵남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은 분명 이 암자의 중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이름난 석수쟁이의 솜씨같아보이지 않는 비문은 그가 짓고 새겼을것이라는것, 그리고 시문에 샘물이름을 령천이라 하지 않고 령정(신령스러운 우물)이라고 쓴것을 보면 령천이라는 샘물이름을 먼저 돌에 새기고 그후에 그 샘을 우물로 만든 다음에 시문을 새겼던 때문이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는것, 그리고 암자의 이름은 시문에 《방장사》라는 문구가 있으니 방장사로 비정할수도 있을것이라는것, 그리고 돌면을 전혀 다듬지 않고 글을 새기는 고려시기의 전형적인 석각양식을 그대로 쓰고있는것 등으로 보아 시문은 고려 중기쯤 되는 어느 을미년 늦은 봄에 새겼을것이라는것 등을 목청을 돋구어가며 론의하였다.

힘겨운 등산끝의 출출함으로 더욱 맛 좋게 느껴지는 식사와 함께 열기면 론의로 점심을 끝낸 후 우리는 기념으로 사진도 찍고 한번 더 령천샘물을 떠마시고 이곳을 떠났다.

천마산정점으로 오르자는것이였다.

열기설기 집채같은 바위들이 덧쌓여 이루어진 정점으로 오르는 길아닌 길이 보이였다.

사람들이 정으로 바위에 파놓은 오목오목한 발디딜 자리들, 좁은 바위째과 바위너설을 붙잡고 간신히 비비며 빠져나가야 하는 아슬아슬한 절벽들... 발아래로 천야만이 아득히 내려다보이는 수천길 남

떠러지들… 먼곳의 푸른 산밭들을 내놓고서는 주변에서 보이는것이란 오직 하늘밖에 없다. 하늘, 하늘… 사방이 다 하늘이다.

아, 천마산, 천마산!

그래서 네 이름 천마산이더냐. 하늘을 갈아내 천다는 천고의 그 기상 지금도 력력하거니 전설속의 하늘궁전이 보석을 뿌린듯 네 발밑에 펼쳐졌구나!

아, 선군의 빛발아래 새롭게 머리쳐들고 일어서는 명승의 천마산이여!

가슴속에서 이런 웨침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온다. 나뿐이 아니라 우리 일행모두가 입을 다물줄 모르고 그저 《야! 야!》하고 감탄을 연발할뿐이었다.

문득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칠보산명승지를 찾으시였을 때 조국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아야 애국심이 생긴다고 하신 말씀이 가슴을 쳤다.

그렇다. 애국심은 빈터에서 생기는것이 아니다.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가슴깊이 아로새길 때 생기는것이다.

무엇이나 좋은것이라면 다 인민에게 돌려주시려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시면서도 우리 인민들이 누리도록 하여야 한다고 이르시였고 그 뜨거운 인민사랑으로 박연폭포에도 유람도로를 건설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밝혀주신 **김정일**애국주의야말로 자기 고향마을에 대한 사랑으로 시작하여 조국과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으로 이어지는 숭고한 사랑의 세계에 뿌리를 두고있는 참다운 애국주의인것이다.

우리는 천마산절정에 올라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한 가슴부푸는 자부심과 **김정일**애국주의의 참뜻으로 가슴을 불태우면서 마음속으로 만세를 부르고 또 불렀다.

이곳의 경치야말로 만세가 터져나올만 한 절경중의 절경이었다. 멀리로는 일망무제한 서해와 그 우에 점점이 떠있는 섬들이 푸른 운무속으로 아득히 내려다보이고 가까이에는 산들은 그 기기묘묘한 모습을 다투어 뽐내고있었다.

이곳의 경치가 하도 아름다와 조선봉건국가의 문인이였던 김창협(1651-1708)은 《송도유람기》(1671년)에서 《여기는 이 산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서 안계가 지극히 넓고 료원하다.… 서남쪽은 바다빛이 아득하고 못산들이 구름우로 남실남실하는 모양이 섬과 같이 보인다.》라고 썼다.

현란한 수식은 없으나 이곳 경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표현들이다.

우리가 산정에서 내려 등마루길에 나섰을 때 아침녘에 산아래에서 만났던 조림분조장을 만났다.

《어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같은 길에서 하루에 두번씩이나 만나니 인연이 있다고 봐야 하겠구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약속이나 한것처럼 또 만났습니다.》

분조장은 대홍사에 가서 일을 보고 그곳에 분조원을 떨구어둔채 혼자서 귀로에 올랐다는것이였다.

우리들이 산정을 구경하고 내려가던 길이라고 하자 그는 갈 때는 덜 가파로운 소서문쪽으로 내려가라고 하였다. 리동환동무가 그쪽길은 생소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소서문까지 길안내는 내가 맡겠습니다. 그쪽경치가 참으로 불만 하합니다.》하고 조림분조장은 의미깊게 웃었다.

이리하여 일행은 산정에서 서남쪽으로 향한 비탈길에 들어섰다.

처음 한동안은 경사급한 내리막길이 나지고 천마산 상상봉의 서북쪽비탈이 보이였다.

아, 천하절경이로구나!

조림분조장이 불만 하다더니 과연 일리가 있는말이었다. 산정이 그토록 아름다웠으니 거기서 흘러내린 산비탈의 경치라고 어찌 아름답지 않을수 있으랴!

경사급한 내리막길이 끝나자 성벽을 옆에 끼고 내리는 길이 나지였다. 여기서는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멀리 서쪽으로 애기봉이며 깃대봉의 기묘한 자태가 내려다보이였다. 이름도 모를 산봉우리들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모여들어 하나의 천연장벽을 이루었는데 바닥모르게 깊이 패인 계곡들과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아슬한 벼랑들에는 각양각색의 기암괴석이 엉켜붙어 천물상, 만물상을 이루었다. 이리 보면 못집승이요, 저리 보면 사람모양이라 바라보이느니 《사슴》과 《범》이고 비껴오니 삿갓 쓴 《중》과 《부처》인데 《중》의 긴 가사자락은 산바람에 나뭇기고 《천마장군》의 우람찬 팔뚝에 선 백척청룡검이 번쩍이누나.

이끼덮인 성벽은 굽이굽이 산을 휘감아내리는 룡의 비늘덮인 몸뚱이런듯 울긋불긋 단풍든 나무숲사이로 보였다사라졌다 하는데 그 모양 완전히 살아서 꿈틀거리는데 하구나!

천마산의 절경은 금강산을 그대로 닮았다.

그래서 예로부터 천마산을 개성의 금강이나 같다고 사람들이 일러오는것이다.

천마산은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절경으로 세상에 알려질것이다. 나의 불민한 언어구사력으로 천마산의 이 황홀경을 그대로 그려낼수 없는것이 한

스러웠다.

문득 조선봉건국가의 시인 송강 정철(1536—1593)의 유명한 국문가사 《관동별곡》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글로써 자연경개를 노래한다는것이 얼마나 뜻대로 이룰수 없는 일인가를 절감한때문이었다.

시재가 출중하고 우리 말 언어구사의 명수였던 송강 정철은 이미 수백년전에 금강산을 돌아보면서 유명한 가사 《관동별곡》을 창작하여 아무리 절묘한 풍경일지라도 말과 글로 재현하지 못할 풍경이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

아아, 조물주의 그 재간 놀랍기도 하구나
날거든 뛰지 말고 섰거든 솟지나 말지
련꽃을 꽃았는듯 백옥을 묶었는듯
동해를 박차는듯 북극을 피였는듯
높을시고 망고대 외롭구나 혈망봉

...

개심대에 다시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일만이천봉을 똑똑히 헤여보니
봉마다 땃혀있고 끝마다 서린 기운
맑거든 깨닫지 말고 깨닫거든 맑지 말지
저 기운 흠어내어 인결을 만들고저
그 모양 그지없고 생김새 하 많구나
하늘땅이 생겨날 때 제절로 되었던만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하기 그지없네
비로봉 꼭대기에 올라본이 누구인가

...

금강산과 다른없는 천마산의 절경을 보면서 《관동별곡》의 이 구절을 감회롭게 되새겨본이가 누구이고 그 얼마였는지 바이 알수 없다.

만일 송강 정철이가 천마산을 본다면 또 다른 하나의 《관동별곡》을 또 써냈을것이다.

산릉선길을 따라 얼마간 더 내려가니 잘룩한 산허리에 성벽을 좌우에 벌려안은 소서문이 보였다.

문루가 없는 둥그런 무지개형문이었다. 성문은 없었으나 화강석을 정교하게 다듬어 쌓아올린 돌축조물들은 튼바구니 하나 없이 굳건히 사캐물려서있었다.

이 소서문은 대흥산성의 서쪽문으로서 교통상 편리한 요충지에 위치하고있었던 이유로 하여 널리 이용되던 문이였고 지금도 사람들의 왕래가 끊기지 않는 곳이다.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박연폭포 가까이에 있는 대흥산성 북문을 보시고 우리 선조

들의 축성기술이 대단히 높았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력사유적이므로 보존관리를 잘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소서문 역시 선조들의 애국의 녀이 그대로 스며있는 귀중한 력사유적으로서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우리는 이곳까지 길안내를 맡아주었던 조림분조장과도 사진을 몇장 찍고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졌다.

불그레해진 저녁해빛을 등뒤에 지고서 성안으로 떨어져내린 길을 따라 우리는 대흥사로 향하였다.

대흥사에 도착하니 저녁 5시가 넘었다.

대흥사앞 경사급한 돌계단에 걸터앉으니 먼길의 피로가 일시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는 누구나 쉽사리 가불수 없는 천고의 천마산정점을 탐승했을뿐아니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한시유적을 발굴했다는 긍지와 자부심이 끓고있었다.

우리는 빨리 어둡는 계곡의 저녁어스름을 헤치면서 힘든줄 모르고 시원하게 뻗어간 유람도로를 따라 관음사에 도착하였다.

땀에 젖은 얼굴과 발을 시원한 명승지의 개울물로 씻고나니 몸은 날아갈듯이 가벼워졌다.

이튿날 아침에 우리 일행은 박연을 떠나 개성에 도착하였다.

2박3일의 답사일정은 끝났으나 우리들에게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었다.

촬영으로 남긴 한시내용을 《옥편》과 대조확인하면서 그 뜻을 해독하여야 했다.

우리는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와 민족고전연구소, **김일성**종합대학 고전문학연구소의 학자, 연구사들에게 번역을 의뢰하였다.

한시본문은 민족고전연구소 소장 송현원선생이 번역을 맡아주었고 문장교열은 **김일성**종합대학 고전문학연구소 오희복선생이 맡아주었다.

그것을 아래에 소개한다.

*1

천마산 꼭대기에 삼청이 열렸으니
한길은 예돌아 세가닥을 이루었네
돌을 인 룡의 머리는 샷갓을 씌웠는가
샘을 낀 범의 꼬리는 수정을 매어단듯
구름덮인 골짜기는 바다와 같고
달빛어린 봉우리들 작은 성을 이루었네
신령스런 우물과 기암괴석 범속하지 않으니
봉래산^{*2} 방장산과^{*3} 명성을 견주누나

을미년 늦은봄 묵남 씀

[주해] *1 삼청:도교의 술어. 천상의 지역 옥

청, 상청, 래청.

*2,3 봉래, 방장:신선들이 산다는 바다의 섬.(선경을 말함.)

력사의 갈피를 헤쳐보면 개성의 천마산을 노래한 한시가 이것 하나만이 아니다.

고려 일대의 시문의 거장이었던 리규보(1168—1241)의 천마산에 대한 풍경전시 4수가 옛 지리책인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그의 문집인 《동국리상국집》에 실려 전해지고있다.

결국 우리들이 천마산탐승의 목적으로 내세웠던 석각한시가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게 되었다.

이번 탐승을 통하여 무엇보다 궁지로운것은 천마산의 절승경개가 선군시대에 새롭게 알려지고 세상에 자랑높이 소개선전할수 있게 된것이다.

돌이켜보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박연폭포 지구에 현대적인 유람도로를 건설할데 대한 은정어린 말씀을 주신데 따라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계기로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과정에 우리 작가들도 도서 《박연전설》을 집필편집하면서 그 과정에 한시며 천마산의 절경을 찾아

내게 된것이다.

말하자면 천마산정 석각한시와 천마산의 절승경개가 알려지게 된것은 세월이 가져다준 그 어떤 우연이 아니라 선군시대가 안겨준 력사의 필연이며 행운이라느것이다.

이 행운은 시작도 결과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마련하여 우리들에게 안겨주신 더없이 귀중한 정신문화적인 재부이다.

천마산 석각한시 번역문은 이 탐승기와 함께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된다.

앞으로 한시에 대한 여러가지 고고학적인 고증은 이 부문 전문가들이 맡아할것이겠지만 한시를 낳은 천마산의 절승경가를 널리 소개선전하여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 무거운 임무는 우리 작가들의 어깨 위에 지워져있다.

우리들은 신들메를 단단히 조여매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령도따라 벽차고 보람찬 선군혁명문학건설의 대행군을 계속 이어나갈것을 굳게 마음다지면서 이 글을 마친다.

광주의 태아

홍 순 련(총련)

그날이 없었더라면
태아는
첫돌을 맞이하여
아장아장 걸음을 배웠으리

그날이 없었더라면
태아는
병아리 어미닭 날개속에 숨듯
젖줄기를 쪽쪽 빨고있으리

그날이 없었더라면
태아는
울음속에서 웃음을 알고
쌔근쌔근 잠들어
꿈나라 별나라로 가는 꿈 꾸고있었으리

그날의 광주는
아스팔트가 선지피로 녹아나고
까마귀도 울지 못해
스르륵 무등산너머로 자취를 감춘
참담한 생지옥이었었다

폭음소리... 아우성... 투석전...
군화소리 요란한 거리로

약에 취한 두놈의 공수병에게
개처럼 끌려온 임신부는
대검에 아래배를 쿡 찢리워
산월이 달아온 태아를 잃었었다

래일이면 래일이면
이 거리 산원에서
생의 순간이 기약된 태아를 잃었었다
금방
울음마저 빼앗긴 태아는
할딱이는 엄마의 젖가슴 향해
공중을 날아
오물덩어리처럼 내던져졌었다
숨졌다
광주거리 길바닥우에서...

모녀의 혼은 보았다
수백수천의 혼들을
민족의 혼이 원수를 노려
민족의 혼이 원수를 노려
피의 력사를 증언한다
산자여 광주를 교발하라...

주체87(1998)년

반일의병장 류린석과 시 《세상을 걱정하노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계몽기문학을 포함한 근대문학은 반봉건적 및 반침략적성격이 강한 애국적인 문학이다.》

우리 나라 근대시기는 일제놈들의 조선침략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고 조선인민과 일제와의 민족적 및 계급적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시기였다.

바로 이러한 시기 류린석(1842-1915)은 일제놈들의 조선침략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국내와 중국 동북지방에서 반일의병투쟁을 벌린 의병장의 한사람이였다.

류린석은 1842년 강원도 춘천의 봉건유생가정에서 태어났다. 자는 여성이고 호는 의암이다. 그는 위정척사운동의 대표적인물인 리항로의 문하에서 학문을 닦으면서 애국정신을 키워나갔으며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하였다.

그는 일제가 강요한 불평등한 《강화도조약》 체결을 반대하면서 《문호를 개방하고 왜적을 맞이해들이면 화가 장차 예측하기 어려울것이니 조정에서 조약을 맺지 않는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청년시절의 이러한 애국정신과 침략자들에 대한 항거의 감정은 1895년 을미사변을 계기로 폭발하였다. 류린석은 전국에 보내는 격문을 발표하고 제천 반일의병대를 맺고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국내와 중국 동북지방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던 류린석은 1910년에는 13도의군도총재로 되어 전국적인 의병투쟁을 지휘하다가 1915년 중국 동북지방에서 생을 마쳤다. 그가 벌린 의병투쟁은 침략자 일제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으며 자주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고무적인 힘을 주었다.

유학자로서 시와 산문에 뛰어났던 류린석은 수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의 시작품들은 높은 반일애국정신과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하여 우리 나라 근대시문학발전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그의 반일애국시문학작품에서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세상을 걱정하노라》이다.

우리 조선 사랑하니
왜놈은 원썬로다
왜놈의 머리 왜놈의 입
왜놈의 온몸을 미워하노라
몸 머리 입만 미워하랴
그놈들의 정치를 더 미워하노니
어떤것은 가볍고 어떤것은 무거우랴
그모두가 원썬로다

보는바와 같이 시에는 철천지원썬 왜놈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적개심이 넘쳐나고있다.

일제의 조선침략은 우리 인민들의 민족적의분과 분노를 촉발시켰으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더욱 뜨겁게 불태워주었다. 하기에 시에서는 침략과 략탈, 야수적만행을 감행하는 왜놈들의 가증스러운 몸뚱아리와 교활한짓을 꾸며내는 머리, 폐의도 료리도 모르고 남의 피를 빨아먹는 악착스러운 입, 남의 나라에 대한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정치 그 모든것을 적의에 차서 규탄하고있다. 시에 반영된 이러한 증오와 적개심은 나라에 대한 사랑과 뗄수없이 련결되어있다.

시에 표현된 일제에 대한 증오는 자기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에 기초하고있다. 자기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결코 원썬을 미워할수 없다.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는 감정이 깊을수록 그만큼 원썬에 대한 증오심이 강해진다. 이러한 사상감정은 나라가 원썬들의 침입으로 하여 민족이 수난을 당할 때 보다 강하게 표현된다.

나라를 사랑하기때문에 왜놈을 원썬라고 규정하

고있는 시의 웨침은 당대 현실의 비통한 체험과 피맺힌 원한과 결부되어 울리고있다.

시 첫구에서의 《우리 조선 사랑하니》라는 구절은 둘째구에서의 《왜놈은 원썩로다》와 대조를 이루면서 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복수심을 더욱 심화시켜주고있다. 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조국에 대한 절절한 사랑의 감정속에서 왜놈들을 원썩로 규정하고 시의 마지막구에서 그것을 다시 반복강조함으로써 시형상을 높이고있다.

특히 시에 반영된 일제에 대한 증오심은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보다 구체화되고 심화된 감정으로 왜놈의 입과 머리, 온몸이 미울뿐아니라 놈들이 실시하는 정치가 더 밍다는 사상정서를 점진법을 리용하여 강조하고있다. 결국 시에 반영된 원썩 일제에 대한 적개심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민족의 모든것을 말살하며 우리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강도적인 침략정치에 대한 증오이며 저주이다.

이처럼 시는 일제놈들이야말로 가장 포악하고 악독한 침략자, 략탈자들이며 살륙과 만행을 도락으로 삼는 살인마, 천추만대를 두고 저주규탄할 야수들이라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힘으로써 인민들을 불타는 적개심을 가지고 일제를 반대하는 반일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우리 나라 근대반일애국시문학의 대표작의 하나인 류린석의 《세상을 걱정하노라》는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높은 반일정신으로 하여 당시 인민들을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고무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리 규 찬

조선문학 주체102(2013)년 제5호 (루제 제787호)

편집위원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2(2013)년 5월 1일

발 행 주체102(2013)년 5월 5일

7-36188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3

D P R Korea

ISSN 1727—9402